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17년 2월
박사학위 논문

蓮坡 惠藏이 조선 후기 차문화에
끼친 영향

조선대학교 대학원
국제차문화학과
박 서 연

蓮坡 惠藏이 조선 후기 차문화에
끼친 영향

The Influence of Yeonpa Hyejang on the tea culture
in the Later Chosun Dynasty

2017년 2월 24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국제차문화학과

박 서 연

蓮坡 惠藏이 조선 후기 차문화에
끼친 영향

지도교수 황 병 하

이 논문을 문학박사학위 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16년 10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국제차문화학과

박 서 연

박서연의 박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u>김 하 립</u>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u>이 재 영</u>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u>한 중 완</u>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u>염 숙</u>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u>황 병 하</u>	(인)

2016년 12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목 차

ABSTRACT

I. 서론	1
1. 연구목적과 배경	1
2. 선행연구와 연구내용	3
II. 연파의 생애와 사상	7
1. 연파의 생애	7
1) 「아암장공탐명」	7
2) 「만사」	12
2. 연파의 시문집에 나타난 사상	16
1) 『아암집』	17
2) 『연파잉고』	23
3) 백수시	38
III. 연파의 차생활과 교유시	44
1. 연파 이전의 차문화	44
2. 연파의 차생활	55
3. 연파의 교유시	65

IV. 연파가 차문화에 끼친 영향	75
1. 차문화의 중흥과 확산	75
1) 차문화의 중흥과 다산	75
2) 차문화의 확산과 추사	90
2. 차문화의 정립과 계승	107
1) 차문화의 정립과 초의	107
2) 차문화의 계승과 범해	114
 V. 결론	 121
 참고문헌	 124

표·그림 목차

<표1> 『연파잉고』 시제	18
<표2> 『연파잉고』, 『아암집』의 17제 36수 비교	20
<표3> 연파의 시문 분류	24
<표4> 연파의 「능엄서언」 8조	29
<표5> 『논어』에 대한 질문개요	36
<표6> 청허 이후 연파 당시까지 승려의 차시	44
<표7> 대둔사 12대종사의 비문 찬자	47
<표8> 대둔사 12대종사, 12대강사의 차시 편수	51
<표9> 연파의 시문집에 나타난 차시	56
<표10> 차시 속에 나타난 차 관련 시어	64
<표11> 『연파잉고』에서 본 사대부와의 교유시	66
<표12> 『아암집』에서 본 사대부와의 교유시	67
<표13> 『연파잉고』, 『다산시문집』, 『아암집』, 「설선당 주련」의 백수시 구 절 비교	100
<그림1> 소영은 현판	104

ABSTRACT

The Influence of Yeonpa Hyejang on the tea culture in the Later Chosun Dynasty

Park Seo Yeon

Advisor : Prof. Hwang Byung Ha, Ph. D.

Department of International Tea Culture,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influence of Yeonpa Hyejang(1772-1811) who was the Buddhist monk at Daedunsa temple in the later Chosun Dynasty on the revival of tea culture. The existing studies on Yeonpa have covered his poems, zen, tea, calligraphy and thought, but they were poor and so were studies on tea. They merely revealed that there was the tea for exchanges with people around Yeonpa at Baekryeonsa temple, Goseongsa temple and Daedunsa temple rather than examining Yeonpa as tea lover who left his footprints for the revival of tea.

Therefore, this study focused on his poems which shouldn't be overlooked on the basis of existing findings of studies. It is obvious that he played the leading roles in the revival of tea culture. But, it should be pointed out that why he was well-known as such a tea lover was based on 'Baeksusi'(a piece of poetry among his poems). It was also related to the fact that he was a Hwaeom lecturer and great zen monk representing Daedunsa temple at that time.

In particular, this study emphasized that the revival of tea culture at that

time was inseparable from the pen name of Yeonpa. Dasan Jeong Yak Yong (1762-1836) who was exiled to Gangjin in 1801 and Chusa Kim Jeong Hee(1786-1856) who led the introduction of advanced culture from the Qing dynasty recognized his poems. Yeonpa wrote his collection of poems 『Aamjip』, but it was edited 110 years after his death. When he was alive, he wrote the collection of poems 『Yeonpa Inngo』, which contains Yeonpa's Baeksusi. Of course, 『Aamjip』 had also Baeksusi, but it was confirmed that there was the entry of letters compared with 『Yeonpa Inngo』. As 『Yeonpa Inngo』 owned by Chusa was widely known at home and abroad, Yeonpa made his mark to China. As Yeonpa's works were published on 『Damjeongchongseo』 by Daejeong Kim Ryeo(1766-1822) at home, many people became to know Yeonpa and he also amazed the best scholar Ong Banggag(1733-1818) who was proficient in the calligraphy and epigraphy as well as scripture· history· literature in China. Ong Banggag's praise made Chusa reevaluate Yeonpa, but their relationship ended because of Yeonpa's death. So there was no trace that Yeonpa met Chusa. Choewi Euisun(1786-1866) who was the same age as Chusa replaced Yeonpa. Moreover, Choewi was Dasan's pupil and Chusa's tea friend in place of Yeonpa and revived the tea culture centering around Daedunsa temple in the late Chosun dynasty. Choewi's tea followed Beomhae Gakan(1820-1896) who received Upasampada from Choewi. It is said the tea culture in the later Chosun dynasty was led by these people.

It is necessary to point out that the distinction of this study was found out from the point of mentioning Yeonpa's leading role to revive the tea culture in the late of Chosun dynasty through his poem 'Baeksusi'. It means that he influenced on the development of the tea culture in the later of Chosun dynasty in the fields of literature, religion and ideology.

Keywords : Yeonpa Hyejang, Dasan Jeong Yak Yong, Chusa Kim Jeong Hee, Damgye Ong Bang Gang, Baeksusi, Yeonpa Inngo, Daedunsa Temple

I. 서론

1. 연구목적과 배경

본 논문은 연파 혜장(蓮坡 惠藏, 1772-1811)¹⁾이 조선 후기의 차문화(茶文化)²⁾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를 고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조선시대의 차문화는 전반적으로 고려 시대에 비해 쇠퇴하였던 것이 사실이나, 정신적인 측면에서 고려의 사상을 이어받았다고 말할 수 있다. 조선시대의 일상생활에서는 차문화가 크게 위축되었지만, 조선 왕실에서는 각종 다례(茶禮)가 꾸준히 행해졌고 상당수 초기 문인들은 고려의 음다 풍습을 계승하고 있었다. 하지만 불교가 크게 쇠퇴하면서 차문화는 유학자들 보다는 일부 사찰의 승려들을 중심으로 그 명맥이 유지되었다.

이런 사회적 환경 때문에 조선시대의 불교는 적극적인 활동을 행하지 못했으나, 일부 소수 승려들은 문학과 예술 활동을 통해 소극적으로 그 명맥을 유지하였다. 조선시대에는 승려들이 시권(詩卷)과 시축(詩軸)을 가지고 다니면서 고관이나 저명한 유학자들을 찾아가 적극적으로 구시(求詩)하는 풍속이 있었다.³⁾ 그들의 사회적 환경과 신분을 뛰어넘는 교유가 가능했던 것은 불교사상에 대한 학문적 교류가 필요했을 뿐만 아니라 차와 시라는 매개체가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고 소통할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해주었기 때문이다.

조선 중기까지는 차문화가 특정 계층을 중심으로 발전되었다면, 후기의 차문화는 승려와 사대부의 다양한 학문적 교유를 바탕으로 상당한 발전을 이룩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이는 조선시대 차문화를 중흥시킨 주요 학자들이 18세기 후반 이후에 등장하였으며, 이들은 불교와 연관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통해 입증될 수 있다. 본 논문의 핵심 키워드인 연파도 이 시기에 활동하였다. 해남 대둔사(大菴寺)⁴⁾와 강진 백련사(白蓮社)⁵⁾에서 주석(駐錫)하며 활동했던 그는 차를 통해 다산 정약용(茶山 丁若鏞, 1762-1836)

1) 범명이 혜장, 연파는 범호, 후에 아암(兒庵)으로 고쳤다. 본고에서 원문을 제외하고는 연파로 통일하여 약칭한다. 연파라는 호의 한자도 蓮坡, 煙坡, 煙波로 달리 쓰였지만, 본고에서는 蓮坡로 통일한다.

2) 자전(字典)에서는 茶를 다로 독음하나, 오늘날에는 차, 다를 혼용해서 사용한다. 본고에서도 혼용해서 쓴다.

3) 김상일, 『조선중기 士大夫의 승려와의 交遊詩 연구』, 『한국어문학연구』 제39집, 2002. pp. 219-220.

4) 현 대흥사, 본고에서는 원문을 제외하고 대둔사로 통일한다.

5) 고려 희종 7년(1211) 승려 원묘국사 요세(圓妙國師 了世 : 1163-1245)는 만덕사를 증창하면서 백련사

과 만나게 되었고, 이들의 차문화 전통은 초의 의순(草衣 意恂, 1786-1866)과 추사 김정희(秋史 金正喜, 1786-1856)에 의해 중흥을 이룩하게 되었다. 이 당시 불교의 중심도량 이었던 대둔사는 『화엄경』 대강회를 수차례 개최하였고, 12대종사와 12대강사를 연이어 배출하였으며, 이를 통해 교선(敎禪)의 진전을 이룩할 수 있는 터전이 되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대둔사는 승려와 사대부의 교유의 장이 되었으며, 그 소통의 매개체는 차였다. 대둔사가 차문화의 중심지가 되고 이를 통해 연파와 다산, 추사와 초의가 교유의 장을 확대하면서, 조선 후기의 차문화는 발전과 정립의 계기를 맞이하였으며, 이는 차문화의 확산으로 이어졌다.

차문화의 확산과 함께 조선 후기 차문화를 이론적으로 정립한 인물은 초의였다. 그는 다도의 고전이라 할 수 있는 『동다송』과 『다신전』을 저술하여 차의 재배법과 법제, 다도의 이론과 실제, 다선의 경지, 음다의 정신, 다선일미의 정신을 제시하였다. 그의 전통과 정신은 제자 범해각안(梵海覺岸, 1820-1896)에 의해 계승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이는 이들의 만남과 활동이 한국 차문화사에서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초의가 차문화 이론을 정립하고 범해가 이를 계승하여 차문화를 확산시킨 배경은 무엇일까? 그리고 대둔사가 차문화의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본 논문은 이런 일차적 질문을 통해 조선 후기 차문화에서 목격되는 승려와 유학자의 교유, 이런 교유를 가능하게 했던 매개 수단과 주요 인물, 그리고 교유를 통한 차문화의 확산과정 등을 고찰하고자 한다.

조선 후기 차문화의 대표적 인물로 평가받고 있는 다산과 초의와 추사의 생활과 학문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한 인물이 등장한다. 그는 바로 연파였다. 이는 이들뿐만 아니라 대둔사의 차문화 중흥과 확산에 연파라는 인물이 관련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본 논문이 연파라는 인물을 고찰하려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그는 대둔사의 12대강사이자 백련사의 8대사의 한 사람으로 활동하였다. 그는 강진에서 유배생활을 했던 다산과 교유하면서 차를 매개로 학문과 문예, 선시, 다선의 세계를 공유하였으며, 다산과 시를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두 사람이 주고받았던 시는 다산의 『다산시문집(茶山詩文集)』과 연파의 『아암집(兒庵集)』⁶⁾을 통해 알려지게 되었다. 그

(白蓮社)라고 고쳤는데, 이때 절 이름 사(寺)가 아닌 단체 사(社)로 한 것은 1208년 최씨 무신정권 이후 요세가 문벌귀족체제와 결탁한 기존 불교계에 대항하여 천태종(天台宗)을 주창하면서 사찰 개혁운동인 백련결사(白蓮結社)운동을 전개할 때 이곳을 중심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6) 한국불교전서에는 『아암유집』으로, 신문관에서 발행한 신경허 편(1920)에서는 『아암집』으로 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둘 다 쓴다.

리고 연파의 『아암집』보다 먼저 발표된 시집 『연파잉고(蓮坡剩稿)』에는 『아암집』보다도 더 많은 이들의 시문이 담겨있다. 『연파잉고』가 추사에게 알려지게 되면서 연파는 청나라와 조선의 유학자들에게 주목받는 인물이 되었다. 이는 조선 후기 대 유학자였던 다산과 추사를 연파의 문명(文名)이 널리 알려졌음은 의미한다. 승려였던 그가 다산이나 추사와 교유를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차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이는 이들의 시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역사적 사실들을 바탕으로 조선 후기 차문화 증흥과 발전에 기여한 연파의 역할과 업적을 문헌을 통해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그의 생애와 사상, 시문집의 내용, 시문집에 나타나 있는 차문화의 특징, 그리고 차문화 발전과 확산에 끼친 영향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선행연구와 연구내용

연파에 관련된 연구는 그렇게 많지 않다. 기존의 연구는 연파의 시문학적 특징과 불교사상적 특징, 그리고 유학자와의 교유가 대부분이었다. 그가 조선 후기 차문화에 끼친 영향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다룬 연구 작업은 아직까지 충분치 못하다. 이 점에서 다승(茶僧)으로서 연파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미흡한 편이다.

연파에 관련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단행본으로 『한국불가시문학사론(韓國佛家詩文學史論)』의 「역학에 심취했던 연파」⁷⁾에서 이종찬은 「산거잡흥」과 「장춘동잡시」, 그리고 사(詞)에 주목하여 문학가로서 연파를 논하였다. 또 『조선선교사(朝鮮禪敎史)』에 연파의 행장을 간략하게 소개한 글이 있다.⁸⁾

둘째, 『아암집』의 국문 번역 및 해설은 다음과 같은 연구를 통해 이루어졌다. 박완식⁹⁾은 연파의 문집인 『아암집』을 번역한 후 해설도 첨가하였다. 동국대학교의 『한국불교전서』 10책은 『아암집』의 원문¹⁰⁾에 구두점을 찍어 읽는데 도움이 되었다. 동국대경원에서 펴낸 『연담대사임하록 외(蓮潭大師林下錄 外)』¹¹⁾에도 『아암집』의 국역문이 수

7) 이종찬, 『韓國佛家詩文學史論』, 불광출판부, 1993.

8) 忽滑谷快天 著 ; 鄭湖鏡 譯. 『朝鮮禪敎史』, 名著刊行會, 1969.

9) 박완식, 『국역 아암집』, 이회문화사, 1997

10) 혜장, 『兒庵遺集』, 권1, 한국불교전서10책, 동국대학교 출판부, 1989

록되어 있다.

셋째, 학술논문으로는 이희재의 「주역을 통해 본 아암의 선사상 1, 2」가 있는데 외전인 『주역』을 통해 연파의 사상을 기술해 놓았다.¹²⁾ 박완식은 『아암집』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운문과 산문의 양상과 그 내면의식을 분석하여 불교사상과 문학의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고찰하였다. 그런데 그는 동천(東泉)을 다산이 아닌 다른 인물로 제시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¹³⁾ 임종욱은 연파의 선시의 문학사적인 의의를 서술해 놓았다. 그는 연파의 시인식과 미의식이 초의선사의 문학과 사상에 영향을 주었을 거라고 토로하고 있다. 또한 그는 연파의 시에 담겨있는 심경을 ‘평범 속의 비범, 졸렬함 속의 대교’, ‘산수시의 선미’를 통해 고찰하였다.¹⁴⁾ 김석태는 연파가 선교통합을 이루어낸 18세기 연담과 시·선·차에 두루 경지를 이룬 초의의 중간에서 사상적으로나 문학적으로 교량적 입장에 있다고 기술하였다.¹⁵⁾ 정민은 다산이 연파에게 준 시와 편지, 연파가 다산 등에게 준 편지 서첩인 『견월첩』을 소개하고 있다. 이 서첩은 연파와 다산의 차생활에 대한 중요한 자료를 담고 있는데, 다산과 대둔사 승려들과의 교류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다산이 고성사에서 연파와 나눈 교류의 여러 주변 정황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들을 전해주고 있다.¹⁶⁾

넷째, 학위논문으로 권동순의 「兒菴 惠藏에 대한 研究」는 연파의 생애와 사상에 대해 소개하고, 묵명유행(墨名儒行)이라는 평가의 정당성을 서술하고 있다. 아울러 연파의 불교사상적 면모와 불유(佛儒)를 아우르는 학문세계에 대해 고찰하고 있다.¹⁷⁾

이 외에 김선원의 「명인들의 文과 藝」¹⁸⁾, 「묵명유행의 선승 아암혜장」, 「아암혜장 집중연구 1, 2」¹⁹⁾는 주로 연파의 서체를 고찰하고 있다.

위 논문들은 연파를 사상적·문학적 측면에서 고찰하였지만, 주로 그의 문집인 『아암집』을 중심으로 연구했다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의 또 다른 문집인 『연파인고』에 더 많은 시와 역사성이 담겨 있는데 이에 대한 연구가 간과되었다는 점은 아

11) 한글대장경 『蓮潭大師林下錄 外』, 동국역경원, 1997.

12) 이희재, 「주역을 통해 본 아암의 선사상 1, 2」, 『선문화』 33호, 2003.

13) 박완식, 「아암시문학연구」, 『어문연구』 25집, 1997.

14) 임종욱, 「아암혜장(兒菴惠藏)의 선시에 나타난 자연미」, 『한국불교문화연구』 제3집, 2004.

15) 김석태, 「兒菴 惠藏의 사상적 지향과 시문학의 양상」, 『古詩歌研究』 제18집 동아대출판부, 2006.

16) 정민(d), 「다산과 혜장의 교류와 두 개의 견월첩(見月帖)」, 『한국학논집』 제43집, 한양대 한국학연구소, 2008.

17) 권동순(圓法), 「兒菴 惠藏에 대한 研究」,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18) 김선원, 「명인들의 文과 藝」, 『월간 문학바탕』, <http://www.moazine.com>, 2010.

19) 김선원, 「묵명유행의 선승 아암혜장」, 「아암혜장 집중연구 1, 2」, 『불교춘추』 4, 6, 7호, 불교춘추사, 1996-1997.

쉬움으로 남아 있다.

연파와 다산은 승속을 뛰어넘어 차시를 주고받으며, 다산의 미를 교감하는 깊은 교류를 맺었다. 그 당시 백련사 승려였던 연파와 강진으로 유배 온 다산의 교류는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렇게 시작된 유불의 만남은 추사 및 초의와의 교류와 교감으로 이어졌다. 그 교류의 무대가 된 곳은 대둔사와 백련사 일원이었다. 19세기 당시 대둔사에는 완호 윤우(琬虎 尹佑, 1758-1820), 호의 시오(縞衣 始悟, 1778-1868), 초의, 수룡색성(袖龍 隲性, 1777-1846), 기어 자홍(騎漁慈弘, ?-?) 등의 사제(師弟)가 활동하고 있었는데 모두 교선에 상당한 조예가 있었고, 차와 시작(詩作)을 통해 사대부들과 교류하였다. 이러한 상호 교류를 통해 유불 지성인들이 영향을 주고받으며 지성을 넓혀갔다. 이를테면 연파는 다산을 통해 주로 『주역』을 많이 배워 통달한 바가 있었고, 다산은 여러 승려의 비명(碑銘)과 대둔사의 사지(寺志)를 짓는 등 여러 불사(佛事)를 맡아 불교 공부에 정진한 바 있었다. 조선 후기의 차문화는 대둔사를 중심으로 융성하였다. 대둔사는 불교세력이 크게 위축되었던 당시에도 12대종사와 12대강사를 배출하는 등 그 학풍과 선풍(禪風)이 계속 유지되었다.

이런 역사적·사상적 배경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고찰하고자 한다. I 장의 서론에 이은 II 장에서는 연파의 생애와 사상을 다산이 지은 연파의 「탑명」과 「만사」를 통해 알아보려고 한다. 이어서 『아암집』과 『연파잉고』의 비교, 분석은 물론 연파의 시문집에 나타난 그의 사상 전반을 조명하면서 아울러 백수시(柏樹詩)²⁰⁾에 드러난 그의 선사상도 그의 시작(詩作)을 통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III 장에서는 연파와 대둔사 승려들의 차시를 소개하면서 대둔사의 위상과 연파의 차생활 및 사대부들과의 교류시를 소개하고 나아가 이를 통해 그의 문학적 배경과 삶의 태도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IV 장에서는 연파의 시문, 특히 그의 백수시가 청나라에 알려지면서 대둔사가 당시 불교의 중심지로서의 자리매김이 있기까지의 과정을 약술하고 대둔사의 차문화 발전과 차문화 정립 및 계승을 고찰해 보기로 한다. 이 장은 본 논문의 근간을 이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파가 차문화에 끼친 영향이 중점적으로 다루어 질 것이다. 그리하여 연파와 다산, 연파와 추사, 그리고 추사와 초의의 만남이 언제 어떤 계기로 이루어졌으며 그들 사이에 차와 선, 시를 통한 교류는 어떤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지에 유의하고자 한다.

20) ‘백수시’의 ‘백’은 『연파잉고』에는 ‘栢’, 『다산시문집』과 『아암집』에서는 ‘栢’이다. 본고에서는 둘 다 혼용해서 쓴다.

지금까지 조선 후기 차문화에 대한 연구는 주로 초의에 집중되어 온 것이 사실인데, 본 논문에서는 조선 후기 차문화 중흥의 계기를 연파와 다산에 의한 차문화 확산에서 찾고자 하며, 이를 위해 연파의 『연파잉고』와 추사의 연관성 또는 대둔사 승려들과의 인연에 주목하고자 한다. 아울러 원지(遠地)에서 꽃핀 이러한 유불의 교류가 연파의 백수사에서 비롯된 것임을 강조하면서 이제까지 그 중요성이 간과(看過)되었던 연파의 역할을 부각시키고자 한다. 아울러 연파 이후 대둔사 차문화의 다풍이 초의의 여러 저작과 활동에 의해 크게 꽃피게 되었고, 제자 범해에 의해 그 전통이 계승되고 있다는 점을 다각도로 조명하고자 한다.

V장에서는 이상의 제반 사항을 종합한 결론을 도출하고자 한다.

하지만 본 논문은 기존의 연구들과 차별성을 기하고자 시도하였으며, 그 핵심 키워드를 연파에서 찾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연파를 중심으로 새로운 차문화 연구를 시도했다는 점과 백수사에 대한 완전한 해석과 분석을 통해 조선 후기의 차문화를 고찰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연파와 차문화의 관련성 및 연결고리에 대한 근거는 그의 백수사와 추사와의 관계에서 찾았다. 본 연구는 그 관련성과 연결고리의 실마리를 풀기 위해 『연파잉고』와 『아암집』과 백수시를 통한 그의 사상 고찰 → 백수시에 나타난 유불사상의 특징 → 백수시가 청나라에 전달된 과정 → 연파와 다산, 초의 및 추사 등과의 교류과정 → 대둔사가 불교와 차문화의 중심지로 발돋움한 과정 등의 순서로 조선 후기 차문화의 확산 과정을 고찰하였다.

II. 연파의 생애와 사상

1. 연파의 생애

연파의 속명은 김홍조(金弘祚)이다.²¹⁾ 혜장은 그의 법명이고, 자는 무진(無盡)이며, 본래의 호는 연파이다. 그가 살았던 조선시대의 불교는 정권을 잡은 유학자들의 승유 억불 정책으로 인해 커다란 변화를 겪었다. 지배층으로서 특권을 누리던 승려들은 점차 평민의 지위로 하락하였고, 여러 종파로 나뉘어 사상적 발전을 전개하였던 불교계는 종파 통폐합으로 인해 선·교 양종으로 축소되었다.²²⁾ 조선 후기 특히 전라도 지역에서 활동했던 승려들에 관한 내용은 대둔사의 범해가 저술한 『동사열전』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범해는 연파보다 반세기 뒤 대둔사에서 살았던 승려였음에도 불구하고 연파에 대한 특별한 자료를 제공해준 것은 없다. 그런데 다산은 달랐다. 『아암집』과 『대둔사지』, 그리고 『만덕사지』에 실려 있는 연파의 비명은 모두 다산이 직접 지은 것들이었다. 『아암집』과 『대둔사지』에는 「연파대사비명(蓮坡大師碑銘)」, 『만덕사지』에는 「연파대사숙혜직소어인공화문원포어중국(蓮坡大師夙慧直招於因公和聞遠布於中國)」라는 제목으로 위 비명의 일부가 실려 있다. 다산은 연파의 비명 말고도 탐명과 만사 2편을 지어 연파와 특별한 정을 나누었다. 탐명과 만사는 『아암집』에만 전해지고 있다. 『대둔사지』에 수록된 연파에 대한 언급은 너무 장황한데, 이는 「아암장공탐명」을 거의 전부다 옮겨 기술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다산이 지은 「아암장공탐명」을 통해 연파의 삶에 대해 살펴보려 한다. 「아암장공탐명」은 「아암유집」과 「다산시문집」에 수록되어 있고, 두 문건은 찬자가 동일함에도 내용에 약간씩 차이가 발견되고 있다. 「아암유집」은 연파의 제자들이 편록한 것이었기 때문에 연파에 대한 부정적 측면을 빼 흔적들이 발견되었지만, 『다산시문집』은 연파의 삶을 훨씬 사실적으로 기술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1) 「아암장공탐명」

21) 김선원, 「아암혜장 집중연구 1」. 연파의 속명을 밝힌 것은 이 글 밖에 없다. 그렇지만 전거(典據)를 밝히지 않아 유감이다.

22) 이종수, 「조선 후기 불교 履歷科目 선정과 그 의미」, 『한국사연구』 150호, 2010, p. 115.

<탑명-1> 아암은 김씨로 어릴 때 이름은 팔득(八得)이다. 혜장은 그의 범명이고 자는 무진이며 본래의 호는 연파(煙波)이다. 색금현 화산방(塞琴懸 華山坊)사람으로 출신이 미천하고 집안도 또한 가난하였는데, 어릴 때 출가하여 대둔사에서 머리를 깎았다.²³⁾

<탑명-1>은 연파의 출가 이전의 얘기이다. 그는 색금현 즉, 지금의 전남 해남군 화산 출생으로 출신이 미천했다. 어릴 적 이름은 팔득이라 했다. 키가 작고 몸집도 왜소한데다 순박하고 못 생겨서 마을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다. 아암이라는 별호도 있었다. 「아암장공탑명」에는 “아암은 성품이 매우 고집스러웠으므로 내가(다산), ‘그대가 어린 아이처럼 유순해질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더니, 이에 자호를 아암이라고 하였다.”고 하였다. 반면 「동방제15조연파대사비명」의 서(序)에는 “『노자』에 기운을 오로지 한 군데에만 쓰게 하고 부드러움을 극진히 하기를 갓난아이 같이 하는가, 부드러움은 삶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어떤 사람이 이 말을 인용하여 연파에게 “그대의 성품이 강건하니, 부드러움을 극진히 하기를 어린 아이같이 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니 연파가 스스로 호를 아암이라 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아암장공탑명」과 「연파대사비명」은 모두 다산이 지은 것이지만 이런 차이가 있었다.

한편 연파라는 호의 한자는 蓮坡, 煙坡, 煙波로 달리 쓰여 있었다.²⁴⁾ 보통 蓮坡로 쓰이고 있으나 다산이 은봉 두운(隱峰斗雲, ?-?)에게 보낸 「답은봉선(畚隱峰禪)」에서는 ‘煙坡’로 쓰고 있다. 여기에서 다산은 연파의 입적을 서글퍼 하였다.

“편지가 와서 글을 읽고 선미(禪味)가 맑고 고요한 줄을 알게 되니, 마음이 펴 놓이는 구려, 천륜의 혈맥이란 사람의 힘으로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승려들은 이를 끊어버리니, 윤리를 도답게 하는 도리는 실로 이렇게 해야 합당한 법입니다. 이 일로 성내지 않았으면 좋겠소. 내 병은 그만그만하오. 하지만 煙坡가 세상을 뜬 뒤로는 마음이 늘 서글플 따름이오. 다 갖추지 않고 답장 드리오. 신미년(1811) 12월 21일. 다산노초.”²⁵⁾

다산이 형 정약전에게 보낸 편지 「上中氏」에는 「아암장공탑명」과 마찬가지로 ‘煙波’가 사용되었다.

23) 兒菴本金氏 小字八得 惠藏其法名字曰無盡 本號曰煙波 塞琴縣之花山坊人 生地微 家且貧 幼而出家 落髮於大菴寺.

24) 각주 1참조.

25) 정민(a), 『다산의 재발견』, 휴머니스트, 2011, p. 695. “書至領情, 因知禪味清寂, 慰意良滄 天倫血脉, 非人力可絕, 僧徒絕之, 敦倫之道, 實合如許, 勿以是嗔恚可也. 吾病伏如昨, 而煙坡逝後, 心常悵惘爾, 不具謝, 辛未十二月廿一日, 茶山老樵報.” 안백순 소장.

대둔사(大菴寺)에 어떤 승려가 있었는데 나이 40에 죽었습니다. 이름은 혜장, 호는 연파(煙波), 별호(別號)는 아암, 자(字)는 무진(無盡)이라 하는데, 본래 해남(海南)의 한미한 사람이었습니다. 27세에 병불(秉拂)이 되자 제자가 백 수십 명에 이르렀으며, 30세에는 둔사의 대회(이 대회는 오직 팔도의 대종장(大宗匠)이 된 뒤에야 개최하는 것임)를 주재했습니다. 을축년(순조 5, 1805) 가을에 만덕사에 머물렀는데 그때 저와 만났었습니다. 서로 만나던 저녁에 곧 『주역』을 논했는데, 그는 하도(河圖)·낙서(洛書)의 학문에 대해 횡설수설(橫說豎說, 자유자재로 설명함)하면서 자기의 말처럼 외었습니다. 또 주부자(朱夫子)의 『역학계몽(易學啓蒙)』을 익숙히 보고서 대중없이 여러 조목을 뽑아내어 세차게 흐르는 강물처럼 거침없이 말하였으므로 바라보기에 겁날 정도였습니다.²⁶⁾

<담명-2> 춘계 천묵(春溪天默)에게서 학문을 배웠다. 아암의 놀랄만한 지혜는 못사람들보다 특출하여 배운 지 수년 만에 불문에 그 이름이 자자하였다. 이미 장성하여서는 널리 불서(佛書)를 배우고, 연담 유일(蓮潭有一)과 운담 정일(雲潭鼎駟)에게 나아가 차례로 섬기며 가르침을 받았다. 27세 되던 해에 정암 즉원(晶岩卽圓)의 방에서 향을 사르고 법맥을 이었으니 소요 태능(逍遙太能)의 종법손(宗法孫)이요, 화악 문신(華嶽 文信)의 적통(嫡統)을 이은 제자가 된 것이다.²⁷⁾ 아암이 여러 강백으로부터 경전을 배움에 비록 머리를 숙이고 들었지만 문을 나설 때면 ‘뽕[呸]’하는 소리를 내었음을 깨닫곤 했다. ‘뽕’라는 것은 비웃는다는 뜻이다. 그러나 오직 연담의 글과 가르침에 대해서는 비웃지 않았다. 30세 때 두륜대법회(頭輪大法會)의 회맹을 주관했는데, 이 때 모인 이가 백 여 명이였다.²⁸⁾

<담명-2>는 출가 이후 이력과 사승(嗣承)관계, 그리고 활동상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연파는 월송 재관으로부터 구족계를 받고 외전에도 밝은 춘계 천묵으로부터 학문을 익혔다. 나아가 당대의 대강백 연담 유일과 운담 정일의 가르침까지 받았다. 연담이나 연파의 법호 첫 글자는 똑같이 ‘蓮’이다. 연담은 대둔사 12중사 중 12번째이고, 연파는 대둔사 12강사 중 12번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연담을 대연(大蓮), 연파를 소연(小蓮)이라고 불렀다. 우연의 일치인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연결시키고 있는 것은 연파가

26) 정약용, 『다산시문집』 20권, 「상중씨」, 大菴寺有一僧, 年四十而死, 名曰惠藏, 號曰煙波, 別號兒菴, 字曰無盡, 本海南之微人也. 二十七秉拂, 致弟子百數十人, 三十爲菴寺大會.(此會惟八道大宗匠然後爲之). 乙丑秋, 棲萬德寺, 與我相見. 相見之夕, 則論『周易』, 彼於「河圖」·「洛書」之學, 橫說豎說, 如誦己言, 又熟見朱夫子『易學啓蒙』, 亂抽諸條, 語若懸河, 望之可畏

27) 그의 法脈은 청허휴정→소요태능→해운경렬→취여삼우→화악문신→설봉회정→송과각환→정암즉원→연파혜장으로 이어진다.

28) 從春溪天默學. 天默淹貫外典. 而兒菴警慧出羣. 學之數年. 名噪緇林. 顧短小樸默. 不類閨梨. 鄉中薦紳先生. 皆愛其才而狎之. 既長廣受佛書. 歷事蓮潭有一, 雲潭鼎駟. 年二十七. 拈香於晶巖卽圓. 卽逍遙之宗. 華嶽文信之嫡傳也. 兒菴從諸師受經. 雖低首聽說. 及出戶覺口中有聲曰呸. 呸也者. 哂之也. 惟蓮潭手筭口授. 不呸也. 年甫三十. 主盟於頭輪之會. 會者百餘人.

그만큼 연담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연파는 27세 때 정암 즉원에게 염향(拈香)하여 법맥을 이어받았다. 이는 그가 소요태능의 종법손이요, 화악 문신의 적통을 이어 간 것을 의미한다. 그는 무안군수 서준보에게 보낸 편지에서 “어렸을 때 저는 연담을 따라 화엄의 비밀스런 종지를 배웠고, 더 나이가 들어서 정암 노사를 따라 향을 사르고 법맥을 전수받았습니다. 이 두 분은 그 지혜와 고행이 모두 불문의 우두머리가 되고 법문의 스승이 되는 분들입니다.”²⁹⁾고 기술하였다.

연파는 30세에 팔도의 대종장이라야 할 수 있는 대둔사 화엄대강회의 맹주가 될 정도로 학문적으로 커다란 업적을 이룩하였다. 이때 모인 이가 백 여 명이라고 했는데, 「연파대사비명」에는 모인 이가 천여 명이라고 적혀있다. 또한 다산은 「상중씨」에서 백수십 여 명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는 저자는 동일하지만 문헌마다 표현이 조금씩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연파는 무안군수 서준보에게 보낸 편지에서 “말법(末法)이 쇠퇴하고 선배가 모두 죽음으로써 무식한 승려들이 나를 스승으로 잘못 삼은 바람에 참으로 분발한 나이에 외람되어 스승의 자리를 점거하여 시골선생 생활을 하면서 『화엄경』을 강론한 지도 벌써 일곱 차례 지내왔고 그 나머지 떠벌리는 일들이야 어찌 손으로 꼽을 수 있겠는가”³⁰⁾라고 하였다. 이를 통해 연파는 매우 겸손한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담명-3> 아암은 외전(外典) 중에서 『주역』과 『논어』를 매우 좋아하였는데 그 뜻을 연구하여 조금도 의심이 남지 않게 하였다. 또 책력[碁閨]의 수리(數理)와 율려(律呂)의 법도, 그리고 성리학에 대한 여러 가지 책 같은 것까지 모두 정밀하게 탐색하고 연마했으니 보통 선비들로서는 따를 수가 없을 정도였다. 성품이 시를 좋아하지 않아 지은 것이 아주 적었고, 또 빨리 짓는 것에는 적성에 맞지 않아 누가 시를 주면 반드시 나중에라도 화답하였다. 이로써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였다. 변려문(駢麗文)에는 더욱 정교하여 격율(格律)이 정밀하고 엄격하였다. 불서(佛書) 중에는 『수능엄경(首楞嚴經)]과 『기신론(起信論)]을 아주 좋아했고, 『조왕경(寵王經)]이나 『축주(廁呪)] 따위는 입에 올리지 않아 이 때문에 다른 승려들로부터 비난받기도 했다.³¹⁾

29) “少從蓮潭有一和尚 得聞華嚴秘旨 中歲拈香於晶巖老師之室 此二老者 其慧智苦行 皆足以冠冕緇林 鐘鼓法門.” 『아암유집』 권2.

30) 박완식, 『국역 아암집』, 이회문화사, 1997, p. 221.

31) 兒菴於外典 酷好周易論語 究索旨趣 期無遺蘊 若碁閨之數 律呂之度 及性理諸書 皆精核研磨 非俗儒可及 性不喜詩 所作絕少 又不能副 急有贈 必追和之乃驚人 尤工駢麗 律格精嚴 於佛書篤好首楞嚴起信論 而寵經廁呪 未或被辱.

<답명-3>은 연파의 이력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그는 외전(外典)인 『주역』과 『논어』를 내전(內典)보다 더 강조하였다. 이는 그가 찬자인 다산과 직접 관계를 가지고 있었지만 자신의 시문에도 무게를 두고자 했음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그는 승려가 아닌 선생이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지만, 이런 모습이 다산에게는 더 좋게 보였던 것이다.³²⁾ 그가 외전에 관심을 두게 된 것은 외전에 밝은 춘계 천묵의 영향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답명-4> 문도로는 네 명이 있었으니 수룡 색성(袖龍曠性)·기어 자홍(騎魚慈弘)·철경 응언(掣鯨應彦)·침교 범훈(枕蛟法訓)이 그들이다. 신미년 가을에 병을 얻어 9월 14일에 대둔사 북암(北菴)에서 입적하시니, 그의 나이가 겨우 40세 밖에 되지 않았다.³³⁾

<답명-4>는 연파의 시적(示寂)과 문도에 관해 언급하였다. 여기에서는 문도가 네 명이라고 했는데, 「연파대사비명」에는 일규 요운(逸虬 擾雲)을 포함시켜 다섯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대둔사지』의 12강사를 언급한 부분에서는 수룡과 기어만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정확한 언급을 위해서는 다른 자료의 출현을 기다려야 할 것 같다. 이 밖에 연파는 다산에게 화악선사의 비명을 부탁하기도 하였다. 여기에서 다산이 연파를 언급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사문(沙門) 혜장이 보은(寶恩)의 산원(山院)에 있는 나에게 들러, 그의 범조 화악(華嶽)의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나에게 묘비에 쓸 글을 청했다. 나는 그가 호매(豪邁)하되 불우(不遇)했던 것이 슬퍼서 이를 허락했다.”³⁴⁾

“그의 전등(傳燈)의 연원은 위로 서산의 사점주(四點炷)를 이었고 아래로는 혜장의 사견발(四見跋)에 이르렀으니, 선사는 그 가운데이다.”³⁵⁾

32) 정약용, 『다산시문집』 20권, 「상중씨」.

33) 有四徒 曰袖龍曠性騎魚慈弘 掣鯨應彦 枕蛟法訓 既授衣鉢 兒菴乃老 辛未秋得疾 以九月幾望 示寂于北菴 其臘僅四十.

34) 정약용, 『다산시문집』 17권, 沙門惠藏. 過余于寶恩山院. 爲余言其祖華嶽事. 丐余文其石. 余悲其人豪邁不遇. 是故許之.

35) 정약용, 『다산시문집』 17권, 其傳燈之緒. 上溯西山四點炷. 下至惠藏四見跋. 而禪師中焉. 서산대사에겐 네 명의 수제자가 있었으니 사점주란 그 네 명의 마음의 심지에 서산이 도의 불을 붙여 주었다는 것을 말함. 그 네 명 중 소요 태능의 계통이 화악 문신이고, 화악 문신의 재전 제자가 연파 혜장이다. 혜장은 네 명의 스승에게 배워 깊은 이치를 터득하였으니 사견발은 그것을 말함. 그 네 명의 스승은 「아암 장공 답명」에 나오는 춘계 천묵·연담 유일·운담 정일·정암 즉원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할 때 다산은 연파의 비명과 탐명을 통해 연파에 대한 그의 애정과 특별한 관심을 표명했음을 알 수 있다.

2) 만사

『아암집』에 실려 있는 연파를 애도하는 글, 「만아암(輓兒菴)」과 「아암화상만사(兒菴和尚輓詞)」 두 편에도 연파의 생애가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 중 「만아암」의 지은이는 다산으로 알려져 있으나, 「아암화상만사」의 작자는 누구인지 알 수 없다. 그런데 「상중씨」에 의하면, 「아암화상만사」도 다산의 작품임을 알 수 있다. 다만 『아암집』에는 제3구가 “일부논어빈관수(一部魯論頻盥手)”인데 반해 『다산시문집』에는 “일부논어빈관수(一部論語頻盥手)”³⁶⁾인 점이 다르다. 하지만 자구에 약간의 차이가 있어도 뜻은 다르지 않다.

「아암화상만사」에는 연파의 생애가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墨名儒行世俱驚
悵悵華嚴舊主盟
一部魯論頻盥手
九家周易細研精
淒涼破衲風吹去
零落殘灰雨洒平
帳下沙彌三四五
攀轡猶復喚先生

승려가 유자(儒者)노릇하니 온 세상이 놀랐는데
슬프다, 화엄강회의 옛 맹주여.
한 부의 논어 앞에서 자주 손을 씻고
구가의 주역까지 세세하게 정수를 연구했네.
처량쿠나! 헤진 가사 바람에 날려가니
타고 남은 재는 비에 씻겨 평탄하네.
문하의 몇몇 사미들
상여를 끌며 스승 이름 부르짖네.³⁷⁾

위 글은 연파가 입적한 지 며칠 지난 9월 어느 날 다산이 산과(山果) 한 접시를 따고 마을에서 술 한 사발을 사가지고 와서 기어로 하여금 곡을 하게하며 연파의 영전에 올린 만사이다.³⁸⁾ 다산이 본 연파의 일생은 화엄의 맹주로 대문사가 자랑하는 12대강사였음이 분명했다. 이는 연파가 『논어』와 『주역』에 더 밝은 선비[墨名儒行]였다는 것은 다산의 생각이었음을 의미한다. 다산은 「만아암(輓兒菴)」을 지어 다음과 같이 연파를 애도하였다.

36) 魯論은 노나라에 전해오고 있던 논어의 별칭.

37) 한글대장경 『연담대사임하록 외』, 동국역경원, 1997, p. 585.

38) 정약용, 『다산시문집』 17권, 「祭兒菴惠藏文」.

精籃幽居別人居
 一抹寒裊已碧虛
 九曲水聲風定後
 四更山色月明初
 檣根小小新移菊
 架上亭亭舊束書
 無人說與庖羲事
 獨立朱欄淚滿裾

그옥한 암자에 별난 승려 계시더니
 차가운 연기 한 줄기 허공 속에 사라져간다.
 구비치는 물소리 바람이 잠든 후에
 사경의 산 빛에 초저녁달이 솟는다.
 담 밑엔 올망올망 국화 옮겨 심고
 서가위엔 반듯반듯 해묵은 책 묶여 있다.
 『주역』이야기 누구와 나눌까
 홀로 난간에 서 있노라니 옷깃에 눈물가득 적셔온다.³⁹⁾

또한 다산이 지은 「집을 그리는 칠십 운, 혜장에게 부치다(懷檜七十韻 寄惠藏)」의 병서 일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내가 처음 장공(藏公)을 보았을 때 솔직하고 꾸밈새가 없었으며 남에게 아부하는 태도가 없었다. 그리하여 그를 아는 이는 그를 귀히 여기지만 모르는 자는 교만하다고 하는 것이었다. 그렇다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설명할 수도 없을진대 나 자신을 내가 닮는 길 그것만이 고명(高名)을 유지하는 최상의 방법이라. 여기 이 표현은 누추하지만 뜻만은 그렇지가 않아 그 뜻을 이해하고 지켜주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⁴⁰⁾

<2>

況子才格高
 名聞殷叟憎
 博覽涉丘墳
 妙解窮華楞
 算曆躡閻妄
 賦詩追劉應
 錯綜著卦數
 獨詣無師承
 纒纒豎拂語
 弟子紛鈔膽
 弱齡藹蜚英
 聲譽超儕朋

더구나 그대는 재주가 높아
 명성이 시중에까지 자자하고.
 많은 경전을 섭렵했으며
 『화엄경』, 『능엄경』도 통달하고.
 역법 추산은 평망을 뒤따르며
 시 짓는 솜씨도 유웅을 추종하고.
 『주역』의 괘수 풀이까지
 스승도 없이 혼자 다 연구했기에.
 불자 세워 들고 연이어 하는 설법
 제자들 너도나도 등초 한다네.
 젊은 나이에 영특함이 드러나
 명성과 칭찬이 또래에는 없었으니.

<3>

威鳳彌低垂

봉일수록 더 고개를 숙이고

39) 『연담대사임하록 외』, 위의 책, p. 584.

40) 余始見藏公。眞率不矯飾。無脂韋態。知者貴之。不知者以爲驕。既莫戶說。莫如自修。此處高名之道也。詞鄙意厚。庶幾存持。

冥鴻亦畏矰
 逸氣有含蓄
 雲翮竟翔翮
 卑鄙復混沌
 慎莫設畦塍

.....

欣然具茶飯
 毋得辭炊蒸

.....

기러기도 주살을 무서워 앓던가.
 기운이 넘쳐도 축적을 해둬야
 구름을 박차고 날 때가 있는 법.
 낮게 알게 그리고 흐리멍덩하게
 되도록 너와 나를 사이 두지 말게나.

흔연히 차 끓이고 밥 지으며
 찹질하고 불 때는 일 사양 말게나.⁴¹⁾

위 내용을 살펴보면, 연파는 유자와 교유를 하면서 대둔사에서 비방을 들었던 듯하다. 다산은 연파에게 비방을 무시하고 명성이 높아지면 당연하게 생기는 현상이니 받아들이라고 말하였다. 다산은 이 시에서 당시 우리나라의 풍속이 승려를 천하게 여겨 양반들에게 하대 당하고 갖은 수모를 당하는 것을 동정하였다. 다산 특유의 인간에 대한 사랑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⁴²⁾ 다산은 연파가 대둔사에서 진술하지만 교만하다는 평을 받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겼다. 그래서 봉황새와 같은 얻기 어려운 현자는 더욱 자신을 낮추고, 눈에 띄지 않게 날아가는 기러기와 같이 속세를 떠나 뜻을 고상하게 가지는 사람은 남의 비방을 받지 않도록 조심한다고 말하며, 은근하게 겸손의 미학을 혜장에게 시로써 형상화하였다. 다산의 진심어린 충고가 아닐 수 없다.⁴³⁾

「아암화상만사」보다 나중의 일이었지만 추사와 동리 김경연⁴⁴⁾도 다산의 술회와 비슷하게 연파를 찬미한 시를 남기고 있다. 즉, 무인년(1818) 가을에 추사가 작자 미상의 「아암장공완역소상(兒庵藏公玩易小像)」⁴⁵⁾의 상단에 썼다는 시이다.

不讀華嚴讀周易
 吾不知是儒是釋
 五百年來無此格

불경(『화엄경』)은 읽지 않고 『주역』만 읽으니
 그가 유학자인지 불자인지 나는 모르겠네.
 5백년 이래 이런 품격의 인물은 없으리.⁴⁶⁾

41) 정약용, 『다산시문집』 5권, 「懷檜七十韻 奇惠藏」.

42) 정약용, 『여유당전서』 二, 「論語古今註」.

43) 金相洪, 「茶山學이 草衣禪師에게 끼친 影響」, 『漢文教育研究』, 第19號, p. 498.

44) 김경연(東籬 金敬淵, 1778-1820)의 자는 시현(時顯)이고, 1813년에 진사(進士), 1814년 식년문과(式年文科)에 병과로 급제, 삼사(三司)의 청요직(淸要職)을 역임하고, 의주 부윤(義州府尹)에 이르렀다. 완당과 북한산 순수비를 보러 함께 산을 오른 친구로, 1819년 서장관으로 연경에 가서 섭지선과 서화, 탁본자료를 교환하며 친하게 지낸 인물이다.

45) 아암 혜장이 『주역』을 음미하는 초상.

46) 유흥준, 『완당평전』 1, 학고재, 2002, p. 183.

동리 김경연은 이 소상의 마지막 제기(題記)에 완당의 서재[崇陽學堂]에 왔다가 쓴 것이라고 하면서 아래와 같은 찬시를 남기고 있다.

『법화경』이 곧 『주역』의 간괘(艮卦)와 같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으니 이는 감춤과 드러냄이 간격이 없다는 것이다. 이는 혜장 공을 두고 일컫는 말이다.
동리일사가 승양학당을 지나다가 이에 쓰다.⁴⁷⁾

이 소상에 “소봉래각(小蓬萊閣)에서 제하다”라고 했는데 소봉래각은 화암사 시경루의 별칭이다. 이 초상화에 ‘보담재인(寶覃齋印)’이라는 완당의 소장인이 찍혀 있는 것으로 보아 완당이 늘 곁에 두고 본 그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⁴⁸⁾

다산이 쓴 「아암장공탑명」에도 연파가 『주역』을 공부하는 모습이 아래와 같이 기술되어 있음에서 연파가 다산의 『주역』에 큰 관심을 가지고 교유하게 됨을 알 수 있다.

밤이 이미 깊어 온 주변이 고요해지자 내가 “그대가 『주역』에 대하여 아주 잘 안다고 들었는데 참으로 의심나는 게 없는가?”라고 물었더니, 아암이 “정씨의 전, 소씨의 설, 주자의 본의와 계몽 등에 대해서는 모두 의심나는 게 없지만 오직 경전의 본문에 대해서만은 알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래서 내가 『역학계몽』 수십 장에 대하여 그 의미를 물어보았더니 아암은 『계몽』이라는 책에 대해서는 귀신처럼 융통하고 입에 익혀 한 번에 수십 수백 마디까지 외워버려 유탄이 판때기를 뒤엎듯, 술 부대에서 술 쏟아지듯 도도하게 토해내는데 막힘이 없었다. 나는 깜짝 놀라서 이 사람이 과연 숙유(宿儒)임을 알았다.⁴⁹⁾

또한 1807년 다산이 제자 이학래의 사랑채인 묵재로 거처를 옮기면서 연파도 다산을 방문하기 위해 묵재를 여러 번 들렀던 사실이 다산의 여러 시에 나타나 있다. 여기에서 다산은 연파의 성격을 잘 묘사하고 기술하였다. 아래 시는 정묘년(1807) 봄 강진에 있을 때 쓴 「혜장이 오다(惠藏至)」이다.

矯矯賢豪志	굳건하고 어질고 호탕한 사람
飄然時出林	때로는 표연히 산을 나선다네.
雪消厓徑滑	눈 녹아 비탈길은 미끄럽고
沙繞野堂深	모래 둘러싸여 들집이 움푹하네.

47) 暮悟法華是艮 卽知密顯無間 卽其爲藏公者云. 東籬逸士 過崇陽學堂 仍題.

48) 유흥준, 위의 책, pp. 183-184.

49) 夜旣靜. 余曰聞君雅善周易. 能無疑乎. 兒菴曰程氏之傳. 邵氏之說. 朱子之本義啓蒙. 皆無疑. 惟經文不可知耳. 余抽啓蒙數十章問其旨趣. 兒菴於啓蒙一部. 神融口慣. 一誦數十百言. 如流丸轉坂. 鴟夷吐水. 滔滔乎不可窮. 余大驚. 知其果宿儒也.

滿面山中樂
 安身歲暮心
 末流多鄙薄
 眞率見如今

얼굴에는 산중의 즐거움 가득하고
 세월 따라 변하는 몸 마음 안 쓴다네.
 말세 인심 대개가 비루하고 야박한데
 지금 이렇게 진실 솔직한 자도 있다네.⁵⁰⁾

위 시는 연파의 솔직함과 어질고 호탕한 성격을 잘 묘사하였다. 여기에는 세월이 순응하는 연파의 모습과 선승으로서의 즐거움을 관조하는 모습이 잘 나타나 있다.

이상의 내용에서 연파는 대둔사 화엄대강회의 맹주가 될 정도로 높은 학문의 경지에 도달하였으며, 대둔사의 12번째 강사로서 학문적으로 위대한 업적을 남겨 놓았음을 알 수 있다.

2. 연파의 시문집에 나타난 사상

연파의 사상을 논하기에는 관련 자료가 너무 빈약하다. 왜냐하면 그는 40세라는 이른 나이에 입적하였으며, 시문을 짓는 즉시 버리다시피 했기 때문이다. 다행히 남아있는 자료들을 보면 유불에 정통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렇더라도 여전히 연파의 사상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해설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연파는 27세에 정암즉원의 법통을 이었고, 30세에 두륜대회의 맹주가 되었다. 이런 사실은 관련 자료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그의 사상을 대략적으로 파악하는데 필요한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그의 『탐명』에 기술되어 있는 “외전은 『주역』과 『논어』를 몹시 좋아하였고, 내전은 『능엄경』과 『기신론』을 좋아하였다”는 사실을 통해 그의 학문적 관심과 사상적 특징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다. 『기신론』을 제외한 나머지 셋은 문손(門孫)인 원응 계정(圓應 戒定, 1856-1927)이 엮은 『아암집』에 「종명록」이란 제목으로 전해지고 있어 추적에 참고할 수 있다. 또 『조선불교통사』에 의하면, 그는 연담 유일(蓮潭 有一, 1720-1799)을 공경하였고, 그의 법을 배우며 따른 것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그는 여러 승려들의 법문에 만족하지 않았으나 오직 연담의 가르침에는 머리를 조아리고 명을 따랐다고 한다. 자하산인(다산)에 따르면 대둔사의 12대종사와 12대강사 중에 연담은 12대종사의 끝에 해당하고, 연파는 12대강사의 끝에 자리한다. 비록 시대적 순서로 보면 각기 12번째에 해당하나 그들은 12대종사와 12대강사의 꽃이었을 정도로 존숭(尊崇)을 받았던 인물들이었다. 따라서 연담을

50) 정약용, 『다산시문집』, 5권, 「惠藏至」.

대연(大蓮)이라 하였고, 연파는 소연(小蓮)이라고 불렀던 것이다. 연파를 동방의 제15조로 우뚝 세우고 있음은 이를 잘 대변해주고 있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그의 유작인 『연파잉고』와 『아암집』을 소개하고 그 가운데 몇 가지 자료를 근거로 그의 사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연파잉고』

『연파잉고』는 1818년 담정 김려(潭庭 金鑣, 1766-1821)의 『담정총서(潭庭叢書)』에 수록되어 전해지고 있다.⁵¹⁾ 이 문집이 알려지기 전에는 연파와 관련하여 『아암집』만을 연구하고 소개하는 연구자가 대부분이었다. 『담정총서』에는 모두 17책 34권에 47편의 글이 수록되어 있는데, 그 중 『연파잉고』는 『담정총서』 3책 6권에 실려 있다. 담정의 교유관계 전모(全貌)를 가장 명료하게 보여주는 것이 『담정총서』이다. 이는 김려가 『담정총서』에서 평소 그와 친밀한 교분을 가졌던 인물들의 시문을 수록하였기 때문이다. 『담정총서』에 나타나 있는 김려의 교유관계는 단순한 일개 문인들의 그것으로 취급해 버릴 수 없다. 그 이유는 김려와 그 주변 문인들이 조선 후기 문학사에서 아직 그 전모가 드러나지 않는 또 하나의 문인그룹의 존재를 의미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연암그룹이 보여 준 ‘북학’이란 테두리 안에서의 결속력과 같은 것을 기대하는 것은 아직 무리이나, 김려 주위에 일종의 문인그룹이 형성되어 있었음은 분명한 사실이며, 이들은 나름대로 활발한 창작활동을 전개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김려 주위의 문인들은 그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두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노론계 문인들로 김조순(金祖淳), 이우신(李友信), 권상신(權常愼) 등과 이들을 중심으로 하여 모였던 문인들이었다. 둘째는 김려가 성균관에서 유생시절을 보내면서 만난 문인들이었다. 『담정총서』에 실린 문인들은 김조순, 김우순(金愚淳), 김선신(金善臣), 권상신, 이우신, 이제노(李濟魯), 이노원(李魯元), 이안중(李安中), 이복현(李復鉉), 이제은(李濟殷), 정언학(鄭彦學), 조기복(趙基復), 혜장스님, 김려, 이옥 등 모두 16인이었다.⁵²⁾ 여기에 수록된 작가들은 담정과 직·간접적으로 교류가 있었던 친구·스승·선배·인척 등이 대부분인데 특이하게도 승려인 혜장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수록된 작품들은 한시가 주를 이룬 가운데 전(傳)·사(辭)·부(賦)·기(記)·설(說)·서(序)·발(跋)·

51) 朴峻遠, 「담정총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p. 13.

52) 강명관, 「담정 김려 연구」, 『一師大論文集』 제9집, 1984, pp. 333-334.

척독(尺牘)·제문(祭文) 등 여러 장르가 섞여 있었다. 그렇다면 담정은 어떻게 『연파잉고』를 알게 되었을까? 교류한 문인 중에 혜장이라는 이름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들은 서로 관계를 맺고 있었던 사이였음을 알 수 있다.

『연파잉고』 첫 작품은 갑자(1804)년 겨울에 지어진 것이고, 끝에서 두 번째 작품은 병인(1806)년에 주로 모은 것으로 보인다. 여규형(呂圭亨)은 『아암유집』의 서문에서 연파가 시작을 남기려하지 않아 짓는 족족 찢어버려 남은 작품이 거의 없었다고 하였는데 누군가 이 기간 동안 연파의 시를 수습했던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시집의 내용은 여규형이 “세간의 시인다운 시이지 출가 승려의 시와는 전혀 다르다.”고 말하고 있듯이 불가의 색채는 거의 찾아볼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연파잉고』의 시제는 표로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표1> 『연파잉고』 시제

『연파잉고』 시제		★표는 『아암집』과 중복, ※표는 다산과 관련되는 시를 나타냄
1) 甲子季冬…慧日禪師詩…恭和其韻 - 1804년 季冬 -5언 율시		29) 呈靈巖使君趙運永 -7언율시
2) 次韻呈擘翁 ※ -5언고시		30) 贈鄭斯文 -7언율시
3) 擘翁貽余詩求得佳茗適蹟上人先獻之只和其詩不副以茗 ※ -5언고시		31) 贈白荷長老 -7언율시
4) 過高聲寺并序 ※ -1805년 6월 -5언고시 擘翁要余至高聲寺翁躡牛頭嶺…….		32) 偶閱舊藁有贈樞大士詩今其人已還本矣悵然不樂第存錄之 -7언율시
5) 喜雨 -5언고시		33) 匪★ -7언율시
6) 遣興六首★ -5언고시		34) 白蓮寺次壁上韻★ -7언율시
7) 示蹟性慈弘兩比丘★ -5언고시		35) 贈加里浦節制金公宗煥 -7언율시
8) 次韻奉簡丁酉山學稼★ -5언고시		36) 贈文處士 -7언율시
9) 春日有懷擘翁 ※ -5언고시		37) 擘翁歸後索詩甚勤又寄一篇 -7언율시
10) 懷尹琴湖主謙. o尹公時在南原 -5언고시		38) 次韻奉簡靈巖使君趙公運永★ -7언율시
11) 再寄許裨將 -5언고시		39) 趙使君於去年秋遊影沈臺有詩要余和之追步其韻 -7언율시
12) 呈養閒齋 -5언고시		40) 奉簡黃逸人泰龍 -7언율시
13) 奉和擘翁坎六四韻 ※ -5언율시		41) 趙平壤鎮明任駕相見贈余以詩奉和其韻并小序★ -7언율시
14) 苦旱行次杜韻 -7언절구(6수)		其二 -7언율시
15) 叢林行★ -7언절구(4수)		42) 次韻奉簡李裨將幕府 -7언율시
16) 簡寄許裨將幕府 -7언절구(6수)		43) 次韻呈西山用擘翁前韻 -7언율시
17) 山夜 -5언율시		44) 效回文體遣興 -7언율시
18) 宿馬浦村 -5언율시		45) 偶至蓮社擘翁先至洵寄事也阻雨留連喜而有詩 ※ -7언율시
19) 金陵使君宋公應圭見顧★ -5언율시		46) 長春寺雜興呈李使君台升十二首★ -7언

	율시
20) 次韻呈韓翁★※ -5언율시 其二 -5언율시	47) 次韻惺大士見訪 -5언율시
21) 北庵次板上韻★ -5언율시	48) 同諸友棲洗心菴次壁上韻 -5언율시
22) 奉簡康津使君趙公弘鎮★ -7언율시	49) 奉簡韓翁三十韻★※ -5언고시
23) 盡日 -7언율시	50) 奉和韓翁坤卦六爻韻★※ -5언고시
24) 次韻鑑大士見顧 -7언율시	51) 杜鵑 -5언절구
25) 金承旨履度謫居靈巖數蒙問存間有賜環之喜爲之就別副之以詩★ -7언율시	52) 山居雜興二十首★ -7언절구
26) 尹正字圭白榮還故里詩以慶之 -7언율시	53) 紙枕 -7언절구
27) 次韻橋洞處士尹公 -7언율시 其二 -7언율시	54) 上院絕句 -7언절구
28) 贈李斯文秋成 -7언율시	55) 丙寅歲立春後三日乙丑十二月過寶恩房小雪初霽山夜清寂拈韻聯句以述其事※ -연구시(聯句詩)
	56) 雨後 -7언절구
	題蓮坡剩稿卷後(潭庭 金鑣)

시제는 모두 56제 94수에 달했다.⁵³⁾ 이는 『아암집』에 수록된 26제 72수보다 훨씬 더 많았다. 이중 17제 36수가 서로 중복되므로⁵⁴⁾ 39제 58수가 『연파잉고』를 통해 새로 확인되는 셈이다. 이를 『아암집』에 실린 시와 합치면 연파의 시는 모두 65제 130수가 된다. 이는 결코 적다고 말할 수 없는 분량이다.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연파잉고』는 다산과 관련되는 시제에 탁옹(韓翁)이라고 적고 있다. 2) 3) 9) 13) 20) 37) 45) 49) 50)은 시제에 탁옹이라고 적고 있고, 4)에는 서(序)에 나타나 있다. 특히 55)는 연파·학자·황상과 함께 지은 연구시(聯句詩)인데, 여기에도 탁옹으로 쓰고 있다. 탁옹은 다산의 호이지만, 『아암집』에는 동천(東泉) 또는 동천여사(東泉旅舍)로 적고 있다. 동천이나 동천여사는 다산이 강진에 유배 왔을 때 처음 4년 반을 지낸 동문 밖 술집의 뒷골방 곧 사의재(四宜齋)였다. 그러므로 탁옹, 동천, 동천여사는 모두 다산 정약용이 다산초당으로 옮기기 이전 연파가 다산을 그렇게 지칭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아암시문학연구」는 “연파가 교류한 일시의 저명한 인사로는 다산과 김담연, 동천 등을 꼽을 수 있다. 다산과 동천은 모두 해남 가까이 유배된 인물로서 『주역』을 집중적으로 논의한 흔적이 역력하다.”⁵⁵⁾고 기술하여 다산과 동천을 별개의 인물로 오해하기도 하였다. 김담연이 누구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중복되는 17제 36수의 시제가 조금씩 다르다는 점이다.

53) 박준원, 위의 논문, p. 35. (여기에는 93수라고 했다.)

54) 「연파잉고 해제」, 『다산학단문헌집성』 2, 동아시아학술원, 대동문화연구원, 2008, pp. 23-24.

55) 박완식, 「아암시문학연구」, 『어문연구』 25집, 1997, p. 121.

<표2> 『연파잉고』, 『아암집』의 17제 36수 비교

『연파잉고』	『아암집』	비 고
06) 遣興六首	03) 遣興六首	
07) 示蹟性慈弘兩比丘	26) 示蹟性慈弘兩比丘	
08) 次韻奉簡丁酉山學稼	13) 次韻奉簡西山	丁酉山學稼→西山
15) 叢林行	04) 叢林行	
19) 金陵使君宋公應圭見顧	08) 金陵知縣宋公應圭見顧	使君→知縣
20) 次韻呈籜翁 其二	11) 次韻奉呈東泉旅舍二首	呈籜翁→奉呈東泉旅舍)
21) 北庵次板上韻	25) 次韻題北菴	北庵次板上韻→次韻題北菴)
22) 奉簡康津使君趙公弘鎮	10) 奉簡康津知縣趙公弘鎮 得於舊藁中錄之	使君→知縣, 得於舊藁中錄之
25) 金承旨履度謫居靈巖數蒙問存問有賜環之喜爲之就別副之以詩	07) 金承旨履度謫居靈巖數蒙問存問有賜環之喜爲之就別副之以詩	
33) 匪	05) 匪	
34) 白蓮寺次壁上韻	15) 白蓮社次壁上韻	
38) 次韻奉簡靈巖使君趙公運永	09) 次韻奉簡靈巖郡守趙公運永	使君→郡守
41) 趙平壤鎮明枉駕相見贈余以詩奉和其韻并小序	06) 趙平壤鎮明枉駕相見贈余以詩奉和其韻昔余遊珍島雙溪寺得與趙公有此邂逅今已十餘年矣偶閱舊藁錄之	趙公의 詩 添加
46) 長春寺雜興呈李使君台升十二首	02) 長春洞雜詩十二首海南之頭輪山滿谷皆油茶號曰長春洞	長春寺→長春洞
49) 奉簡籜翁三十韻	12) 奉簡東泉旅舍三十韻	籜翁→東泉旅舍
50) 奉和籜翁坤卦六爻韻	16) 奉和東泉坤卦六爻韻	籜翁→東泉
52) 山居雜興二十首	01) 山居雜興二十首	

전체 17제 중 8제에 약간 차이가 있다. 여기에는 사군이 지현 또는 군수로 바뀐 것처럼 관직이 다르게 나타나 있다. 사군은 주·군의 최고 관원에 대한 존칭이고, 지현은 현의 장관, 곧 현령을 이르는 말이니 요즘으로 말하면 군수와 같은 말이다. 이는 두 시문집의 간행이 100년의 시차가 나는 현상에서 생겨난 차이일 뿐이다. 다시 말하면 『아암집』에서는 이 책을 편찬할 당시의 관직명을 그대로 쓴 것이다.

당시 해남과 강진은 조선불교의 중심지였으며, 여기서 이루어진 다산과 연파의 교류는 이후 유불간의 소통을 심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연파잉고』는 조선 후기 유불의 소통과 경향(京鄕)의 소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자료이다. 또 한 가지 지적할 점은 1805년 전후에 지어진 연파의 시를 추사가 입수하여 2년 후인 1808년에 김려와 함께 연파의 학문에 대하여 흥미진진하게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서울의 문인 지식인들 사이에서 연파가 주석하고 있는 대둔사가

관심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연과잉고』는 연과와 다산이 처음 만나서 『주역』을 토론하며 서로 친밀해져가는 과정이 상세하게 담겨있는 시집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다산과 『주역』을 논하던 곳을 회상하며 연과가 다산에게 보낸 「차운하여 탁옹에게 올리다(次韻呈瓘翁)」를 보면 이런 사실이 뚜렷하게 알 수 있다.

向來論易處	집대 『주역』 논하던 곳
赤手捕長蛇	맨손으로 큰 것을 잡았지.
直透周三聖	바로 주나라 삼성 ⁵⁶⁾ 에 통하고
能傳漢九家	능히 한나라 9가 ⁵⁷⁾ 를 전하고 있네.
縱談山雨急	기탄없는 말씀은 소낙비 내리는 듯하고
淸坐佛燈斜	맑은 자리에 불등이 비껴있었지.
別後成孤陋	작별 후 고루하게 변했거늘
何由剔眼花	무슨 수로 옛 모습 뵈겠는가. <其一> ⁵⁸⁾

위 시에 나타난 『주역』을 논하던 곳은 아마도 백련사나 고성사가 아닌가 한다. 여기에는 『주역』에 정통해 있는 다산을 만난 감회가 흠뻑 담겨 있다. 위 시는 『주역』을 잘 안다고 자신했던 연과가 『주역』의 단사(象辭)를 지은 주 문왕(周文王), 효사(爻辭)를 지은 주공(周公), 단전(象傳)과 상전(象傳)을 지은 공자(孔子)는 물론 『주역』의 대가 9인의 사상을 꿰고 있는 다산에 대한 놀라움을 숨김없이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연과는 다산을 맨손으로 큰 뱀을 잡았다고 한 것이다. 이를 통해 두 사람은 서로를 알아주고 아껴주었던 지우였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수(睡)」라는 7언 율시이다.

枳成淮北橘成南	탱자는 회북 땅에서 곱은 회남에서 난다는데
相反何曾似茜藍	꼭두서니와 쪽빛처럼 어찌 그리 상반되는가.

56) 삼성(三聖) : 『주역』의 단사(象辭) 를 지은 주 문왕(周文王), 효사(爻辭) 를 지은 주공(周公), 단전(象傳)·상전(象傳) 등을 지은 공자(孔子)를 합하여 일컫은 말이다.

57) 구가(九家) :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법가(法家)·도가(道家)·유가(儒家)·음양가(陰陽家)·명가(名家)·묵가(墨家)·종횡가(縱橫家)·잡가(雜家)·농가(農家)의 아홉 학파를 이르는 말이다. 또 『주역』을 주석했던 경방(京房), 마옹(馬融), 정현(鄭玄), 송충(宋衷), 우번(虞翻), 육적(陸績), 요신(姚信), 적자현(翟子玄), 순상(荀爽) 등 9인의 연구가를 말하기도 한다. 순상(荀爽)이 이들의 역설(易說)을 모아 『구가역(九家易)』 10권을 만들었다고 한다. 『與猶堂全書 1』 「附 雜纂集」 卷3, 小學珠串. 여기에서는 뒤의 것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58) 『다산학단문헌집성』 二, 「次韻呈瓘翁」.

大道傳來元不二
聖人間出強分三
偏執互爭非達士
兼持并解是奇男
一窓風月容吾睡
山鳥林間任自喃

대도의 전래는 원래 하나였는데
간혹 성인이 나타나 셋으로 나뉘 놓았네.
한쪽에 집착해서 다툼은 달사가 아니고
서로의 지론을 함께 이해해야 기특한 남아라네.
창으로 비취든 풍월에 스르르 잠이 들려는데
산새들은 숲 속에서 제 멋대로 지저귀네.⁵⁹⁾

여기에서 연파는 “대도의 전래는 원래 하나였는데, 간혹 성인이 나타나 셋으로 나뉘 놓았네.”라 하였다. 그는 유불선이 본래 한 뜻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그는 삼교(三敎)에 깊이 통달해 삼교일치론의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그가 연구하고 심취했던 사상들은 삼교의 전반에 걸쳐있다. 그러나 불교사에는 소승과 대승의 논쟁, 분종과 분파의 논쟁, 그리고 우열과 진위의 논쟁 등이 계속 이어졌다. 연파 당시에든 이러한 모습이 이어졌고, 그 편견과 아집에서 벗어나야 진정한 남아(男兒)라는 것이 연파의 지론이었다. 이는 자연의 세계가 걸림 없는 자연이듯이 한 편에 치우쳐 편견으로 얽매이지 말라는 뜻을 시로 표현한 것이다. 그는 숲 속에서 산새가 지저귀듯 자연과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승려의 무심한 경지에 있었으며, 창으로 스며드는 시원한 달빛에도 그만 잠이 들만큼 자연에 심취되어 있었다. 이를 통해 그의 수행자다운 참 모습을 엿볼 수 있다.

다만 그는 보살행을 제행(諸行)으로써 구현하지 못하는 자신의 부끄러운 현실을 자조하면서 이를 시로 표현하였다. 그의 시에는 한탄과 회한의 심정을 드러낸 부분들이 있었다. 또한 그는 만년에 과음으로 건강을 해쳐 조사(早死)하였다. 이는 그가 간화선에 치우쳐 증과(證果)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와 비탄이 그 원인의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는 경론을 통한 선지(禪旨)의 이해 없이 화두만 붙잡고 있는 선승들의 모습을 크게 비꼬기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그는 「총림행(叢林行)」이라는 시를 썼다.

叢林禪子數無央
頭白齒黃走諸方
口誦趙州狗子話
高懸竹枝倚繩床
.....
如今異流亂宗風
少林面壁雖奇絕
圭峯箋註那可闕

헤아릴 수 없는 총림의 납자들
머리 희고 이 누르도록 제방에 분주하네.
입으로는 조주의 구자 화두 외우며
선방에 기대어 죽비를 높이 세우네.
.....
지금은 이단이 종풍을 어지럽히네.
소림의 면벽은 더없이 뛰어나다고 하나
규봉(종필)의 주석을 어찌 버릴 수 있나

59) 『아암집』 권1, 「睡」.

自是眞如不二門
 莫向虛空棒打月⁶⁰⁾

이 모두 진여불이문이니
 달을 떠다고 허공을 향해 몽둥이 휘두르지 마라.

위 시의 내용 중 ‘지금은 이단이 종풍을 어지럽히네’ 에서 이단(異端)은 간화선일 것이다. 종풍은 곧 선종을 가리킨다. 본래 간화선은 북송 남송 교체기에 대해 종고(大慧宗杲, 1089-1163)로부터 나온 것으로 종래의 달마선에 크게 어긋나는 선법이였다. 연파는 한 때 간화선에 열심히 매진한 바 있었으나, 이 시를 지을 때에는 그 잘못을 뚜렷이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백수시는 이런 심정에서 나온 것이였다.

한편 규봉종밀(圭峰宗密, 780-841)은 교선일치를 강조하였고, 주요 저술들인 『선원제전집도서(禪源諸詮集都序)』, 『중화전심지선문사자승습도(中華傳心地禪門師資承襲圖)』, 『원각경대소초(圓覺經大疏鈔)』 등은 여러 선가의 교리를 자세히 비교 해설하여 후대 선가의 지남(指南)이 되었다. 달마선 또는 대승선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경론을 통해 심성을 깨닫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한다. 이를 견성성불(見性成佛)이라고 한다. 이러한 근간이 없이 화두만 붙잡고 있으면 수많은 병폐가 쌓이게 된다. 연파도 이러한 병폐를 겪은 듯하다. 그래서 화두만 깨치면 된다고 생각하면서 간화선에만 매몰되어 있었던 자신의 모습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이렇게 비꼬았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입장과 시대적 풍조는 연파 자신이 입산 이후로 30여 년간 직접 겪은 일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더 직설적이고 적나라하였는지도 모른다.

『연파인고』에는 다산과 관련한 시문, 특히 『주역』에 관한 것이나 당시 불교계의 수행 경향이나 태도를 짐작해 볼 수 있는 시문들이 자주 등장하였다. 또한 여기에는 후대에 간행된 『아암집』에 빠져 있었던 연파의 시문들이 여러 편 포함되어 있었음을 주목해야 한다.

2) 『아암집』

『아암집』은 연파의 입적 후 문도들이 엮은 연파의 시문집이다. 현재 전해지고 있는 『아암집』은 3권 1책으로 1920년 8월 신문관(新文館)에서 발간한 활자본이다. 권두에는 1919년에 여규형이 쓴 서문이 있으며, 권말에는 연파의 탑명과 정약용이 지은 「연파대사비명」, 「만아암」 그리고 찬자 미상의 「아암화상만사」 2수가 있고, 손제자 계정(戒定)

60) 『아암유집』 권1, 「叢林行」.

의 발문도 수록되어 있다.

권1에는 시, 권2에는 상량문·축문·비문·서(書), 권3에는 「중명록(鍾鳴錄)」·「능엄서언(楞嚴緒言)」등이 수록되어 있다. 권1의 시에는 7언 절구의 산거잡흥 20수, 장춘동잡시 12수, 율시 12수, 견흥 6수, 그리고 평양감사 조진명 등 관직에 있는 자들이나 유생들과 주고받은 시들이 포함되어 있다. 권2에는 「만일암중건상량문」·「진도쌍계사시왕전중수상량문」, 「대둔사비각다례축문」, 「화악대사비명」⁶¹⁾, 「현해전사비명」 및 기타 명사들과 교환한 편지 수십 편이 포함되어 있다.

권3에는 연파의 제자인 수룡이나 기어 등과 가졌던 『주역』의 괘변(卦變)·하도(河圖)·태극·양의(兩儀)·작괘법(作卦法) 등과 『논어』의 내용에 대한 문답이 수록되어 있었으며, 『능엄경』에 대한 문답 1편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 유집은 연파의 시문을 소사(小詞)·사육문(四六文)·사기(私記)·척독(尺牘)으로 나누고 있지만, 본 논문은 크게 운문(韻文)과 산문(散文)으로 나누고 다시 세분하여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표3> 연파의 시문 분류

운문	시 (19편 59수)	5언고시 -6편 11수	遣興 9수/ 奉簡東泉旅舍三十韻 1수/ 次韻奉簡西山 1수/ 奉簡黃庭李公台升 1수/ 奉和東泉坤卦六爻韻 1수/ 示隲性慈弘兩比丘 1수
		5언율시 -3편 4수	金陵知縣宋公應圭見顧 1수/ 次韻奉呈東泉旅舍 2수/ 次韻題北菴 1수
		7언절구 -2편 24수	山居雜興 20수/ 叢林行 4수
		7언율시 -8편 20수	長春洞雜詩 12수/ 睡 1수/ 趙平壤鎮明枉駕相見贈余以詩奉和其韻 2수/ 金承旨履度謫居靈巖數蒙問存問有賜環之喜爲之就別副之以詩/ 次韻奉簡靈巖郡守趙公運永/ 奉簡康津知縣趙公弘鎮 1수 / 白蓮社次壁上韻 1수/ 簡寄務安宰徐公俊輔 1수
	사	7편 22수	漁家傲 1수/ 菩薩蠻 1수/ 長相思 1수/ 如夢令 1수/ 水調歌頭 1수/ 浪淘沙 1수/ 和中峰樂隱詞 16수
	상량문	2편	頭輪山挽日菴重建上樑文/ 珍島雙溪寺十王殿重修上梁文
산문	다례축문	1편	大菴寺碑閣茶禮祝文
	탑명	2편	華嶽大師碑銘并序/ 懸解禪師塔銘并序
	척독	9편	答東泉/ 答尹公潤/ 答琴湖/ 答袖龍隲性/ 與騎魚慈弘/ 與白雲道人/ 上務安宰徐公俊輔/ 代大菴諸僧上務安宰徐公/ 上黃正言基天

61) 『아암집』에는 「화악대사비명」을 연파가 지은 것으로 보고 실어놓았으나 이는 잘못된 듯하다. 왜냐하면 『與猶堂全書』 제1집 제17권에 실린 「華嶽禪師碑銘」에 다산은 “沙門惠藏 過予于寶銀山院 爲予言其祖華嶽師 乞予文其石 予悲其人豪邁不遇 是故許之”라고 한 것에 알 수 있다.

	유·불 사상	2편	鍾鳴錄(周易, 論語)/ 楞嚴緒言
--	-----------	----	-------------------

운문에는 시가 19편 59수로 단연 많고, 그 다음은 사 7편 22수, 상량문 2편, 다례축문 1편이 포함되어 있다. 반면 산문은 탐명 2편, 척독 9편, 유불사상 2편으로 운문에 비해 분량이 적은 편이다. 연파의 시문은 그의 명성에 비하면 결코 많다고 할 수는 없다. 연파의 시문을 평한 「연파노사유집발」에 의하면, 연파는 근대에 ‘드물게[間]’ 태어난 인재로서 출가하고부터 경학에 마음을 쏟았으나 저술하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그는 학자들이 많이 찾아와 풍도를 듣고 서로 시문을 화답하며 아무렇게나 내뱉어도 모두 주옥(珠玉)이었으며, 문인들이 이를 수집하는 것을 막지 않았다. 그의 유고를 살펴보면, 그는 맑고 깊게 표현하였으며, 꾸미고 운색하는 것을 멀리하였고, 곤륜산의 옥 조각이 적을수록 더욱더 진귀한 것과 같다고 말할 만큼 좋은 글들을 남겼다.⁶²⁾ 하지만 그는 시를 마음에 두지 않고 짓는 족족 버렸다. 이로 인해 그의 시는 남아 있는 것이 적을 뿐이지 시작(詩作) 자체가 적은 것은 결코 아니었다. 그나마 이 정도라도 남아 전해지고 있는 것은 그 만큼 연파의 시를 아끼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은 해남 인근의 수령들과 수창한 시가 많았다는 것이다. 그만큼 승속에 이름이 널리 알려졌다는 것으로 보아도 무리는 없을 것이다.⁶³⁾

연파의 사상적 특징은 그가 인용했거나 언급했던 경론들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화엄경』, 『능엄경』, 『대승기신론』, 『능가경』, 『법화경』, 『원각경』 등 일반적으로 선가에서 많이 인용하고 의거하였던 경론들이 포함되었다. 하지만 그가 경론의 사상을 평론하거나 독자적으로 해석한 부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 사상의 특징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힘들다. 다만 그의 학문적 성과에서 지적할 수 있는 사항은 그가 교선에 매우 깊이 통달해 있었으며, 그 수증(修證)의 세계가 이미 최상승의 자리에 이르러 있었다는 사실이다. 화엄맹주로서 화엄대강회를 7회에 걸쳐 주관하고 강설한 이력에 의하면, 그는 화엄사상에 깊이 통달해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는 화엄의 일심법계(一心法界), 상입상즉(相入相卽), 사사무애(事事無碍), 중중무진(重重無盡)의 법계연기론(法界緣起論), 보살십지(菩薩十地)의 수증계위(修證階位), 선재동자의 구도행(求道行), 십회향위(十回向位)에 보이는 보살의 자리아타행(自利利他行), 그리고 자신의 모든 회

62) 한글대장경 『연담대사임하록 외』, 위의 책, 「연파노사유집발」, p. 586.

63) 『아암집』 「示蹟性慈弘兩比丘」에 “虛名滿一隅 如今出處妨” 등과 같이 연파 스스로 虛名이 많다고 고백하고 있음을 여러 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생을 자신과 중생의 해탈 성취로 달성하고자 하였다. 그는 이러한 사상과 이념을 자주 강설하면서 실현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의 시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이러한 가르침을 깊이 통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연파가 자신의 불교사상을 표현했던 글이 많지 않은 까닭에 그의 불교사상을 거론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하겠다. 다만 그가 『능엄경』의 뜻에 대해 제자들과 문답한 글이 『아암집』에 전해지고 있는데, 이를 통해 그의 능엄사상의 일단을 파악하는 것은 별 무리가 없다고 하겠다.

예로부터 ‘마음’을 잘 발명(發明)한 경전은 『능엄경』이라고 알려져 있었다. 이 경전은 전통 강원에서 『금강경』, 『원각경』, 『대승기신론』과 함께 사교과의 과목으로 채택되어 왔다. 원명은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이었다. 이 경전은 『대불정수능엄경』, 『대불정경』, 『수능엄경』, 『능엄경』이라고 불리기도 하였다. 한편 이 경전은 인도 나란다 도량에서만 비장할 뿐 타국에서의 유통을 금했던 것이라서 일명 『중인도나란다대도량경(中印度那蘭陀大道場經)』이라고 불리기도 하였다. 중국에서는 찬술된 위경(僞經)으로 간주되기도 했지만 소화엄경(小華嚴經)이라 불리면서 널리 독송되어 한국 불교사상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이 경전에 대한 주석서로는 고려 때 보환(普幻: 고종과 충열왕 때 활약)의 『능엄경신과(楞嚴經新科)』 2권과 『수능엄경환해산보기(首楞嚴經環解刪補記)』 2권, 연담유일의 『능엄경사기(楞嚴經私記)』 1권, 인악의침(仁岳義沾, 1746-1796)의 『능엄경사기(楞嚴經私記)』 1권 등이 있다.

『능엄경』은 “처음 마음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에 대해 제자 아난과 문답하는 내용으로부터 시작된다. 아난의 칠처(七處) 답변과 그에 대한 불타(佛陀)의 부정(不定)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마음은 처소가 없어 얻을 바 없는 것이라는 점이다. 이어서 지각(知覺)은 진실한 마음이 아님을 밝히면서 대상이 되지 않는 진실한 각(覺, 本覺, 普覺, 佛覺, 妙覺)을 표현하였다. 어쨌든 『능엄경』 앞부분에 대한 그의 세밀한 해석은 대단히 심오한 것이어서 그는 이 경전 해설의 최고봉으로 간주되었다.

연파의 『능엄경』 사상은 「능엄서언」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본래 18조였던 것이 10조는 일실(逸失)되고 현재는 8조만 전해지고 있다.⁶⁴⁾ 그 8조에는 난해한 경문(經文)이 제시되었고 그에 대한 해설이 있을 뿐이다. 그 일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경문 1)

마음이 몸 밖에 있음[在外]을 깨달았습니다. 마치 방 밖에 있는 등불 빛이 방 안을 비

64) 本十八條 十條逸

추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⁶⁵⁾

위 경문은 눈·코·귀·혀[眼鼻耳舌]가 바깥 사물에 응할 뿐 내심(內心)을 반조(反照)하지 못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는 심장·간장·비장·위장을 볼 수 없음은 안력(眼力)의 한계 때문이지 영명(靈明)하지 못해서 반조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또한 마음은 밖에 있다고 했지만 가슴이 아프고 배가 아픈 것을 남들은 모르지만 자기는 안다고 했다. 그는 등불은 방 바깥에 있으면 방 안의 동정(動靜)을 비출 수 없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그는 마음과 등불이 같지 않음을 밝히면서 중생을 깨우쳐 준 것은 아난존자의 방편설이라고 말했다.⁶⁶⁾

경문 2)

등(燈)은 모습[色]을 드러나게 할지언정 보는 것은 눈이지 등이 아니다. 눈[眼]은 모습을 볼 수 있게 하지만 보는 성품은 마음이지 눈이 아니다.⁶⁷⁾

위 경문은 등불과 눈으로 비추어보는 경계는 각각 한계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이에 대한 연파의 해설은 다음과 같다. 마음의 지각이 관찰하는 것은 끝이 없다. 그러나 어둠 속에서 단지 눈앞의 어둠만 본다면 캄캄하게 보일 뿐이지 보는 것이 없는 것은 아니다. 비유하면 구리거울처럼 붉은 것을 대하면 붉게 비추고 푸른 것을 대하면 푸르게 비추니, 푸르고 붉은 색이 다를 뿐이지 비춰지는 것은 똑같다. 또한 등불과 일월이 사물을 밝게 비추면 사람의 안력(眼力)은 그 모습을 보게 된다. 쓰임이 각기 다르므로 분별하여 볼 줄 알아야 한다.⁶⁸⁾

경문 3)

이미 눈에서 나왔으므로 다시 눈으로 들어가 마땅히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다.⁶⁹⁾

65) 『아암유집』 권3(『한국불교전서』 제10책), “悟知我心 實居身外 亦如燈光 居在室外 不能照室.”

元來의 經文은 實居身外와 亦如燈光 사이에 所以者何 譬如燈光 然於室中 是燈必能 先照室內 從其室門 後及庭際 一切衆生 不見身中 獨見身外.”가 더 있다.

66) 『아암유집』 권3, 위의 책, “眼鼻耳舌 以應外物 不能反內 其不能見心肝脾胃 爲此眼力 有所限域 不是靈明 不能照內 若云在外 心痛腹癢 他人不知 自己獨悟 燈在室外室中動靜 全未照察 心與燈光 煞有不同 尊者設喻以牖羣迷 權且立說.”

67) 『아암유집』 권3, 위의 책, “燈能顯色 如是見者 是眼非燈 眼能顯色 如是見性 是心非眼.”

68) 『아암유집』 권3, 위의 책, “燈眼所照 各有限域 心知所察 無有涯際 然彼暗中 但見前黑 所見者黑 不是無見 猶如銅鏡 遇紅照紅 遇青照青 青紅殊色 不是無照 又彼燈光 與夫日月 是能顯色 人之眼力 是能察色 所用各殊 該分別看.”

위 경문에 대한 해설은 등불의 빛과 별빛이 모두 눈을 통해서 나온 것이지 저 등불과 별에 실제로 빛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는 그 빛이 등불과 별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어찌 눈을 통해서 나와야만 볼 수 있다 하겠는가라고 반문하였다. 이는 제이월(실체가 아닌 허상)이 진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통해서 나온 것이며, 그러니 만약 어떤 사람이 그 제이월을 보지 못한다고 꾸짖는다면 이는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라는 것을 의미하였다. 이는 침은 입에서 나오지만 맛을 구별하지 못하고, 콧물은 코에서 나오지만 냄새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이치와 같은 개념이었다. 그는 이러한 것들이 방편(方便)으로 비유한 것이지 실증(實證)은 아니라고 말했다.⁷⁰⁾

이상의 내용은 연파가 세 경문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에 대한 예를 제시한 것에 불과하지만 그의 설명이 지극히 현실적이고 예를 들어 설명함으로써 이해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었음을 의미한다. 연파의 「능엄서언」 8조를 각 권별로 분류해 보면 아래 표와 같다.

69) 『아암유집』 권3, 위의 책, “既從目出 還從目入 (卽此花性 從目出故) 當合有見.” 經文에는 괄호 안의 두 구절이 더 있다.

70) 『아암유집』 권3, 위의 책, “燈芒星芒 皆從目出 非彼燈星 實有是芒 然此芒光 委屬燈星 豈以目出 便當有見 彼第二月 非是眞有 亦從目出 若有人等 責其無見 豈曰能慧 津從口出 不能辨味 涕從鼻出 不能辨臭 諸如是者 皆名權喻 非是實證.”

<표4> 연파의 「능엄서언」 8조

『능엄경』 七處徵心		『능엄서언』의 각조의 질문 내용	
권1	序分	見道分	① 悟知我心 實居身外 亦如燈光 居在室外 不能照室 ② 燈能顯色 如是見者 是眼非燈 眼能顯色 如是見性是心非眼 ③ 既從目出 還從目入 當合有見 ④ 爐中旃壇 此香若復然於一鉢 室羅筏城四十里內 同時聞氣 ⑤ 彼手集鏡 於日求火 此火爲從 鏡中而出 爲從艾出 爲於日來 ⑥ 鑿井求水 出土一尺 於中則有一尺虛空 ⑦ 風金相摩 故有火光 爲變化性 寶明生潤 火光上蒸 故有水輪 ⑧ 菩提心生 生滅心滅 此但生滅 滅生俱盡
	正宗分		
	在內		
	在外		
	潛根		
	藏暗		
	隨合		
	中間		
	無着		
	無着		
권2			
권3			
권4			
권5	修道分		
권6			
권7	證果分		
권8	結經分		
권9	助道分		
권10	流通分		

「능엄서언」은 『능엄경』의 핵심 사상인 ‘칠처정심(七處徵心)’을 근거로 기술되었다. 이는 단적으로 혜(慧)를 돌이켜서 정(定)으로 가는 길을 제시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곧 망심(妄心)을 과하기 위해 우선 그 소재(所在)를 아난의 입을 통해 찾아보게 하였다. 아난은 재내(在內) → 재외(在外) → 잠근(潛根) → 장암(藏暗) → 수합(隨合) → 중간(中間) → 무착(無着)에 망심이 있다고 대답했지만, 연과는 하나하나 비유를 들어 이것이 모두 잘못되었음을 밝혔다. 이 ‘칠처정심’의 비유는 결국 단(斷)·상(常)이라는 두 가지 견해에 국집(局執)된 분별망상이라는 것이다. 이는 전일(專一)하게 진여(眞如)를 깨닫기 위한 수행이 있어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연과는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각지의 지방관 내지 유생들과 시문을 통해 주로 서로의 유불관에 대한 입장을 주고받았다.⁷¹⁾ 그는 시문 전반에 걸친 자신의 사상을 상당히 밀도 있게 해설하였는데, 특히 그는 불교사상에 대해 선과 화엄의 융합사상, 화엄의 일심법계 평등사상, 화엄법계 원융사상, 양변(兩邊)에 치우침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불교사상을 불이(不二)의 세계관, 교선의 겸수(兼修) 강조, 교학을 버리고 화두 참구에 몰두하는 경향의 비판, 삼교회통, 돈오점수의 강조 등으로 다양하게 설명하였다. 그의 불교사상은 전체적으로 언급되고 있지만 그 해석에 다소 미진한 부분이 엿보이는 것은 자료의 한계로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상적 특징과 경향은 「화중봉낙은사(和中峯樂隱詞)」 16수 중 10수에 다음과 같이 나타나 있다.

漸作衰翁	점점 쇠한 늙은이 되었으나
依舊癡童	여전히 멍청한 어린애 같으니
佛祖意半夜蝦蟆	불조의 뜻은 한 밤중의 무지개로다.
清寒家計	욕심 버린 집안에
淡泊宗風	담박한 종풍이니
看影卽眞凡卽佛色卽空	그림자가 실체이며, 범부가 부처이고, 색이 공임을 알라 ⁷²⁾

위 시에서 ‘불조의 뜻은 한 밤중의 무지개로다’ 라는 부분은 부처의 자리가 어디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당념당처(當念 當處)에 그대로 본래 갖추어져 있으며, 그 자리

71) 이에 관해서는 권동순의 연구에 잘 나타나 있다. 권동순, 「兒庵 惠藏에 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2009.

72) 『아암유집』 권1, 위의 책, p. 690.

에 무시(無始) 이래로 위치해 있다는 것이다. 이는 불조의 여러 법문에서 언설로 개시(開示)된 많은 법상은 이루어지거나 얻고자 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 법상들은 한 밤중의 무지개로 해석되었다. 이를 잡으려하거나 이루려 함은 무지개의 찬란한 모습에 취하여 잡으려 하는 것과 같은 의미였다. 그래서 그것이 무지개와 같이 잡을 수 없는 것임을 알아야 하고, 알게 되면 구하거나 향하려 함을 벗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바로 그 본심 진여의 자리가 된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림자를 부정하려 할 것도 없이 그림자가 그림자임을 알면 그 그림자로부터 해탈되어 그 자리가 해탈의 자리가 된다는 의미이다. 그림자와 진여의 자리는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림자가 실체이며, 범부가 부처다’고 한 것이다. 범부나 부처나 언설로 드러낸 법상이니 모두 현재의 그대로가 그림자이고, 그림자이기에 범부 부처가 평등한 것이다. 밖으로 드러난 것은 객체가 되고 대상이 되기 때문에 본연의 자리가 아니다. 연파는 그러한 본래의 자리를 이미 어느 정도 증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교선의 공부가 최상승의 자리에 이르렀음을 의미한다.

강진의 유생으로 보이는 윤윤(尹潤)의 시에 “젊은 시절 도연명과 사령운의 시를 읽을 때는 글을 지음에 모두 순수하고 담박하였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관각의 응교들의 시를 읽어보기를 권하기에 이로부터 돌연히 옛날의 흥취를 잃어버렸다.”⁷³⁾고 적혀있는 것에 대해, 연파는 “새 의원은 비록 젖을 끊어라 했지만 옛 의원은 도리어 젖을 쓰라고 했다.”⁷⁴⁾고 답하였다. 권동순은 이를 “아암은 순수하고 담박한 시를 추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⁷⁵⁾ 그러나 이 구절은 『대반열반경』(40권본) 권2 「수명품(壽命品)」에 나오는 비유였다. 이는 양의(良醫)가 처음에는 우유가 독이 되니 써서는 안 된다 하여 큰 효험을 보았고 왕이 병들었을 때는 우유를 쓰게 해서 치료하였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부처님이 중생의 병을 치유함에 있어 때와 사람의 근기에 따라 법을 달리 쓴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관각의 응교들’이란 지방의 하급 서리들로서 그들의 시는 조잡하였지만 나름대로 기교를 부리지 않는 천진하고 순수한 정감의 세계가 그대로 드러나 있다. 즉 그들의 조잡한 시에도 진미가 있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진리는 본래 어디에나 평등하게 있는 것이고, 때와 장소에 따라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펼쳐지고 있을 뿐이다. 그 뜻에 통달하면 시의 진미, 일미법계의 뜻을 어디에서든 맛볼 수 있다는 것이 연파의 시에 나타난 불교사상이라고 하겠다.

73) 권동순, 위의 논문, p. 45.

74) ‘古人云 新醫雖斷乳 舊醫還用乳’.

75) 권동순, 위의 논문, p.45.

「산거잡흥」 20수 중 13수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

定中見解最高圓	선정의 견해 가장 높고 원만하니
硬把乾坤比一拳	건곤을 움켜잡고 한 주먹에다 견주네.
七冊金文開次第	일곱 권의 법화경 차례로 펴보니
這般心事淨如蓮	이 순간에 마음자리 연꽃같이 맑아지네. ⁷⁶⁾

위 시에서 ‘선정에서 나오는 견해가 가장 높고 원만하다.’는 의미는 정(定)이 갖추어진 가운데 올바르게 원만한 혜(慧)도 나온다는 것으로 정혜균등(定慧均等) 또는 일치의 뜻을 내포하고 있다. ‘건곤을 움켜잡고 한 주먹에다 견준다.’라 함은 선정이 이루어진 가운데 득력이 된다는 뜻을 담고 있다. 또한 『법화경』을 펴보니 마음이 연꽃같이 맑아진다.’는 뜻은 선정이 이루어졌지만 경전을 펼쳐봄으로써 그 성취가 진정으로 더 승화된다는 의미와 선과 교가 함께 겸수되어야 선미(禪味)의 시를 맞볼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차운제북암(次韻題北菴)」에는 다음과 같이 언급되고 있다.

閱盡長春洞	장춘동을 두루 살펴보니
茲其第一庵	이 곳이 첫째가는 암자일세.
谷虛能豁眼	골짜기 텅 비어 눈앞이 광활하고
泉淨足消痰	샘이 맑아 족히 담을 씻을만하네
遯世愁無四	세상을 피하였으니 네 가지 근심 없고
專天樂有三	오로지 천성대로 하니 세 가지 즐거움 있네
說經猶外事	경을 설하는 것도 오히려 외사에 속하고
禪悅我當甘	선정의 기쁨을 내 달게 여기네. ⁷⁷⁾

대둔사가 위치한 장춘동은 숲과 계곡이 깊게 어울려진 장소이다. 연파는 이곳을 도량으로 삼아 천성대로 생활하며 선정의 희열 속에 살았다. 경론을 강설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은 바깥 세계의 일이었다. 그는 자심(自心)에서 꽃피듯 일어나는 선정악(禪定樂)의 세계를 진정한 자신의 세계로 간주하였다.

선정을 이룬 선사로서 연파의 시에는 선미 가득한 향기가 넘치고 있다. 이러한 자리에서는 굳이 차를 준비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당시의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손님이 찾아오면 다선일미의 세계가 다담을 통해 전달되고 있는 것이다. 「답금호(答琴湖)」에는

76) 『아암유집』 권1, 위의 책, p. 690.

77) 『아암유집』, 위의 책, p. 690.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 ‘고요한 밤 차가운 물에서는 고기가 물지 않으니 부질없이 배에 가득 밝은 달만 싣고 돌아오네.’ 라는 시구는 바로 선종의 깨친 경계를 말한 것입니다. 평범한 꽃과 새가 모두 진리의 소식을 전해주는 선어이니 진실로 죽히 보배로 여길 만합니다. ……지금 나의 행적은 일찍이 발길이 조계의 뜰을 밟아보지는 못했지만 시험 삼아 참구하면 어떤 것이 조계의 시구입니까 라고 한다면 육조께서는 ‘창공의 나는 한 마리 기러기рода.’ 라고 하실 것입니다.’ ”78)

위 내용은 자연에 심취하고 불평하지 않으며 자연과 함께 선미의 세계를 살아가는 연파의 삶을 표현하고 있다. 냇물은 내가 흘러간다고 함이 없이 흘러간다. 꽃이 그렇게 피고, 새가 그렇게 날아감도 그리 한다고 함이 없이 그러할 뿐이다. 그 행을 대상으로 인식하여 무엇을 한다고 함이 없다. 고기 잡지 못하고 빈 배로 돌아오되 그 일을 대상으로 삼아 불평함이 없다. 모든 행이나 일이 이미 대상의 경계가 아니다. 그러하니 무엇을 대상으로 시비하고 불평하고 좋아할 것인가. 이미 취하고 버림을 떠나 있다. 이것이 선사들이 추구하는 선미의 세계이다. 연파도 그러한 선미의 세계를 표현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연파는 선승이었지만 외전인 『논어』와 『주역』에 관심을 두었다. 이는 그의 시나 글을 통해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다산도 연파가 유교의 경전을 지나치게 좋아하였으며, 그 해박함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린바 있다. 연파는 『주역』을 상수역으로 이해하고 있으면서도 윤리의식을 배제하지 않았으며, 진리는 형상화할 수 없다는 불교적 관점에서 『주역』을 바라보았다. 그의 『주역』에 대한 이해는 ‘묵명유행(墨名儒行)’이라는 평가에 일정 정도 타당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그의 『논어』에 대한 이해나 남겨진 시문에는 진정 승려다운 면모가 담겨 있으며, ‘묵명유행’이라는 평가는 다산의 눈으로 본 지극히 유가적 입장에서 내려진 것임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종명록(鍾鳴錄)」에서는 연파가 두 제자인 수룡, 기어와 문답식으로 『논어』와 『주역』을 풀어나가고 있는 모습이 소개되고 있다. 『논어』에 대한 질의응답은 연파의 제자 수룡과 기어가 연파에게 묻고 연파가 답하는 형식이었다. 총 8개의 질문 중에서 3번은 색성이 물었고, 5번은 기어가 물었다. 외전에도 밝았던 연파의 정치(精緻)하고 폭넓은 식견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통해 짐작해 볼 수 있다.

78) 「답금호」, 夜靜水寒魚不食 滿船空載月明歸 是禪宗悟境來喻 尋常花鳥皆禪語 洵足珍也, ……我此今行實未嘗足踏曹谿 試爲小參曰如何是曹谿詩句 師曰天空一鴈飛 『아암유집』 권2.

① 색성의 질문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學而時習]’이라는 구절의 주에 ‘습(習)이란 새가 자주 날갯짓을 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저는 이 이치를 잘 모르겠습니다.⁷⁹⁾

위 내용은 잘논어 제1 「학이(學而)」의 1장에 대한 질문이다. 색성은 ‘학이시습’에서 집주(集註)에 ‘습은 조수비야(鳥數飛也)’라고 했는데⁸⁰⁾ 그 이치를 모르겠다고 질문하고 있다.

이에 연파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습(習)이라는 글자는 우(羽)와 백(白)이 합성된 것이다. 새가 자주 날개 짓을 한다는 것이 습이라는 글자의 본래 뜻이다. 어린 새가 나는 것을 배울 때 자주자주 날갯짓을 익히는 것처럼 사람이 도를 배울 때에도 그렇게 해야 한다. ‘자주 되풀이 한다’는 것은 그치지 않는다는 뜻이다. 만약 그것을 너무 중요하게 여기면 본래의 뜻과 달라진다.

내 생각은 이렇다. 새벽이 되면 안부를 살피고 저녁이 되면 잠자리를 펴 드리는[晨省昏定] 도리를 배웠으면 곧바로 실제로 그렇게 헤드려야 한다. 발 모양은 신중히 하고[足容重] 손모양은 공손히[手容恭] 하는 도리를 배웠으면 곧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 ‘배우고 때때로 익히는 것’이다. 또 투호의 예를 배웠으면 곧바로 투호의 예를 익히고, 향사의 예를 배웠으면 그날부터 향사의 예를 익혀야 한다. 제례나 상례도 마찬가지다.

예전에 대학에서 예와 악을 익힌다는 것이 모두 이런 이치이다. 그런데 요즘 선비들은 근기가 낮으면 배우지도 않고, 근기가 훌륭하면 배우긴 하되 익히지 않는다. 배우고도 익히지 않는 것은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이니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우리 불가에서도 청정무위를 배우고도 강학이 끝나면 신발을 삼거나 국수를 만들면서 성을 내거나 이득이나 다투니 이런 것은 배우고도 익히지 않는 것이다.⁸¹⁾

연파는 『논어』의 명문(名文)을 매우 깊이 있고 폭 넓게 설명하면서 제자에게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의 섬세하고 다정다감한 성품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79) 『아암유집』 권3, 위의 책, “性問 學而時習 註云習 鳥數飛也 我茲未悟.”

80) 成百曉 譯註, 『논어집주』 p.17, “學之爲言效也 人性皆善而各有先後 後覺者必效先覺之所爲 乃可以明善而復其初也 習鳥數飛也 學之不已 如鳥數飛也.”

81) 『아암유집』 권3, 위의 책, “答習之爲字 從羽從白 鳥數飛者 習字之本義也 鳥雛之學飛也 數數習飛吾人之學道也 亦當如此 數者 不輟之意 若看得太重 反與本意差殊也 余謂學晨省昏定之道 便自是日 晨省昏定 學足容重手容恭之道 便自是日足容重 手容恭 這便是學而時習 又如學投壺之禮 便於是日 習投壺之禮 學鄉射之禮 便於是日 習鄉射之禮 學祭禮 習祭禮 學喪禮 習喪禮 這便是學而時習 古者太學 習禮習樂 皆此義也 今之儒者 下焉者不學 上焉者學而不習 學而不習者 知而不行也亦何益之有 吾家人 學清淨無爲 講既輟 摠履壓麪 嘖志以爭利 是亦學而不習者.”

대목이다. 그의 해설에는 고전의 투호(投壺), 향사(鄉射)의 예와 악, 청정무위(淸淨無爲)의 도가 함께 어울려 현묘(玄妙)하고, 문아(文雅)한 맛과 향기가 간직되어 있다. 또한 그는 박학다식한 모습을 유감없이 보여주기도 하였다.

② 기어의 질문

『시경』 첫머리의 「관저(關雎)」라는 시는 ‘즐겁되 음란(淫亂)하지 않고, 슬프되 상심(傷心)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어떤 것이 슬퍼하되 상심하지 않는 것입니까?⁸²⁾

위 내용은 「팔일(八佾)」 20장에 나오는 ‘악이불음 애이불상(樂而不淫 哀而不傷)’에 대한 질문이다. 연파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그 전에 내가 어떤 선비의 집에서 『춘추전』을 보았는데 ‘악공(樂工)이 「녹명(鹿鳴)」 세 편을 노래로 읊었다’는 말이 있었다. 이에 내가 「관저(關雎)」[예쁜 처녀를 짝사랑하는 노래]라는 시에서 ‘즐겁되 음란하지 않고, 슬프되 상심하지 않는다.’는 뜻을 알았다. 어째서 그런가? 「녹명」의 ‘三’이란 「녹명」[저기서 우는 것은]·「사모(四牡)」[네 마리 수놈 말]·「황황자화(皇皇者華)」[아름다운 꽃]를 말한다. 「사모」와 「황황자화」를 모두 「녹명」이라고 하는데 「갈담(葛覃)」[침낭]과 「권이(卷耳)」[도꼬마리]를 「관저」라고 하지 못할 것이 없다. ‘슬프되 상심하지 않는다’는 것은 「권이」를 말한 것이다. 그 시에 “내 쇠뿔 잔에 술 따라 / 이내 상심(傷心) 잊어 볼까[我姑酌彼兕觥 維以不永傷斯.]”라 하였으니, 이것이 슬프되 상심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겠는가. 연주래(延州來) 계자(季子)가 「갈담」 시를 ‘삼가하여 원망하지 않는다[謹以不怨]’라고 논하였으니, 이 역시 “악이불음 애이불상(樂而不淫 哀而不傷)’이라는 두 마디를 함께 살피면서 전송해 온 것이다.⁸³⁾

연파는 『시경』을 해석하면서 『춘추전』의 기사를 인용하며 설명하였다. 『춘추삼전』은 사서인 까닭에 시를 좋아하는 사람이 탐독하는 책은 아니었다. 하지만 승려인 연파는 『춘추전』의 어려운 구절까지 소상히 뜻을 파악하여 『시경』 해설에 원용(援用)하였다. 「관저(關雎)」는 『시경』 권1 「국풍(國風)」, 「주남(周南)」 11편의 시 가운데 맨 처음 등장하는 시로서 새 울음의 의성어를 기술한 것이다. 여기에서 그는 ‘악공(樂工)이 「녹명(鹿鳴)」 세 편을 노래로 읊었다’는 내용을 기술했는데, 이는 「관저」의 ‘예쁜 처녀를 짝

82) 『아암유집』 권3, 위의 책, “弘問 關雎 樂而不淫 哀而不傷 如何是哀而不傷.”

83) 『아암유집』 권3, 위의 책, “答余曾於一士人家 得見春秋傳 有云工歌鹿鳴之三 余於是知關雎有哀而不傷之義也 何以故 所謂鹿鳴之三即鹿鳴四牡皇 皇者 華也 四牡皇華皆云鹿鳴 則葛覃卷耳 豈非關雎乎哀而不傷者 卷耳之謂也 其詩曰 我姑酌彼兕觥 維以不永傷斯 豈非哀而不傷乎 延州來季子 論葛覃之詩曰謹以不怨 亦可與哀樂二語 並觀而專誦之.”

사랑하는 노래' 중 '즐겁되 음란하지 않고, 슬프되 상심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표현한 것이었다. 그의 문(文)에 대한 심취는 정감의 세계에도 널리 미쳐 무불통(無不通)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평가될 정도였다.

『논어』에 대한 연파의 해설과 그의 제자들의 질문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5> 『논어』에 대한 질문개요

질문	질문자	질문내용	『논어』 해당 편명
①-1	수룡색성	‘學而時習’의 ‘習’에 대한 註의 보충 설명	學而 1章
①-2	々	유자가 효제를 말하면서 왜 윗사람을 犯하고 亂을 일으킨다고 했는가?	學而 2章
①-3	々	信[約束]과 義, 恭과 禮에 관한 有子의 말에 대한 의문	學而 13章
②-1	기어자홍	孔子가 每事를 大廟에 가서 묻은 것은 잘 모르기 때문이 아닌가?	八佾 15章
②-2	々	子貢이 告朔祭에 犧牲羊을 없애자고 한 것에 대한 慈弘의 생각	八佾 17章
②-3	々	『詩經』 「關雎」의 詩를 ‘樂而不淫 哀而不傷’이라고 評한 이유	八佾 20章
②-4	々	君子的 貧賤에 대한 질문	里仁 5章
②-5	々	‘君子는 義에 밝고, 小人은 利에 밝다[子喻於義 小人喻於利]’는 말이 무슨 뜻인가?	里仁 16章
* 『論語』 20篇名			
學而·爲政·八佾·理仁·公冶長·雍也·述而·泰伯·子罕·鄉黨·先進·顏淵·子路·憲問·衛靈公·季氏·陽貨·微子·子張·堯曰			

이 표에서 연파는 『논어』를 유학의 도리를 내세우기 보다는 인간윤리의 보편성으로 바라보며 불교적 관점으로 경구를 해석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결국 유교와 불교의 궁극적 목표는 의(義)의 실현에 있으며 본질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⁸⁴⁾

『주역』에 대한 질의응답은 수룡과 기어가 묻고 연파가 답하는 형식이었다. 모두 8항목의 질의응답이 있었는데, 그 중 수룡이 3번, 기어가 5번을 물었다. 『주역』에 대한 질문개요의 표를 살펴보면 그 질문의 범위가 매우 넓고 다양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앞부분 문답 한편만 소개하고자 한다.

84) 권동순(圓法), 「아암 해장에 대한 연구」, 위의 논문, p. 92.

① 색성의 질문

①-1 “주자의 『괘변도(卦變圖)』를 보면 복(復)·사(師)·겸(謙)·예(豫)·비(比)·박괘(剝卦)는 1양 5음의 괘라 하고, 구(姤)·동인(同人)·리(履)·소축(小畜)·대유(大有)·괘괘(夬卦)는 1음 5양의 괘라 하였으며, 2양 4음의 괘와 2음 4양의 괘는 모두 음양을 함께 열거하고 있는데 방장께서는 ‘1양 2양과 1음 2음의 괘는 있고, 5양 4양과 5음 4음의 이름은 없다’고 하셨으니 이 또한 한 쪽에 치우쳐 공정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⁸⁵⁾ 하는 질문이다.

이 질문에 대해 연파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천지의 이치는 언제나 적은 것이 주가 되고 많은 것이 부림을 당하는 법이다. 배에 비유하면 노를 짓는 사람이 다섯이라 해도 키를 잡는 한 사람이 주가 된다. 밭갈이 하는 식구는 여럿일지라도 그 집의 가장이 주가 된다. 마찬가지로 마을에는 이장이, 고을에는 현령이, 도에는 도백이, 나라에는 임금인 한 사람인 것은 모두 같은 이치이다. 괘를 다루는 사람들이 적은 것으로써 주를 삼는 것은 법이 그렇기 때문이다.”⁸⁶⁾

연파의 『주역』 해석은 현실의 사회 모습, 즉 인문(人文)의 형상 내지 현상에서 천문(天文)의 운세를 풀이하는 형태였다. 또 그 반대로 해석될 수도 있었다. 『주역』은 천문과 인문이 맞물려 돌아가는 운세에 맞추어 조화롭게 처신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사회, 정치, 제도 등 모든 인문의 모습은 천의 운세를 살펴 정하고 바꾸어야 한다. 연파는 『주역』의 괘를 사회 현상을 통해 해설하였다. 이는 그가 사회 현상에서 역의 원리를 꿰뚫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연파는 자신의 『논어』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제자들에게 친절하고 자세하게 논어에 대한 가르침을 주었으며, 유학의 도리를 내세우기 보다는 인간윤리의 보편성으로 사물을 판단하였고, 불교적 관점으로 경구를 해석하였다. 그는 유교와 불교의 궁극적 목표가 의의 실현에 있으며 본질에서는 두 종교의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연파는 현실의 사회 모습, 즉 인문의 형상 또는 현상에서 천문의 운세를 풀이하는 형태로 『주역』을 해석하였다.

85) 『아암유집』 권3, 위의 책, “袖龍性問 嘗見卦變圖 復師謙豫比剝 謂之一陽五陰之卦 姤同人履小畜大有夬 謂之一陰五陽之卦 至於二陽四陰之卦 二陰四陽之卦 皆並舉陰陽 今丈室談 易有一陽二陽一陰二陰之卦 無五陽四陽五陰四陰之名 無亦偏畸而不公歟”

86) 『아암유집』 권3, 위의 책, “答天地定理 每少者爲主 多者爲役 一葉之舟 樵者五人 其艚工惟一 則爲之主也 環堵之室 耕者八口 其家長惟一 則爲之主也 里有一正 縣有一令 道有一伯 國有一君 皆此理也 卦家之以少爲主 其法宜然”

3) 백수시

연파의 백수시(柏樹詩)는 단순한 선시가 아니다. 이 시는 연파의 문명(文名)을 중원 땅에 알리고 조선 사대부들의 호기심을 불러 일으켰던 바로 그 시이다. 왜냐하면 이 시는 선승으로서 연파가 선(禪) 그 자체에 회의를 품게 된 사연이 담겨 있는 시였고, 하나의 시편이지만 대단한 가치를 인정받은 수작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백수시는 연파를 연파이게 한 시요, 연파의 불교사상을 대변하는 시라고 말할 수 있다.

『연파잉고』와 『아암집』에 함께 수록된 「장춘동잡시 12수」 중 끝 수가 바로 이 백수시이다. 여기에서는 이 백수시를 짓기까지 선승으로 활동했던 연파의 불교관을 그의 시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장춘동잡시 12수」 중 첫 번째 시에는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頭輪翠色鬱穹窿
九曲橋連五百弓
綠樹濃妍深客逕
白雲堆疊遶禪宮
六時鍾磬停幽谷
半夜香燈映碧空
彈指倘令禰閣啓
卽看彌勤許同風

두륜산 푸른 숲 하늘에 뻗뻗한데
아홉 구비 다리는 5백 걸음마다 이어 왔네.
푸른 나무는 무성하여 오솔길을 깊게 하고
흰 구름은 겹겹이 선원을 감싸네.
육시의 종소리는 깊은 계곡에 머물렀고
깊은 밤 향과 등불 밤하늘에 밝구나.
만약 탄지간에 누각 문을 열 수만 있다면
곧바로 미륵보살 뵈옵고 인가 받으리.⁸⁷⁾

7언 율시로 된 이 시는 1, 2구 수련(首聯)에서 대둔사가 위치한 두륜산을 하늘에서 조망하듯 그려내면서 시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어서 이 시는 3, 4구의 함련(頡聯)에서 수련의 시상을 더욱 조밀하게 응축하여 5, 6구의 경련(頸聯)에서 비로소 선원(禪院)의 내밀한 곳까지 파고들었다. 7, 8구의 미련(尾聯)에서는 시 전체를 총괄하여 선원에서의 수행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드러내고 보이고 있다. 즉, 여기에서는 『화엄경(華嚴經)』 「입법계품(入法界品)」에서 엿볼 수 있는 불교수행의 모범적인 구도자 선재동자의 구법행으로 마무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문수보살(文殊菩薩)의 안내로 53명의 선지식(善知識)을 두루 만나고 마지막으로 미륵보살이 손가락 한번 튕기는 사이에 그들이 증명해준 삼매조차 몽땅 잊어버리고 공(空)의 경지 곧 법계(法界)에 들었다는 것을 의

87) 한글대장경 『연담대사임하록 외』, 동국역경원, 서울, p. 496.

미한다. 그래서 연과는 다시 한 번 부연해서 말했다. “선가의 정침은 아공을 깨치는데 있다고(禪家頂針在我空).⁸⁸⁾ 그렇다면 과연 수행자들은 바른 수행에 매진하고 있는 것일까. 그는 지금의 수행자들이 이단이 되어 종풍을 어지럽히는 것(如今異流亂宗風)을 밤 무지개나 여름의 눈에 비유하면서 바른 수행을 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이를 통해 그의 불교에 대한 입장과 생각이 혼란을 겪고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과는 자신의 수행처인 대둔사이 아직도 옛 선풍을 드높이고 있는 곳이었음에 대해 자부심을 표하였다. 「장춘동잡시 12수」 중 다섯 번째인 아래의 시에는 다음과 같이 묘사되어 있다.

昆盧畫閣最稱雄
 壯麗居然冠奚東
 金色身躡諸品靜
 玉毫光裏萬綠空
 參差露柱臨回磴
 多少花宮間碧叢
 湖外招提渾不振
 茲山猶帶古禪風

비로불 모신 법당 웅장하기 그지없어
 장엄하고 화려함이 우리나라 으뜸이라.
 금불상 모신 곁에 모든 게 고요하고
 옥호광채 쏟아진 곳 모든 인연 공일레라.
 크고 작은 노주들은 회등 앞에 서 있고
 몇 채 안 되는 법당은 숲 사이에 널려 있다..
 바닷가 사찰들이 원래 부진한데
 여태껏 조사 선풍 간직하고 있다.⁸⁹⁾

위 시의 1, 2구와 3, 4구는 대둔사가 해동(海東)에서 으뜸인 비로자나불을 모신 전각을 가지고 있음을 찬탄하였으며, 7, 8구는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바닷가에 위치한 절들은 원래 사세가 부진하기 마련인데도 연과가 살고 있었던 대둔사는 여태껏 옛 선풍을 간직하고 있음을 자랑하고 있었다. 더욱이 그는 대둔사에 육신보살을 모신 암자가 있어 격외의 선풍을 실컷 참구할 수 있다는 말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면서도 부도만 남아 있을 뿐 선사의 풍광을 찾을 수 없는 아쉬움과 그나마 그런 선사가 나타나지 않음을 아쉬워하기도 하였다. 이와 관련 하여 「장춘동잡시 12수」 중 열한 번째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

肉身菩薩有遺庵
 格外禪風儘飽參
 澹月猶懸新影像
 疎燈自照古經函
 空傳碧骨藏靈塔

육신보살이 남긴 암자 있으니
 격외선풍 모두 남김없이 참구했네.
 밝은 달 새 영정에 매달려 있는 듯하고
 희미한 등불은 낡은 책장 비쳐주네..
 공연히 사리를 전하여 부도에 감추니

88) 『연담대사임하록 외』, 위의 책, p. 508.

89) 박완식, 위의 책, p. 44.

無復昭光繞佛龕
大手名曹今已遠
混然一味屬前三⁹⁰⁾

다시는 고승의 밝은 지혜 불전에 서리지 않네.
거장과 명인들 멀리 갔으니
도리어 분별 여원 일미를 전삼에 부촉이네.⁹¹⁾

이런 이유 때문에 연파는 대부분의 수행자들이 경전(經典)을 도외시 하고 깨달음을 얻고자 하였으나 그게 마음 같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수행자들이 공연히 힘만 쏟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였다. 더욱이 그는 대부분의 수행자들이 돈오(頓悟)하겠다고 말하면서 줄고만 있는 현실을 총림(叢林)의 현실이라고 비판하였다. 앞에서 살펴보았던 「총림행」의 두 번째 시에서 연파가 현실을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

三藏經文盡拋棄
不識玄津空颯颯
嚼蠟如蔗希頓悟
十箇五雙只坐睡⁹²⁾

삼장 경문은 모두 던져 버리고
깨달음의 길 알지 못해 공연히 힘만 쓰네.
밀랍을 사탕수수 씹 듯하며 돈오를 바라지만
열에 다섯은 다만 즐기만 하네.

또한 연파는 수행자들의 대부분이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큰 스님을 찾아가 불법을 구하며 생의 누추함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현실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한 내용은 아래의 시에 묘사되어 있다.

每願投高士
終期免陋禪
古人今寂矣
斯道竟淒然⁹³⁾

승려라면 모두가 큰 스님 찾아서
깨달음 얻어 한생의 누추함을 벗어나고파 한다.
하지만 그 술한 옛 스님을 이제 찾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 불교가 이처럼 쓸쓸하다오.⁹⁴⁾

위 시는 「동천의 객사에 보낸 편지(奉簡東泉旅舍 三十韻)」중의 제11, 12운이다. 연파는 불법을 구하려는 승려는 많지만 그를 지도하고 이끌 마땅한 스승이 없는 현실을 개탄하였다. 위 시가 발표되었을 때 다산은 아직 동천여사에 머물고 있었음을 감안할 때, 이 시에는 연파가 다산을 스승으로 모시고자하는 뜻이 담겨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연파는 다시 다음과 같이 말했다.

90) 『아암유집』 권1.

91) 『연담대사임하록 외』, 위의 책, p. 501.

92) 『아암유집』 권1.

93) 『아암유집』 권1.

94) 박완식, 위의 책, p. 98.

少林面壁雖奇絶
 圭峯箋註那可闕
 自是眞如不二門
 莫向虛空棒打月⁹⁵⁾

소림의 면벽은 더없이 뛰어 났다고 하나
 규봉(종필)의 주석을 어찌 버릴 수 있나
 이 모두 진여불이문이니
 달을 판다고 허공을 향해 몽둥이 휘두르지 마라.

연파는 화두 일색이었던 당시의 불교 선포가 크게 잘못된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그는 “달을 판다고 허공을 향해 몽둥이 휘두르는 격”이라고 묘사하였다. 그렇다면 연파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그가 교외별전(敎外別傳)으로 면벽관심(面壁觀心)하는 달마의 선법을 설파한 것은 조사선(祖師禪)으로서 최상승선(最上乘禪)의 위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경학(經學)으로 그것을 뒷받침하지 않으면 허공에 대고 몽둥이를 휘두르는 격이라고 말했다. 이는 규봉의 선교일치(禪敎一致)·선교융통(禪敎融通)과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연파의 백수시는 이런 과행적 불교 수행의 결과를 7언 율시로 표현하였다. 그렇지만 연파는 임제종(臨濟宗), 위양종(滂仰宗), 조동종(曹洞宗), 운문종(雲門宗), 법안종(法眼宗)으로 나뉜 선종 오가(五家)의 발전 형태를 나무라지는 않았다. 그는 가끔씩 불전(佛殿)에는 사리가 방광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⁹⁶⁾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누가 좋은 차[茗觴]을 올릴 것인지 고만하면서 불교에 대한 부정적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 이런 그의 불교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좌선하는 수행자들의 형식적인 공부 태도를 힐난하는 입장으로 발전하였다.

叢林禪子數無央
 頭白齒黃走諸方
 口誦趙州狗子話
 高豎竹枝倚繩床⁹⁷⁾

헤아릴 수 없는 총림의 남자들
 머리 희고 이 누르도록 제방에 분주하네.
 입으로는 조주의 구자 화두 외우며
 선방에 기대어 죽비를 높이 세우네.

위 시에서 연파는 달마의 선법이 구두선(口頭禪)에 그치고 있는 현실을 못내 안타까워하였다. 이는 그가 선가의 구두선 선법 현실을 과감히 비판하고 있었으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제방(諸方)의 여러 선객(禪客)들에게 일침을 가하고 있었음을 의미하였다.

95) 『아암유집』 권1.

96) 「장춘동잡시 12수」 중 제3수에서 이렇게 읊고 있다. 寶塔豐碑匝數行 一花五葉摠芬芳 香臺每湧梅檀氣紺殿頻浮舍利光(보탑의 풍비는 수행을 두루하고 일화오엽은 모두 분방하네. 향대에는 매향 전단향기 솟구치고 감전에는 자주 사리방광 떠 있구나.) 원문은 『아암유집』 권1, 번역은 박완식, 위의 책, p. 40.

97) 『아암유집』 권1.

이런 부정적 현실에 대해 연파는 「동천의 객사에 보낸 편지(奉簡東泉旅舍 三十韻)」 여덟 번째 운에서 자조(自嘲) 섞인 어투로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既爲離道帙
將欲就詩篇

이미 도질(道帙)에서 떠났으니
장차 시편이나 이루고자 한다.⁹⁸⁾

위 시에서 연파는 참선해서 성불하고자 하는 인연이 이미 멀어졌으니 남은 인생을 시나 지어면서 살아야겠다는 투로 자신의 처지를 묘사하였다. 이는 그가 화두참구로 성불하겠다는 비현실적인 희망을 스스로 포기한 것을 의미하였다.

柏樹工夫誰得力
蓮花世界但聞名
狂歌每向愁中發
清淚多因醉後零⁹⁹⁾

정전 백수자 화두 공부로 누가 득력했던 말인가?
극락세계는 단지 이름만 알려졌을 뿐이지
마구 소리 지르며 부르는 노래 수심 중에 튀어나오고
맑은 눈물은 취한 후에 하염없이 쏟아지네.

연파의 위 백수시는 당시 불가의 부정적 현실과 선문의 저변에 흐르고 있는 불교계의 비현실적 실상을 잘 묘사하였다. 연파는 일찍이 교선에 모두 뛰어난 면모를 보여주었다. 특히 대둔사에서 개최된 화엄대강회에 7차례나 맹주로 모셔져 강론하였다. 또한 그는 선사로서 좌선에도 열중하였다. 그의 불교사상의 중심은 화엄과 선, 그리고 능엄사상이었다. 이런 높은 선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연파가 백수시의 ‘뜰 앞의 잣나무(庭前柏樹子)’라는 화두 참구로서 성불이 불가능하다고 묘사한 것은 자신의 화두 실참의 경험을 시로 표현한 것이었다.

연파는 당시 조선의 일반 선승들과 마찬가지로 간화선을 열심히 수행했던 이력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간화선만으로 특별한 선사상을 얻지 못했음을 실토하였다. 그는 백수시에서 간화선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이 시에서 그는 승려들의 선사라면 늘 소순기(蔬筍氣)가 문제가 되었는데 자신의 시에는 그런 흠결이 없다고 말했다. 당시의 대표적 거사(居士)였던 추사도 간화선을 비판하고 있었다.¹⁰⁰⁾ 추사는 「연파대사숙혜직소」에서 “천신(薦紳) 간에 칭찬하여 마침내 그 이름이 중국에 까지 도달했던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연파의 문명뿐만 아니라 선사상을 기술했던 백수

98) 박완식, 위의 책, p. 96.

99) 『아암유집』 권1, 「長春洞雜詩 十二首」.

100) 이에 대한 의론은 박건주, 「추사의 간화선· 대혜종교· 삼처전심에 대한 비판과 사상사적 의의」, 『선문화연구』 17, 2014. 참조.

시를 높이 평가하였으며, 이를 중국에 전파해 조선 후기 차문화 증흥에 일조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IV장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Ⅲ. 연파의 차생활과 교유시

연파의 차생활과 교유시를 살피기 위해서는 조선중기 청허휴정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가야한다. 승려의 차생활은 불가의 오랜 전통이었으므로 함허 기화(涵虛 己和, 1376-1433)나 설잠 김시습(雪岑 金時習, 1435-1493), 벽송 지엄(碧松 智儼, 1464-1534) 그리고 허응당 보우(虛應堂 普雨, 1520-1604) 등 전기의 승려들이 남긴 차시가 여러편 남아 있어 굳이 따질 것은 없지만 교유시는 그렇지 않다. 전기에는 척불(斥佛)로 인해 유불간의 교유가 거의 없었지만 중기 이후로 연파가 주석했던 대둔사의 사정은 다른데 왜 그럴까 연파이전의 차문화를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1. 연파이전의 차문화

한국의 차문화는 불교와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불교와 함께 성쇠(盛衰)를 같이 하면서 천여 년 간 그 맥을 이어간 것이 사찰이었다는 것은 조금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따라서 그러한 차문화의 배경을 사원과 승려들에서 찾는 것은 아주 자연스런 일이다. 그러나 이 논문의 성격상 그 배경은 조선 중기 이후로부터 연파가 살았던 시기까지로 한정할 수 밖에 없다.

첫째는 승려들의 음다(飲茶)는 수행의 일환으로 까지 여겨졌다는 점이다. 전통적으로 사찰과 차의 관계는 주로 불전에 올리는 헌다(獻茶)와 승려들의 선(禪) 수행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후술하겠지만 ‘선다일여(禪茶一如)’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한 전통이 승려들의 음다(飲茶)로 이어져 왔는데, 그러한 흔적을 그들이 남긴 차시(茶詩)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임란 이후 조선후기의 불교와 차문화 증흥의 중심으로 자리 잡아가는 대둔사는 더욱 그렇다. 아래의 표는 바로 그런 시기 승려들이 남긴 차시의 흔적을 정리해 본 것이다.

<표6> 청허 이후 연파 당시까지 승려의 차시1)

僧 侶	詩 題	出 典	備 考
청허휴정 淸虛休靜 1520-1604	「遊香峰」	『淸虛集』 卷1	烹茶
	「頭流內隱寂」		煮茶
	「示行珠禪子」	『淸虛集』 卷2	勸茶

	「天玉禪子」	『清虛集』補遺	一椀茶
	「道雲禪子」	『清虛集』卷2	烹茶
	「拜獻甘露茶」	『雲水壇誦詞』	玉甌, 茶荔
정관일선靜觀一禪 1533-1608	「題大菴寺」	『靜觀集』	茶一椀
	「古寺」		烹茶
부휴선수浮休善修 1543-1615	「次高秀才」	『浮休堂集』卷1	菜葉
	「山居雜詠」	『浮休堂集』卷2	新茶
	「贈巖禪伯」	『浮休堂集』卷4	林茶
	「寄松雲」		菜葉
사명유정四溟惟政 1544-1610	「丙子秋遊伽耶山」	『四溟堂集』卷1	烹茗
	「奉別回答使」	『四溟堂集』卷3	青茗
	「贈智湖禪伯」	『四溟堂集』卷5	烹茶
	「次仙巢韻」	『四溟堂集』卷7	點茶
	「次元佶韻」		仙茶
청매인오青梅印悟 1548-1623	「石床」	『青梅集』卷下	茶竈
소요태능逍遙太能 1562-1649	「詠趙州茶」	『逍遙堂集』	茶甌
편양언기鞭羊彦機 1581-1644	「次法輪摠攝韻」	『鞭羊堂集』卷1	山茶
운곡충휘雲谷冲徽 ?-1613	「春晚 遊安心寺」	『雲谷集』	烹茶
	「白雲菴」		茗
	「敬次榕雲金判書韻」		茶臼
	「贈信安師」		烹茶
	「贈惠天師」		
	「敬次五山車校理韻」		香茶
	「天真臺 寄上大提學谿谷張相公」		茶臼
취미수초翠微守初 1590-1668	「次韻贈玄載上人」	『翠微大師詩集』	一椀清茶
	「示問禪僧」		山茶
허백명조虛白明照 1593-1661	「次鄭同知韻」	『虛白集』卷2	仙茶
침광현번枕肱縣辨 1616-1684	「上堂及六色掌祝願」	『枕肱集』卷下	중국 각지의 차 맛, 玉甌, 茶角
백곡치능白谷處能 1617-1680	「滯雨 敬呈白軒相國」	『大覺登階集』 卷1	新茶
	「春日 寄林師」		新茶
	「次寄鄭秀才」		陸羽, 『茶經』
	「效回文體」		一椀茶
	「自一言至十言」		良茶
한계현일寒溪玄一 1630-1716	「天藏庵」	『寒溪集』	茶烟
	「表訓寺」		烹茶
백암성충栢庵性聰 1631-1700	「幽居」	『栢庵集』卷上	烹茶
	「次韻」		烹茶
	「送春」		一盃清茶

	「山居雜詠」		烹茶
	「題黃嶺蘭若」		茗煎
월저도안月渚道安 1638-1715	「山居雜詠」	『月渚堂大師集』 上卷	不濕茶
	「又次八韻」		山茶
풍계명찰楓溪明察 1640-1708	「次妙瓊」	『楓溪集』 上卷	點茗茶
	「南臺」	『楓溪集』 中卷	煎茶
설암추봉雪巖秋鵬 1651-1706	「贈惠亮」	『雪巖雜著』 卷1	烹茶
	「贈希顏」		烹茶
	「次翠律師韻」		驚雷笑
	「次贈大方沙彌」	『雪巖雜著』 卷3	茶鼎 龍丹茶
환성지안喚惺志安 1664-1729	「幽居」	『喚惺詩集』	茶爐
무경자수無竟子秀 1664-1737	「彌勒庵」	『無竟集』 卷1	烹茶
	「五言蜂腰體 贈故人」		新茶
	「贈道圭頭陀」		烹茶
영해약탄影海若坦 1668-1754	「次玉泉丈室來韻」	『影海大師詩集抄』	苦口師
허경법중虛靜法宗 1670-1773	「次文化衙客尹仲晦韻」	『虛靜集』 卷上	仙廚茶
송규나식松桂懶湜 1684-1765	「瀑流」	『松桂大禪師文集』 卷1	烹茶
상월새봉霜月璽筭 1687-1767	「贈青巖慧衍大師」	『霜月大師詩集』	仙茶
천경해원天鏡海源 1691-1770	「寄海印師」	『天鏡集』 卷上	一椀
	「白羊山」		茶烟
	「挽楓嶽」		清茶
야운시성野雲時聖 1710-1776	「次雪松長老韻 送頓修大師」	『野雲大禪師文集』 卷1	烹茶
오암의민鰲巖毅旻 1710-1792	「謹次權判書(示嚴)遊內延山韻」	『鰲巖集』	茶數椀
묵암최눌默庵最訥 1717-1790	「除夜」	『默庵集』 卷初	清茶
	「戊子年三月初五夜夢」		仙茶
	「次澄光寺韻」		傾茶
진허괄관振虛捌關 ?-1782	「普德窟」	『振虛集』 卷1	烹茶
괄허취여括虛取如 1720-1789	「寶林寺」	『括虛集』 卷1	烹茶
연담유일蓮潭有一 1720-1799	「和中峰樂隱詞」	『蓮潭大師林下錄』 卷1	一椀茶
	「和石屋和尚山中四威儀」		烹茶
	「次社倉金詞伯昆季來韻」		雀舌
인암의침仁巖義沾 1746-1796	「次徐主書韻」	『仁巖集』 卷1	石鼎
정월정훈澄月正訓	「次永和堂椎仁軸中韻」	『澄月大師詩集』	烹茶

1751-1823		卷1	
-----------	--	----	--

30여명의 승려들이 남긴 차시가 70여 편이 훨씬 더 된다. 팥다(烹茶), 자다(煮茶), 일완다(一椀茶), 옥구(玉甌), 채다(菜葉), 신차(新茶), 산차(山茶), 선차(仙茶), 다구(茶臼), 다연(茶烟), 석정(石鼎) 등 차 앞의 채취, 차를 끓여 마시는 한가로운 분위기나 정취, 다구(茶具) 등을 읊는 것들이라 당시 차문화의 양상을 잘 드러내고 있다.

두 번째는 대둔사의 사격(寺格)이 정립되면서 차문화도 그에 비례하고 있다는 점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대둔사는 임란 이전에는 지리적으로나 규모 면에서도 주목할 만한 사찰은 아니었다. 그러한 대둔사가 크게 중창된 것은 임란 때 혁혁한 공을 세운 서산대사(西山大師)¹⁰¹⁾가 이 절을 ‘삼재가 들어오지 않는 곳ियो, 만세토록 파괴됨이 없는 곳이며, 중통의 소귀처(三災不入之處 萬歲不毀之處 宗統所歸之處)’라고 하면서 자신의 의발(衣鉢)을 대둔사에 전할 것을 부촉(咐囑)한 이른바 ‘서산유의(西山遺意)’가 있는 이후의 일이다.¹⁰²⁾ 그리하여 1788년(정조 12년) 대둔사 승려 계홍(戒洪)과 휴정의 7세 법손 춘계 천묵(春溪天默, ?-?)이 서산을 기리기 위한 사당의 건립과 편액을 내려 달라는 내용의 문건(上言單子)을 조정에 올려 1789년(정조 13년) 마침내 조정의 명으로 표충사(表忠祠)가 사액(賜額)된 것이다.

이렇듯 자신의 의발(衣鉢)이 대둔사에 전해지도록 유촉(遺囑)한 ‘서산유의(西山遺意)’와 이를 구체화한 표충사가 대둔사에 건립됨으로써 대둔사는 ‘팔로(八路)의 종원(宗院)’으로 격상된다.¹⁰³⁾ 또한 이에 수반되는 역대 조사들의 영각(影閣)과 비탑(碑塔)이 세워지고¹⁰⁴⁾ 이 과정에서 12종사의 비문(碑文)은 아래 표와 같이 모두 당대의 유명한 문신(文臣) 학자들에 의해 지어진다.

<표7> 대둔사 12대종사의 비문 찬자

종 사	비 문			立碑 年代	소재지
	撰 者	書 者	篆 者		

101) 서산의 호는 청허이다. 본고에서는 서산과 청허를 혼용해서 쓴다.

102) <http://encykorea.aks.ac.kr>. 내용 요약발췌.

103) 이와 관련해서는 김용태의 「大菴寺의 ‘宗院’ 표명과 그 불교사적 의의」, 「조선후기 大菴寺의 表忠祠 건립과 ‘宗院’ 표명」에 자세하게 논의되어 있다.

104) 영각은 1祖, 6宗, 8老, 8師(『대둔사지』, pp.99-100), 비탑은 1祖, 2老, 9師(『대둔사지』, pp.100-104)가 세워지게 된다.

1	풍담의심 楓潭義諱	藝文館直提學 尙瑞院正 金宇亨 ¹⁰⁵⁾		五衛都摠府都摠管 李楨	1692년	대둔사
2	취여삼우 醉如三愚	藝文館直提學 韓致應			1684년 이후	대둔사
3	월저도안 月渚道安	春秋館編修官知制誥 閔昌道 弘文館大提學 李德壽 ¹⁰⁶⁾	徐命維	李德壽	1719년 1739년	보현사 대둔사
4	화악문신 華嶽文信	成均館大司成 韓致應 『兒庵遺集』에 根據함			1707년 이후	대둔사 상원암
5	설암추봉 雪巖秋鵬	弘文館大提學 李德壽	徐命維	李德壽	1739년	대둔사
6	환성지안 喚醒志安	吏曹判書 洪啓禧 ¹⁰⁷⁾	吏曹參判 曹命采	洪啓禧	1822년	대둔사
7	벽하대우 碧霞大愚	세자익위사 부술 桐岡 李毅敬 ¹⁰⁸⁾			1764년	미황사
8	설봉회경 雪峰懷淨	弘文館副提學知制誥 金鎭商 ¹⁰⁹⁾			1739년	미황사
9	상월새봉 霜月璽封	奎章閣提學知實錄事 蔡濟恭 ¹¹⁰⁾			1782년	대둔사
10	호암체정 虎巖體淨	吏曹判書 洪啓禧	吏曹參判 曹命采		1822년	대둔사
11	함월해원 涵月海源	春秋館觀象監事 金相福	春秋館修撰官 李澤遂	兵馬節制都尉 金斗烈	1773년	대둔사
12	연담유일 蓮潭有一	李忠翊 李建芳(1864-1910), 李建芳의 『蘭谷存稿』에 根據함			1803년 未詳	대둔사 백양사

환성지안, 호암체정 그리고 연담유일을 제외한 나머지 아홉 종사들의 비석이 모두 연파 생존 시에 이미 건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만큼 연파 당시에는 이미 유불의 벽이 어느 정도 허물어졌음을 의미한다. 후술하겠지만 연파가 여러 사대부들과 교류할 수 있었던 원인의 하나도 이러한 일과 직접 연관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표충사의 춘추제향(春秋祭享)이나, 영각, 혹은 탐비전에서 역대 조사들에 대한 차례 등이 더욱 격식을 갖추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 직접적인 근거를 1826년 백파

105) 1616-1694.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光山. 자는 道常, 호는 寄傲堂.

106) 1673-1744.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全義. 자는 仁老, 호는 藥溪 또는 西堂.

107) 1703-1771.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南陽. 자 純甫. 호는 淡窩. 시호 文簡.

108) 1704-1778. 조선 후기의 문신·학자. 본관은 原州. 자는 景浩, 호는 桐岡 또는 憂樂堂.

109) 1684-1755.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光山. 자는 汝翼, 호는 退漁.

110) 1720-1799.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平康. 자는 伯規, 호는 樊巖·樊翁.

공선(白坡巨璇, 1767-1852)의 『작법귀감(作法龜鑑)』의 간행에서 알 수 있다. 조선후기 영조-철종 대의 선승인 백파 공선이 불교의 제반의식에 필요한 의식문을 편집하여 펴낸 종합 의례서(儀禮書)가 『작법귀감』이다. 물론 이런 유의 책은 백파 이전에도 이미 있어 왔다. 그런데 왜 백파는 이 책을 편찬하게 되었는가. 거기에는 분명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서문에서 백파가 한 말을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이다.

작법의 절차에 대한 책들이 비록 많이 있으나 빠진 부분이 있고 전체적인 작법의 전모가 잘 나타나지 않은 것들이 있으며, 잘못 거론하고 있는 것이 많으니 자칫 부처님께 공양하는 경사스러운 일이 도리어 부처님 가르침에 누가 되는 허물이 되는 수가 생기겠다.

이에 문하생 중에 몇 명의 선납(禪納)이 나에게 책 한 권을 만들어서 교정을 해달라고 청하였다. 내가 재주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고집스럽게 사양하자, 대중들이 구름처럼 몰려와서 간청하였다. 나는 사양할 핑계가 없어, 여러 가지 문헌을 탐구하여 수록하고 그 중에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고, 요점을 간추리고 빠진 부분을 보충하여 일관되게 하려고 노력하였다. 의례는 삼단(三壇)을 갖추어야 하고 이치는 육도(六度)를 포함해야 한다. 그리하여 네 모서리에 사성(四聲)을 표시하고 절구(絶句)마다 구두점을 찍어서 『작법귀감』이라 이름 붙였다.¹¹¹⁾

작법의 절차에 대한 책들이 이미 여럿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빠진 부분이 있고 전체적인 작법의 전모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면, 잘못 거론한 것이 많다는 것을 이 책 편찬의 직접적인 이유로 들고 있다. 그리하여 자칫 부처님께 공양하는 일이 도리어 부처님 가르침에 누가 되고 허물이 될 수 있어 이를 다시 보완하고 더욱 체계화할 필요성을 느낀 것이다. 하지만 이런 표면적인 이유 외에 그 저변에는 사대부들을 의식한 어찌면 일종의 열등의식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왜냐하면 이 시기에는 이미 표충사(表忠祠)에서의 춘추제향(春秋祭享)이 행해지고 있었음을 간과할 수 없다. “1789년 4월 27일 표충사 사액을 기념하는 제(祭)가 봉행된 이후 매년 춘추의 제향이 실시되어 왔기 때문이다.”¹¹²⁾ 특히 “1791년 추향(秋享)부터 1822년 추향까지의 표충사 제향 방함록(芳銜錄)이자 참사록(參祀錄)인 「표원참사록(表院參祀錄)」과 또 「제임명함록참사록(祭任名銜錄參祀錄)」에는 1823년 춘례제(春禮祭)부터 1871년의 「신미춘향원제방함(辛未春享院祭芳啣)」까지 약 50여 년간 봉행된 표충사 춘추제향 주도자들의 명단이 고스란히 남아 있음에서 잘 알 수 있다.¹¹³⁾ 표충사의 춘추제향이 1871년에 이르러 중단되고 있는데

111) 백파 공선 저, 김두재 옮김, 『작법귀감』, 동국대학교 출판부, 2010, pp. 18-19.

112) 김상영 지음, 『해남 대흥사 표충사』,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 2014, p. 35.

113) 김상영, 위의 책, p. 44. 매년 춘추로 봉행되던 제향이 3년 여간 중단된 경우도 있었다.

이것은 그 해에 있었던 대원군의 서원철폐령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세 번째는 대둔사의 차문화 배경에는 12대종사의 맥이 이어지는 종통(宗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대둔사지』에 따르면 “청허 이후 대둔사의 12종사는 모두가 서산에게서 나왔고, 『대방광불화엄경(大方廣佛華嚴經)』을 강하는 대규모 법회가 연이어져 온다. 조음(潮音)은 두륜산을 흔들고 구름은 침계루(枕溪樓)에 걸렸다. 그래서 온 나라의 치림(緇林)이 대둔사로 모여와 모두가 종원(宗院)으로 받든다”¹¹⁴⁾고 했다. <표 1>에서 볼 수 있듯 청허 휴정은 남달리 많은 차시를 남기고 있다. “산승의 평생 사업은 차 달여 조주(趙州)에게 드림이라.(衲子一生業 烹茶獻趙州)”¹¹⁵⁾라고 한 데서 대둔사의 종사들은 선사(先師)의 이러한 가르침을 예사로 흘려보내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은연중에 이런 수행이 하나의 전통처럼 이어져 간 것은 아닐까. 청허 이후 대둔사의 12종사 및 강사들이 남긴 차시는 아래 표와 같이 정리되는데 이 또한 연파이전의 차문화를 규명하는데 빠져서는 안 될 자료이다.

114) 『대둔사지』, 권1.

115) 송재소·조창록·이규필 옮김, 『한국 차문화 천년 7』(승려의 차문화), 돌베개, 2014, p. 88.

<표8> 대둔사 12대종사, 12대강사의 차시 편수

12大宗師			12大講師		
宗 師	茶詩	出 典	講 師	茶詩	出 典
1	풍 담 의 심 1592-1665		1	만 화 원 오 1694-1758	
2	취 여 삼 우 1662-1684		2	연 해 광 열 ?-?	
3	월 저 도 안 1638-1715	1편 『월저당대사집』 상 『한국불교전서』 제9책, pp.79-121	3	영 곡 영 우 ?-?	
4	화 악 문 신 1629-1707		4	나 암 승 제 1629-1707	
5	설 암 추 봉 1651-1707	10편 『설암잡저』 『한국불교전서』 제9책, pp.236-342	5	영 과 성 규 1651-1706	
6	환 성 지 안 1664-1729	1편 『환성시집』 『한국불교전서』 제9책, pp.468-476	6	운 담 정 일 1678-1738	
7	벽 하 대 우 1676-1763		7	퇴 암 태 관 1687-1767	
8	설 봉 회 정 1678-1738		8	벽 담 행 인 1687-1748	
9	상 월 새 봉 1687-1767	1편 『상월대사시집』 『한국불교전서』 제9책, pp.591-599	9	금 주 복 혜 1691-1770	
10	호 암 체 정 1687-1748		10	완 호 윤 우 1758-1826	
11	함 월 해 원 1691-1770	4편 『천경집』 『한국불교전서』 제9책, pp.601-632	11	낭 암 시 연 1789-1866	
12	연 담 유 일 1720-1799	5편 6수 『연담대사임하록』 권지일, 二	12	연 과 혜 장 1772-1811	5편 8수 『아암유집』
6인 22편			1인 5편		

이 표에 의하면 12대종사 가운데 6인이 22편의 차시를 남기고 있다. 반면 12대강사는 연과를 제외한 나머지 11대강사들은 단 한 편의 차시도 남기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연과와 차를 논의함에 있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이러한 몇 가지는 사찰에서의 현대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면서 자연스럽게 사대부들과의 교류도 검할 수 있어 대둔사 승려들의 음다풍(飲茶風) 또

한 그 격(格)을 더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아래에서 연파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둔사 12대종사의 차시 몇 편을 감상하기로 한다.

又不見	또한 보지 못 했는가
東海蓬萊山	동해의 봉래산(금강산)
一萬二千峯	일만 이천 봉을
雪月瀉玉溪	흰 달이 시내에 비치고
風松秦瑤琴	솔바람이 옥 거문고 소리를 내네.
草食飢來餐	배고프면 채식도 달게 삼키고
山茶渴卽斟	갈증 나면 산차 마시네.(其三) ¹¹⁶⁾

화엄(華嚴)의 도리와 백가(百家)에 통달했던 월저 도안(月渚道安)의 「또 8운을 차운 하다(又次八韻)」이다. 그는 9세에 출가해 천신 장노(天信長老)에게 구족계를 받고, 대둔사의 제1대종사인 풍담에게 20여 년을 수학하고 심법을 얻었다. 『화엄경』·『법화경』 등 대승경전을 간행유포하면서 유학자들과 시문으로 교류하면서 자연스럽게 학문적·문학 적 소통의 길을 이어갔다.¹¹⁷⁾ 이 시에서는 금강산의 아름다운 풍광에 취해 지내면서 육신의 배고픔을 채식으로 달래고 정신의 갈증을 차로 달래는 수행자의 차생활을 묘사 하고 있다.

12대종사 중 다섯 번째 종사로 가장 많은 차시를 남긴 인물이 설암 추봉(雪巖秋鵬)이다. 계행(戒行)을 청정하게 하며 교와 선에도 통달했던 그는 일상생활에서 좌선을 실행하였고 깨달음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간 모습이 「증혜량(贈惠亮)」에 잘 나타나 있다.

金繩一路幾年行	금승 한 길로 다닌 지 벌써 몇 년이며
點石玄機後道生	현기를 헤아리는가, 후도생아.
山外不知人世變	산 밖에선 인간 세상의 변화를 알지 못하고
枕邊閑聽石泉鳴	베갯머리 가에서 시냇물 소리를 듣네.
踏花歸徑春雲濕	꽃 밟고 돌아오는 길, 봄 구름이 습하고
然桂烹茶暮靄清	계수나무로 차 달이는데 저녁노을이 맑다.
林鶴野麋盟既厚	숲의 학과 야생 고라니가 서로 믿으니 이미 후덕한데
朱門何必繡衣榮	붉은 문에 하필 수놓은 옷이 빛나겠는가? ¹¹⁸⁾

116) 도안, 『월저당대사집』 상, (『한국불교전서 제9책』), 동국대학교 출판부.

117) 권동순, 「月渚道安의 禪詩연구」, 『韓國禪學』 제29호, 2011, p. 232.

118) 추봉, 『설암잡저』, 권1, (『한국불교전서 제9책』), 동국대학교 출판부.

이 외에도 「차취율사운(次翠律師韻)」에는 계수나무로 경뢰소차를 달여 마시며 계울을 지키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고, 「사안법사견방(謝眼法師見訪)」에는 옛 도반이었던 안법사의 방문을 받고 그와 함께 차 마셨던 옛 일을 회상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어 올 끈은 선승이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또 환성은 전국을 순방하며 화엄대회(華嚴大會)를 열었던 제6대종사였다. 「그윽한 곳에 살면서(幽居)」에는 차에 관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底事無心臥水西	어찌하여 무심히 누워 있는데 물은 서쪽으로 흐르는가?
只緣忘世愛幽棲	다만 세상 인연 잊고 그윽한 곳에 사는 것 사랑할 뿐이네.
茶爐爲客開深竈	손님 위해 차 화로 부뚜막에서 꺼내 놓았으나
藥圃諱人隔小溪	약초밭이 사람 꺼려 작은 시내 건너 있네. ¹¹⁹⁾

안개에 둘러싸인 산자락에서 참선을 하며 차를 즐겨 마셨던 선승의 모습이 묘사되고 있다. 그는 가끔 방문하는 손님을 위해 부뚜막에 준비해 놓은 차 화로를 통해 그도 사람의 정을 그리워하는 보통의 인간이었음을 알 수 있다.

대둔사 제9대종사였던 상월 세봉은 쌍계사에서 청암(靑巖)을 만나 선차를 마시면서 회포를 푸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청암혜연 대사에게(贈靑巖慧衍大師)」가 그것이다.

甲戌年春賞雜華	갑술년 봄 온갖 꽃 감상하는데
靑巖助會事居多	청암은 회를 돕느라 사무 번다하네.
未答情書愁不盡	편지 보내도 답장 없어 걱정스럽더니
幸逢眞面喜無涯	다행히 직접 만나니 즐거움 끝이 없네.
雙溪水滿仙茶足	쌍계의 물 가득하니 선차로 족하고
七佛風來客興加	칠불의 바람 불어와 손님의 흥 더하네.
遙向洛東江上去	멀리 낙동강 향해 돌아가야 하나니
臨分休問意如何	헤어짐에 이르러 뜻이 어떠한가 묻지 마라. ¹²⁰⁾

이 시에 나오는 쌍계사는 대둔사와 더불어 차의 산지로 명성을 얻었던 곳이다. 쌍계사에서 청암과 함께 차를 마시니 그 즐거움을 신선 같았다고 했다. 옥보선사(玉寶禪師)를 따라 출가한 가락국 수로왕의 일곱 왕자가 수행하고 성불했다는 칠불암의 바람까지 불어오니 더할 나위 없다고 했지만 청암과 헤어져 다시 대둔사로 돌아가야 하는 안타

119) 지안, 『환성시집』, (『한국불교전서 제9책』), 동국대학교 출판부.

120) 세봉, 『상월대사시집』, (『한국불교전서 제9책』), 동국대학교 출판부.

까움을 아쉬워하기도 하였다.

인욕행(忍辱行)이 남달랐던 제11대종사로 함월 해원은 3수의 차시가 전해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해인에게 부치다(寄海印師)」는 차 나눔을 묘사한 시이다.

滿堂高友盡東南	마루에 가득한 높은 손님들 각처에서
千里間關此處參	천리의 험한 길 모두 여기 모였다네.
俱是客中無所慰	우리 모두 나그네라 위로할 것 없나니
只將茶椀勸君三	다만 찻잔 들고 그대에게 석 잔을 권하네. ¹²¹⁾

조선 초기 이목(1471-1498)이 지은 「다부」에서도 차의 다섯 가지 공[五功]을 논하면서 차는 주객의 정을 화락하게 한다고 했듯이 동서고금을 통해 만남의 자리에서 항상 중요한 매개체로 등장하는 것이 차임이 확인할 수 있는 시이다.

대승경전에 통달하여 많은 저술을 남겼던 연담을 당시의 사람들은 대련(大蓮) 연파를 소련(小蓮)이라 한 데서 알 수 있듯이 연파가 가장 닮고 싶어 했던 인물이다.

行增功加	행실도 닦고 공력 또한 쌓으니
漸抽道芽	점점 도의 싹이 트네.
日用事種菜灌花	날마다 하는 일은 나물 심고 꽃에 물대는 것이라
明月爲友	밝은 달로 벗을 삼고.
白雲爲家	흰 구름으로 집을 삼으니
足一衲衣 一鉢飯一椀茶	한 벌의 해진 승복, 한 발우의 밥과 한 잔의 차로 족하다네.(其六)

幽庵短笛	깊은 암자 짧은 대나무 발
瑤草琪花	귀한 풀과 꽃
一叢竹三曲四斜	대밭 속의 길은 굽고 경사졌네.
簾生雲氣	발 밖에 구름 생기고
溪印月華	시내에는 달빛 비추니.
喜盤有蔬 鼎有 餽瓶有茶	소반에 나물 있고 솔 안에는 먹을 것 있고 방에는 차가 있어 즐겁네.(其十) ¹²²⁾

날마다 하는 일은 나물 심고 꽃에 물대는 것, 자신의 맑은 바를 열심히 하는 것이 바로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라고 하는 연담은 일상생활 속에서 차를 통해 깨달음을 얻는 것이 바로 선의 수행이라고 하였다.

121) 해원, 『천경집』 권상, (『한국불교전서 제9책』), 동국대학교 출판부.

122) 『연담대사 임하록』 권1, 「화중봉낙은사」.

이처럼 연파 이전 대문사의 차문화는 청허와 이후 12대종사 중 월저, 설암, 환성, 상월, 함월, 연담이 중심이 되고 있다. 그들의 차생활은 청정한 계행을 지켜가는 지계(持戒), 남을 위한 배려와 인욕행, 그리고 일상의 생활 그 자체가 선(禪) 수행이라는 입장으로 대변되고 있다. 이러한 수행 풍토 속에서 피어난 차문화는 연파에게도 그대로 수용되었다.

2. 연파의 차생활

연파의 차생활은 그의 시문집인 『아암집』과 『연파잉고』에 나타나 있는 그의 차시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차에 관련된 시는 『연파잉고』에 보다 많은 양이 수록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다산과 주고받은 시가 상당수 있다. 특히 정민이 소개한 『견월첩』은 『아암집』이나 『연파잉고』와 더불어 연파의 차생활을 엿볼 수 있는 소중한 자료로 간주되고 있다.

<표9> 연파의 시문집에 나타난 차시

	詩 題	詩 語	文 集 名
1	「答東泉」	晚茗恐已老蒼，但其焙曬如佳，謹茲奉獻也。	『건월첩』
2	「鐘翁貽余詩，求得佳茗，適蹟上人先獻之，只和其詩，不副以茗」	薄採天中茗 聞諸採茶人 最貴竹裡挺 飲時休教冷 去疾在須臾 豈愁眠不醒 清宵汲銀餅 長日鬻石鼎	『연파잉고』
3	「盡日」	竹間茶葉將舒舌	『연파잉고』
4	「贈加里浦節制金公宗煥」	已具茶湯遲半日	
5	「奉和鐘翁坤卦六爻韻」	茶芽更貯囊	
6	「山居雜興」 20首中 第2首	叮囑沙彌須鬻茗 枕頭原有地漿泉	『연파잉고』 『아암집』
7	「山居雜興」 20首中 第9首	清茶一碗唯吾分	『아암집』
8	「和中峰樂隱詞」 16首中 第3首	登嶺採茶	
9	「長春洞雜興呈李使君台升十二首」 中 第8首	坐擁茶爐試畫灰	『연파잉고』
10	「奉簡黃庭李公台升」	茶氣不仁	『아암집』
11	「答琴湖」	啜佳茗一碗	

연파가 남긴 차시 중 관조적인 내용을 담은 「진일(盡日)」이란 작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幽棲盡日閉松門
石泉依然栗里邨
一塢雲中忘甲子
兩函經上度朝昏
竹間茶葉將舒舌
牆外梅枝已斷魂
林下邇來成寂寞
禽商志操有誰論

사는 곳 온 종일 송문을 닫아거니
돌샘은 변함없는 울리(栗里)¹²³⁾의 마을일세.
온 언덕 구름 속에 세월 다 잊었고
두 상자의 경전 위로 아침저녁 지나간다.
대숲 사이 차 잎은 장차 혀를 퍼려하고
울 밖의 매화가 이미 애를 끊누나.
숲 아래 가까이 와 적막함을 이루니
새가 지조 있음을 뉘 있어 논하리오.¹²⁴⁾

123) 栗里는 도연명이 살던 곳으로서 세상의 풍속에 관여함이 없이 유유자적하게 지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도연명이 “五斗米에 허리를 꺾을 수 없다”며 팽택 현령 자리를 박차고 귀거래를 감행했다는 곳이다.

124) 정민(c), 『새로 쓰는 조선의 차 문화』, 김영사, 2011, pp. 182-183.

이 시에서 그는 사람들과의 교류를 끊고 온종일 편히 홀로 지내니 어떤 샛됨도 없고 돌샘마저도 세상의 풍속에 관여함이 없이 맑고 유유자적하게 흐르는 그윽한 곳에서 지내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경련(頸聯)에서는 그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 어느 덧 대숲 찾없이 기를 펴려하고, 매화의 한창 시기가 지나고 있다고 묘사하였다. 또 미련(尾聯)에서는 은거하듯 하는 자조적인 생활을 통해 새를 자기 자신에 비유하면서 여기저기 휘둘리지 않은 지조 있는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연과의 「장춘동 잡흥 사군 이태승에게 드림(長春洞雜興呈李使君台升十二首)」 12수 중 제8수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등장한다.

金塘潤勢自潏洄
 芳草垂楊一洞開
 春入雲山長不出
 水流人間定無回
 行持硯匣時濡筆
 坐擁茶爐試畫灰
 昔與琴湖游此岸
 幾年玄觀賞桃來

금당포 물길 형세 감돌아 흘러드니
 수양버들 풀 육은 곳 골짜 하나 열렸구나.
 봄이 온 구름 산서 나올 줄을 모르는데
 인간으로 흐르는 물 돌아옴이 없구나.
 길 떠나도 연갑(硯匣) 지너 때로 붓을 적셨고
 차 화로 끼고 앉아 재에 획을 긋곤 했네.
 예전에 금호(琴湖)와 함께 이 기슭에 놀러와
 몇 년을 현관(玄觀)으로 도화 감상 왔었지.¹²⁵⁾

장춘동은 해남 대둔사 어귀의 골짜기이다. 바람에 벼루갑을 넣어두고 툼툼이 시를 쓰거나, 차를 마시며 화로의 재 위에 획을 긋는 모습을 통해 매사 열심히 생활하는 모습을 엿 볼 수 있다. 이는 좋아하는 주역 공부를 했는지 이광사의 글씨를 연습을 했는지 알 수는 없으나 고독한 수행자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러한 삶의 모습은 「탁옹의 곤괘 육효의 시운에 삼가 화운하다(奉和籀翁坤卦六爻韻)」에서도 드러난다.

嶮巖人世上
 步步凜如霜
 置屋成三逕
 安身著一方
 碧牕看古蹟
 幽巷詠新章
 貝葉曾盈篋
 茶芽更貯囊
 烟霞隨杖屨
 風月滿衣裳

험난한 인간의 세상 위에는
 걸음마다 서리처럼 오싹 하구나.
 집 지어 세 갈래 길 만들어 놓고
 몸 편안히 한 귀퉁이 부치어 있네.
 푸른 창엔 옛 유적 바라보이고
 깊은 골목 새 노래를 읊조리노라.
 패엽 불경 광주리를 가득 채웠고
 찾았은 주머니에 담아 두었지.
 안개 노을 내 걸음을 뒤따라오고
 바람과 달 옷 위로 가득하구나.

125) 정민(c), 위의 책, p. 184.

卽此爲身計
何須羨綺黃

이것으로 몸 위하는 계책 삼으니
어이해 누런 비단 부러워하리.¹²⁶⁾

위 시는 불경을 읽다가 차를 달여 마시고, 안개 노을과 바람과 달을 벗 삼아 지내는 무욕의 삶을 묘사하고 있다. ‘패엽(貝葉) 불경은 광주리를 가득 채웠고 찻잎은 주머니에 담아 두었지’ 라는 시구를 통해 자신의 일상적인 차생활과 수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지척에 불경을 쌓아두고 읽고 읽기를 반복하듯 차 또한 주머니에 담아두고 수시로 마셔가며 생활하는 수행자의 삶 속에서 그에게 차와 선은 불이(不二)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시를 통해 연파는 차를 저장하는 방법으로 차 주머니를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연파는 승려요, 차인이었다. 차생활 모습과 수행자로서의 내면세계는 다음과 같은 시를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

一簾山色靜中鮮
碧樹丹霞滿目妍
叮囑沙彌須煮茗
枕頭原有地漿泉

주렴 사이 보이는 산색은 정적 속에 선명하고
푸른 초목, 고운 노을 눈에 가득 고와라.
사미에게 차를 달이라고 단단히 일렀는데
베개 머리에 원래 지장수가 있었던 것을.¹²⁷⁾

위 시는 『아암집』 권1의 맨 처음에 나오는 시로서 「산에 살면서 느끼는 흥취(山居雜興)」를 읊은 20수의 시 가운데 두 번째 시다. 적막한 산사의 해질녘 대나무 발 사이로 보이는 산 빛의 푸름과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운 붉은 노을빛을 묘사하였다. 이런 분위기에서 차 한 잔이 절로 생각났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사미를 불러 차를 달이라고 단단히 일러놓고 방에 들어오니 베개 머리맡에 지장수가 있었다. 굳이 차를 달일 것도 없었는데 부질없이 사미만 귀찮게 했나보다고 미안해하는 산승의 마음 씩씩이 절로 느껴지는 대목이다.¹²⁸⁾

「산거잡흥」 20수의 제2수와 제14수에도 차를 노래한 내용이 등장한다. 제2수는 위에서 이미 살펴보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제14수만 살펴본다.

澹靄殘陽照上方
半畚紅色半畝黃
淸茶一椀唯吾分

엷은 노을 남은 벌이 질집을 비추이니
반쯤은 붉은 빛에 반쯤은 누런 빛.
맑은 차 한 사발이 다만 내 분수거니

126) 정민(c), 위의 책, pp. 184-185.

127) 『아암집』, 위의 책, 「山居雜興」.

128) 박서연, 「연파 혜장의 백수시가 대둔사 차문화에 끼친 영향」, 『한국차학회지』, 2015. 참조.

羶臭人間盡日忙

누린내 나는 세상 온 종일 바쁘구나.¹²⁹⁾

노을빛으로 불가의 두 면을 표현하고 있다. 자신을 유자(儒者) 노릇 한다고 손가락질 하는 승려들의 비난을 애써 무시하면서 누린내 나는 세상에 소속되지 않고 맑은 차 한 사발 마시며 안분지족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의지를 시로 표현하였다.

「중봉 낙은사에 화답하다(和中峰樂隱詞)」 16수 연작 중 제3수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登巔採茶	산에 올라 차를 따고서
引水灌花	물 끌어와 꽃밭에 대다가.
忽回首山日已斜	홀연히 고개 돌려보니 산 위의 해는 누엿해
幽菴出磬	깊은 산 속 암자엔 풍경이 울려 퍼지고
古樹有鴉	고목에는 갈까마귀 있네.
喜如此閒如此樂如此嘉	이렇게 기쁘고 이렇게 한가롭고 이렇게 즐겁구나.(其三) ¹³⁰⁾

연파는 직접 대둔사의 차밭에서 차를 재배하고 채취하며 한가로운 삶을 보내면서 세속에 미련을 두지 않는 초탈한 선사의 모습을 살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선종 최초의 청규(淸規)인 『백장청규』에 의하면, 누구든지 선원(禪院)의 노동에 참여해야 했으니 연파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주지든 사미승이든 직급에 상관없이 모든 대중이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일을 해야 한다며 백장 선사 자신도 예외를 두지 않았다. 청규는 모든 승려들이 황무지를 개간하고 밭을 갈아 스스로의 힘으로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승려들이 거둬들인 수확량에 대해서는 세속인들과 마찬가지로 세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야말로 혁명적인 선언이었으며 노동의 중요성을 강조한 대목이다. 뿐만 아니라 노동과 농사짓는 일 또한 선 수행이었다. 이런 유풍에 따라 연파도 직접 차를 심고 재배하고 법제하였으니 연파에게 있어서 그것은 노동이 아니라 선 수행인 것이다. 이렇게 재배하고 법제된 대둔사의 차는 전국적으로 명성을 얻게 되었으며, 뒤에 초의(草衣)는 연파의 양다법, 제다법, 음다법을 계승 발전시켜 우리나라 차문화의 원류를 형성하였다.¹³¹⁾ 그는 이런 삶이 매우 한가롭고 기쁘고 즐겁다고 고백하고 있다. 이 시의 원문에는 십수일(十首逸)이라고 했기 때문에 16수중이 아니라 26수중이라 해야 맞다. 하지만 연담의 「화중봉낙은사16수」¹³²⁾를 살펴보면

129) 『아암유집』 권1.

130) 『아암유집』 권1, 「和中峰樂隱詞十六首十首逸」.

131) 남정숙, 「朝鮮時代 佛教 茶文化 研究-禪僧 茶詩를 中心으로」,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p. 29.

132) 『연담대사임하목』 권1, 「和中峯樂隱詞十六首」.

일실된 수가 없이 16수라고 나와 있다. 따라서 「중봉낙은사」의 시 원문을 보아야 이 의문점이 풀 수 있겠지만 이의 원문은 아쉽게도 확인할 수 없어 의문점으로 그대로 남겨 둘 수밖에 없다. 다음은 『견월첩』에 실린 「답동천」의 내용이다.

아껴 돌아보심이 과분한데, 편지로 또 안부를 물으시고 필묵까지 내리시니, 보배로워 아껴 감상할 만합니다. 지극한 감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저는 그전처럼 게으르고 제멋대로인지라 두터운 뜻에 부응할 것이 없습니다. 늦물 차는 벌써 쇠었을까 염려됩니다. 다만 덩어 말리기가 잘되면 삼가 받들어 올리겠습니다. 이만 줄입니다.¹³³⁾

다산이 1805년 4월 연파에게 보낸 「혜장상인에게 차를 청하며 부치다(寄贈惠藏上人乞茗)」라는 편지를 받고 답장으로 쓴 것이다. 연파는 이 답장에서 이미 4월도 지나 5월이 가까워 차값이 쇠어 차를 따기에 제철이 아님을 말하고, 그렇지만 정성껏 뒤어서別に 잘 말려 꿰찬은 차가 만들어지면 받들어 올리겠다고 했다. 연파가 직접 제다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연파가 제다에 이미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산이 차를 달라고 「결명소」를 보낸 정황을 봐도 제다에 대한 풍부한 경험으로 연파의 차 맛은 매우 뛰어났음을 알 수 있다. 다산은 연파가 차를 보내주지 않고 있는데 제자 색성이 차를 보내주자 색성에게 「색성이 차를 부쳐 준 것에 감사하며(謝曠性寄茶)」라는 감사의 시를 보냈다.

藏公衆弟子	장공의 많은 제자들 중에
曠也最稱奇	색성이 가장 기절하다네.
已了華嚴教	화엄 교리를 이미 터득하고
兼治杜甫詩	두보의 시까지 배운다네.
草魁頗善焙	좋은 차도 꽤나 잘 만들어서
珍重慰孤羈	진중하게 외로운 나그네 위로했다네. ¹³⁴⁾

위 시는 다산이 강진 유배 생활을 할 때 승려 색성으로부터 차를 선물 받고 이에 대한 사례로 보낸 감사의 시이다. 색성은 연파의 제자이다. 그도 다산이 칭찬할 정도로 차를 잘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제다뿐만 아니라 『화엄경』과 두보(杜甫)의 시까지 섭렵한 뛰어난 승려였다. 제다에 능한 것은 스승인 연파에게 배운 것이었을 테고 시의 말미에서 좋은 차로 나그네를 위로한다며 차의 정신적 효능까지 강조하고 있음은

133) 左顧既踰所望, 惠牘又蒙存向, 兼賜筆墨, 珍瑰可玩. 不勝感謝之至. 藏懶散如昨, 無以副厚意也. 晚茗恐已老蒼, 但其焙曬如佳, 謹茲奉獻也, 不備. 정민(d), 위의 논문, 2008.

134) 『다산시문집』, 5권, 「謝曠性寄茶」.

차공부가 다 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박동춘 소장본인 윤종영의 글 『가련유사(迦蓮幽詞)』의 서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은 색성을 이해할 수 있는 또 다른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이해 겨울, 나와 뜻을 같이 하는 이들이 산방에서 함께 묵었는데, 마침 아암의 문도 색성이 내외전에 두루 통하고, 시에도 능했다. 마침내 동림고사(東林故事)를 모방하여, (고사에 참가한 인원보다) 세 사람이 더 참가했다. 공부하는 여가를 살피 운을 뽑아(이 운에 맞추어)시를 지었는데 동에서 함(咸)까지 한 사람이 각각30수를 지어 모두 210수가 되었는데, 이를 가련유사라고 했다. 가련은 무엇인지 절을 주장한 것이요, 유사는 무엇인가 산사를 읊은 것이니 이것이 가련유사의 큰 요지이다. 그 문체와 풍격이 비록 동림고사의 사걸(四傑)에게는 부끄럽지만 그러나 산문의 초올(楚杻)이라 할 만하다.¹³⁵⁾

위 글을 통해 색성은 사대부와 시회(詩會)에 참여할 만큼 시에도 능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산은 「혜장이 나를 위해 차를 만들어 놓고, 마침 그 문도인 색성이 내게 차를 주자, 마침내 그만두고 주지 않았다. 그래서 원망하는 글을 보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앞의 운을 쓴다(藏既爲余製茶 適其徒曠性有贈 遂止不予 聊致怨詞 以徼卒惠 用前韻)」라는 시를 지어 보냈다. 여기에는 연파의 제자 색성의 마음 씩씩이는 후한데 스승의 예법은 매정하기 그지없다는 의미와 그러지 말고 만들어 둔 차를 마저 내놓으라고 으름장을 놓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연파는 제자 색성이 다산에게 차를 드린 것을 알고 다산의 시에 차운해서 다음과 같은 답시를 보낸다. 제목은 「탁옹께서 내게 시를 보내시어 좋은 차를 구하셨습니다. 마침 색성 상인이 먼저 드렸으므로 다만 그 시에 화답만 하고 차는 함께 보내지 않는다.(籜翁貽余詩 求得佳茗 適曠上人先獻之 只和其詩不副以茗)」이다.

登頓層峯頂
 薄採天中茗
 聞諸採茶人
 最貴竹裡挺
 此味世所稀
 飲時休教冷
 石花何足比
 明月亦難竝
 去疾在須臾

층봉의 꼭대기로 간신히 올라
 천중의 찻잎을 조금 따왔지.
 차 따는 사람에게 얘기 들으니
 대숲에서 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이 맛은 세상에 드문 것인데
 마실 때 차갑게 하면 안 되네.
 석화를 어이 족히 이에 견줄까
 명월도 나란히 서기 어렵네.
 질병을 낮게 함은 잠깐 사이고

135) 박동춘, 「가련유사의 저술 배경과 그 의미」, 『상반기 실학박물관 특별전 유배지의 제자들』, 2014, 실학박물관, pp. 132-133.

豈愁眠不醒
清宵汲銀餅
長日鬻石鼎
我無苦海航
沈淪詎可拯
曠也有分施
亦足助清澹¹³⁶⁾

잠들어 깨지 못함 근심 앓누나.
맑은 밤 은병에 물을 길어서
대낮에 돌솥에다 삶아낸다네.
고해에서 배 저을 일내야 없으니
가라앉음 어이해 건질 수 있다.
색성이 나누어 드리었으니
또한 족히 맑게 함에 도움 되시리.¹³⁷⁾

위 시의 시제에는 연파의 해학적인 성격이 드러나 있다. 또한 이 시를 자세히 살펴 보면 차의 전반적인 특징이 잘 나타나 있는 시임을 알 수 있다. 연파는 차를 직접 따서 제다했다는 사실과 차의 효능과 차의 성질 등을 상세하게 묘사하였다. 그는 물병을 은병으로 사용하였고 돌솥에 차를 끓였는데 이는 당시의 차생활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대목이다.

연파가 황정 이태승에게 보낸 「奉簡黃庭李公台升」을 살펴보면 연파의 제다 솜씨가 드러난다.

病後花已謝
惆悵誤良辰
飄蕭計難畫
委茶氣不仁
只有念醇醞
.....

初筵便傾倒
禮我如道人
挈壺至兩三
豈惟醉一巡
浩蕩論今古
華燭繼明晨
嗟哉粥飯僧
寥落青海濱
胡爲無所用
虛名動摺紳
幸茲遇君子
爛漫卽相親
分別未十日

병이 나았을 땐 꽃은 이미 다 졌으니
좋은 시절 지난 것 슬프구나.
나부끼는 쑥은 헤아려 보기 어렵고
시든 찻잎은 입맛 당기지 않네.
다만 막걸리 생각이 나지만

처음 마주하는 자리에서 흥금을 털고
나를 도인처럼 대접 하였네.
술 단지 비우기를 두세 번이나 하였으니
어찌 한 순배만 취했으리.
호탕하게 고급의 일을 논하니
촛불이 새벽까지 켜져 있네.
슬프다, 밥이나 축내는 중이
외로이 청해가에 와 있네.
어찌다 보잘 것 없는 몸이
선비 사이에 헛된 이름만 떨쳤는고?
다행한 것은 군자를 벗하여
반가움에 눈물 흘리며 서로 사귄일세.
헤어진 지 열흘도 안 되었건만

136) 『다산학단문헌집성』二, 「籜翁貽余詩, 求得佳茗. 適曠上人先獻之, 只和其詩, 不副以茗」.

137) 정민(c), 위의 책, pp. 180-181.

倏忽如三春
 回首日星山
 意緒重續續

홀연히 3년이나 지난 듯하네.
 고개 돌려 일성산을 바라보니
 회포가 겹겹이네.¹³⁸⁾

위 시에서 4행의 ‘시든 찾있은 입맛 당기지 않네!’라는 구절을 살펴보면, 그는 향과
 말효정도를 가늠할 수 있고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제다에 조예가 깊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1-14행의 ‘처음 마주하는 자리에서 흥금을 털고 / 나를 도인처럼 대접 하였
 네 / 술 단지 비우기를 두세 번이나 하였으니 / 어찌 한 순배만 취(醉)했으리’에서는
 그가 승려로서 의젓함을 지키려 하였고 교유를 즐기며 술을 좋아하는 호탕한 사람이었
 음도 엿볼 수 있다. 그런가 하면 19-20행의 ‘어찌다 보잘 것 없는 몸이 / 선비 사이에
 헛된 이름만 떨쳤는고?’에서는 그가 자신의 시명(詩名)이 널리 퍼져 있음을 알고 스스
 로 놀라워하는 모습도 발견할 수 있다.

연파는 「금호에게 답함(答琴湖)」에서 산가(山家)의 생활을 말하고 있다. “아침에 참
 선을 마치고 / 문득 일어나 시원한 전각 위에 앉아 / 좋은 차 한 잔을 마시고 소주의
 시 몇 편을 읊조리는 것 / 이 또한 산가의 맑은 정취입니다.(朝起參禪了 便起坐快閣上
 啜佳茗一碗 吟蘇州詩數篇 亦自山家清事)”라고 묘사하고 있다. 차 한 잔을 마시고 시를
 읊조리는 것으로 아침의 즐거움을 누리는 산가의 생활을 만끽했음을 알 수 있다.

또 연파는 「두륜산의 산사에서」라는 시에서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寶塔禮碑匝數行
 一花五葉總芬芳
 香臺每湧梅檀氣
 紺殿頻浮舍利光
 水遠山長魂往復
 天荒地老夢飛揚
 高僧此日還蕭索
 佳節誰能薦茗觴

보배로운 탑에 우뚝 선 비석 몇 글줄 촘촘한데
 선종의 오종가풍 모두가 향기롭다.
 향로에는 전단향 피어오르고 법당에는
 부처님 사리에 방광이 쏟아진다.
 물길 산길 멀고 높아 마음만이 오락가락
 아득한 하늘을 꿈속에 헤맨다.
 고승 마음 더욱 쓸쓸해지는구나.
 오늘따라 두륜산에서 갓 따낸 햇 차 한 잔 부처님께 올릴 이
 없으니.¹³⁹⁾

위 시는 연파의 문집에는 없는 시이다. 선종에서 말하는 깨달음을 얻은 조사들의 다
 섯 종파는 임제종(臨濟宗), 조동종(曹洞宗), 운문종(雲門宗), 위양종(滙仰宗), 법안종(法
 眼宗)¹⁴⁰⁾이다. 이 다섯 종파의 선승들은 좌선을 하면서 매번 향을 피울 때 마다 차를

138) 『아암유집』 권1, 「奉簡黃庭李公台升」.

139) 무산, 『한국역대 고승들의 茶詩』, 명상, 2002, pp. 205-206.

마시고 정신을 집중시키는 훈련을 하였다. 연파 역시 향을 사르며 다·선(茶·禪)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 노력하였다. 위 시는 그 당시에도 두륜산에 차나무가 자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있으며, 이곳의 차를 따서 부처님께 올리고자 하는 불심을 잘 표현해 놓았다.

이상 연파의 다시(茶詩) 몇 수를 살펴보았지만 연파의 문집에 수록되어 있는 차와 관련된 시는 모두 11수 정도가 된다. 이 중에서 10수는 차(茶)나 명(茗)자가 들어가는 직접적인 표현을 사용하였고, 나머지는 차와 관련된 물[水]을 언급하는 등 간접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연파의 차시를 세분하여 차생활, 차의 효능, 차의 종류, 다구의 종류, 제다, 탕수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10> 차시 속에 나타난 차 관련 시어

分 類	詩 語
茶生活	薄採天中茗
	清宵汲銀餅
	長日嚮石鼎
	已具茶湯遲半日
	茶芽更貯囊
	叮囑沙彌須嚮茗
	清茶一碗唯吾分
	委茶氣不仁
茶의 效能	啜佳茗一碗
	飲時休教冷
	去疾在須臾
茶의 種類	豈愁眠不醒
	晚茗恐已老蒼, 但其焙曬如佳
	最貴竹裡挺
茶具의 種類	竹間茶葉將舒舌
	清宵汲銀餅
	長日嚮石鼎
	坐擁茶爐試畫灰
製茶	晚茗恐已老蒼, 但其焙曬如佳
湯水	枕頭原有地漿泉

<표10>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파의 차시는 차생활, 효능, 차의 종류, 다구, 제다, 탕수를 6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는 그가 차를 즐겨 마셨던 다승이었음을 의미한

140) 休靜, 『선가귀감』 25.

다.

3. 연파의 교유시

조선은 고려왕조가 보여준 불교계의 폐단 등으로 유교[성리학]적 이상 실현을 위한 정치 추구를 통치 이념으로 삼았다. 조선왕조 건국에 참여했던 유학자들은 불교를 이 세상에 형상 있는 모든 것은 결국 다 없어지고 만다는 허무적멸(虛無寂滅設)의 이단으로 보았다. 그런데 양란이라는 국가적 비상시에 승려들은 예기치 못했던 승리를 거두었으며, 이는 사대부들로 하여금 그들을 다시 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조선 후기의 동요 속에서 불교는 일정 부분 민심에 영합하면서 교세를 신장시켜 나갔다.¹⁴¹⁾ 불교의 대표적 지식인들은 유학자들과의 교류를 통해 실학적 사고의 도입 내지 실학정신의 불교적 수용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변화의 과정을 겪게 되었다.¹⁴²⁾ 특히, 조선 후기 유학자들 중 일부는 승려들과의 교류를 통해 불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였고, 이들과 교류했던 승려들도 유교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유불사상이 확대되었다. 그 벽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시라는 고급의 매개 수단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조선 중기 이후에 많은 시승들이 등장하였다. 이들의 시적 능력은 사대부들과 수창할 수 있을 정도의 경지에 이르렀으며, 그에 따라 그들 간의 교유도 더욱 깊어졌다.¹⁴³⁾

강진으로 유배 온 다산과 만덕사 승려였던 연파와의 인연도 마찬가지였다. 이념적 차이를 넘어서 사상적 교류로 이어졌다. 차와 시라는 매개체가 마음을 이어주고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특히 일찍부터 대둔사 선방은 승려와 아름다운 유불의 교류가 무르익는 곳이었으며, 이들의 고담(高談)이 차향 속에서 더욱 깊게 피어났던 곳이었다.

연파의 시문집인 『연파잉고』에는 사대부와 교유한 글이 많이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아암집』과 또 다른 점은 『연파잉고』에 수록되어 있는 사대부와의 교유 글들이 모두 시라는 점이다. 두 문집에 수록된 교유시(交遊詩)를 표로 작성하면 아래와 같다.

141) 유희선, 「조선 후기 유학자들의 불교관」 『불교평론』, 18호, (재)만해사상실천선양회, 2004.

142) 이희재, 조윤호, 「19세기 대둔사 학승들의 유교경전 이해」, 『범한철학』 28집, 2003, p. 383.

143) 김상일(2002), 위의 논문, pp. 222-223.

<표11> 『연파잉고』에서 본 사대부와의 교유시

	시제	형식				교유한 사대부	비고	
		5언		7언			연파 잉고	아암 집
		절 구	율 시	절 구	율 시			
1	次韻呈籀翁		○			丁若鏞	○	
2	籀翁貽余詩求得佳茗適曠上人先獻之只和其詩不副以茗		○				○	
3	過高聲寺并序		○				○	
4	春日有懷籀翁		○				○	
5	奉和籀翁坎六四韻		○				○	
6	次韻呈籀翁2		○				○	
7	籀翁歸後索詩甚勤又寄一篇				○		○	
8	偶至蓮社籀翁先至洵奇事也阻雨留連喜而有詩				○		○	
9	奉簡籀翁三十韻		○				○	○
10	奉和籀翁坤卦六爻韻		○				○	○
11	山居雜興 二十首				○		○	○
12	丙寅歲立春後三日乙丑十二月過寶恩房小雪初霽山夜清寂拈韻聯句以述其事		○			丁若鏞 丁學淵	○	
13	次韻呈西山用籀翁前韻				○		○	
14	次韻奉簡丁西山學稼		○			丁學淵	○	○
15	呈靈巖使君趙運永				○		○	
16	次韻奉簡靈巖使君趙公運永				○	趙運永	○	○
17	奉簡康津知縣趙公弘鎮				○		○	
18	懷尹琴湖奎濂 尹公時在南原		○			尹琴湖	○	
19	長春寺雜興呈李使君台升十二首				○	李台升	○	
20	奉簡黃逸人泰龍				○	黃泰龍	○	
21	趙平壤鎮明枉駕相見贈余以詩奉和其韻并小序				○	趙鎮明	○	○
22	再寄許裨將		○			許裨將	○	
23	簡寄許裨將幕府				○		○	
24	次韻橘洞處士尹公				○	尹鍾河	○	
25	尹正字圭白榮還故里詩以慶之				○	尹圭白	○	
26	金承旨履度謫居靈巖數蒙問存聞有賜環之喜爲之就別副之以詩				○	金履度	○	○
27	贈加里浦節制金公宗煥				○	金宗煥	○	
28	呈養閒齋		○			養閒齋	○	
29	金陵使君宋公應圭見顧		○			宋應圭	○	○
30	贈李斯文秋成				○	李秋成	○	
31	贈鄭斯文				○	鄭斯文	○	
32	贈白荷長老				○	白荷長老	○	

33	贈文處士				○	文處士	○	
34	趙使君於去年秋遊影沈臺有詩要余和之追步其韻				○	趙使君	○	
35	次韻奉簡李裨將幕府				○	李裨將	○	

<표12> 『아암집』에서 본 사대부와의 교유시

	시제	형식				교유한 사대부	비고			
		5언		7언			연파 잉고	아암집		
		절구	율시	절구	율시					
1	奉簡籀翁三十韻		○			丁若鏞	○	○		
2	奉和籀翁坤卦六爻韻		○				○	○		
3	山居雜興 二十首			○			○	○		
4	次韻奉呈東泉旅舍二首		○					○		
5	長相思奉寄東泉							○		
6	答東泉八篇	書簡文							○	
7	次韻奉簡西山		○			丁學淵	○	○		
8	次韻奉簡靈巖使君趙公運永				○	趙運永	○	○		
9	答琴湖六篇	書簡文				尹琴湖		○		
10	奉簡黃庭李公台升		○			李台升		○		
11	趙平壤鎮明任駕相見贈余以詩奉和其韻并小序				○	趙鎮明	○	○		
12	答尹公潤六篇	書簡文				尹鍾河		○		
13	金承旨履度謫居靈巖數蒙問存聞有賜環之喜爲之就別副之以詩				○	金履度	○	○		
14	金陵使君宋公應圭見顧		○			宋應圭	○	○		
15	上黃正言	書簡文				黃基天		○		
16	簡寄務安宰徐公俊輔				○	徐俊輔		○		
17	上務安宰徐公	書簡文						○		
18	代大菴諸僧上務安宰徐公							○		
19	奉簡康津知縣趙公弘鎮									○

위 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연파와 교유한 사대부는 20여명에 달했으며, 교유시는 46편이나 된다. 이를 형식별로 나누면 5언율시와 7언율시가 대부분이고, 서간문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다. 영암에 유배 온 김이도(金履度), 강진 현감 송응규(宋應奎), 조홍진(趙弘鎭), 영암군수 조운영(趙運永) 등 양반사대부를 비롯하여 막부(幕府)의 비장(裨將) 및 강진의 지역인사들이 두루 포함되어 있는데, 대개 한 두 수 정도를 수창하고 있다. 그 중 다산과 수창한 시가 압도적으로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산

이 강진 보은산방에 거처하며 『주역』을 연찬(研鑽)할 당시 수창한 작품들로 보인다. 이때 연파는 다산과 토론하며 『주역』에 몰두하고 있었는데 「견흥 6수(遣興 六首)」, 「차운정탁옹(次韻呈籜翁)」, 「봉화탁옹곤괘육효운(奉和籜翁坤卦六爻韻)」 등이 모두 『주역』의 내용을 다룬 작품이다. 당시 보은산방에는 다산의 아들 유산(西山)¹⁴⁴과 읍중(邑中)의 제자 황상(黃裳)이 함께 머물러 있었는데 1805년 이들과 함께 두륜산을 유람하기도 했다. 다산일가에 대해서는 다른 장에서 설명하기로 하고, 여기에서는 일부 사대부들과의 교유시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아암집』 「답금호」 6편에 연파와 금호의 교유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글이 있다. 이 글은 연파가 금호에게 시를 받고 답을 한 서간문이다. 일부만 살펴보겠다.

아침에 일어나 참선을 마치고 곧 기쁜 마음으로 누각 위에서 차 한 잔을 마신 뒤 소주시(蘇州詩) 몇 편을 읽는 것 또한 산가에서나 있을 법한 말쑥한 일이다.

돌이켜 보면 세간의 영화와 명예, 이익과 녹봉이란 덧없는 것으로 흐르는 물과 같고 잠시 피었다 시들어 버리는 꽃과 같다. 이를 오래 음미할 수 없기에 이를 제2의 존재로 보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其二)¹⁴⁵

…… 보내온 서신에 “흔히 보는 꽃과 새들도 모두 선어(禪語)이다.”라는 구절은 참으로 귀중한 말씀이다.(其三)¹⁴⁶

금호는 다산의 외가 쪽 먼 친척이다. 나이는 다산보다 몇 살 어려 다산의 서울 시절부터 형님 아우하며 가깝게 지내던 사이였다. 그렇다면 다산의 소개로 알게 된 사이가 아닌가 싶다. 위 글에서는 연파가 차를 마시면서 한가롭고 시를 읽을 수 있는 즐거움을 누리는 승려의 삶을 읊은 것이다. 그는 세속의 욕심을 흐르는 물이나 시들어 지는 꽃으로 비유하면서 꼬집었다. 금호의 편지를 보배구슬처럼 여기어 손에서 놓지 못함은 연파와 금호의 교유관계가 얼마나 깊었는지를 알 수 있게 한다.

이어서 보게 될 이태승과의 교유시에 앞서 연파가 이태승에게 쓴 「장춘동 잡흥을 이태승에게 드림(長春洞雜興呈李使君台升十二首)」라는 12수 중 제8수 「석여금호유차안(昔與琴湖游此岸)」에는 그가 예전에 금호와 함께 이 기슭에서 같이 놀았던 추억을 적

144) 유산(西山) : 정학연(丁學淵 1783-1859)을 말한다. 다산의 아들로 학식이 뛰어나고 시를 잘 지었다.

시집으로 『삼창관집(三倉館集)』이 남아 있다.

145) 朝起參禪了 便起坐快閣上 啜佳茗一碗 吟蘇州詩數篇 亦自山家清事 回念世間榮名祿利 忽忽如水流 花樹不堪把玩 未妨眠之爲第二月耳.

146) 是禪宗悟境來喻 尋常花鳥皆禪語 洵足珍也.

고 있다. 예전이라 함은 언제인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상당히 오래 전부터 그가 금호와 교유를 해왔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한편 금호는 연담과도 친교를 맺고 있음에서 어찌면 연담의 소개로 금호와 친교를 맺은 것인지도 모를 일이다. 그 문제는 차치하고 연담의 시집인 『임하록』 권1의 금호와 관련된 시에 「차운금호운면래운(次尹琴湖尹沔來韻)」, 「사금호래방 2수(謝琴湖來訪二首)」, 「차금호30운배률(次琴湖三十韻排律)」, 「차운금호견기(次尹琴湖見寄)」, 「차운금호 4수(次尹琴湖四首)」, 「사금호래방(謝琴湖來訪)」 등이 보인다. 특히 「사금호래방」을 보면 연담과 금호가 매우 절친한 시우(詩友)였음을 알 수 있다.

滿山春色好誰看
却喜吟筇來扣關
虛室月隨君共到
幽林雲與我俱閑
燈花細墜香爐上
詩軸交排几席間
一宿蒲團歸去後
令人愁對碧展顏

봄빛은 산에 가득한데 누구와 볼까 했는데
문득 시객이 빗장을 두드리네.
빈 방에 달은 그대와 함께 이르고
숲 속의 구름 나와 함께 한가하네.
등불은 향로 위를 비추고
시축은 함께 책상 앞에 뒹도다.
절에서 한번 자고 떠나간 뒤에
나로 하여금 푸른 눈의 얼굴을 대하기 어렵게 하네.(其一)¹⁴⁷⁾

금호는 연담이 시객이라고 부를 만큼 시에 조예가 깊었던 사람이었다. 위 시는 두 사람이 서로 대화하듯이 시를 주고받은 정황이 묘사되어 있다. 연담은 금호의 문장이 빼어나서 자신의 문장에 비할 수가 없다면서 그를 칭찬하고 있다. 이를 통해 두 사람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교유시를 주고받았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황정 이태승(黃庭 李台升, ?-?)과 교유를 보자. 그에 관한 자료는 거의 전무하다. 다만 『정월대사시집』의 발문¹⁴⁸⁾을 써준 사실과 조인영(趙寅永, 1782-1850)의 시문집인 『운석유고(雲石遺稿)』에 황정 이태승과 관련된 글 「이황정 야지(李黃庭 夜至)」, 「과이황정두신(過李黃庭斗臣)」, 「차이황정운(次李黃庭韻)」이 수록되어 있는 것이 전부라고 할 정도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다산이 형 정약전에게 보낸 「상중씨(上仲氏)」¹⁴⁹⁾와 동일한 내용이 「아암화상만사(兒庵和尚輓詞)」에도 등장한다.¹⁵⁰⁾ 여기에는 “진도(珍島)의 감목관(監牧官) 이태승은 이서표(李瑞彪)의 아들인데 한번 만나서는 곧 벗이

147) 『蓮潭大師林下錄』 卷一, 「謝琴湖來訪」.

148) 正訓, 『정월대사시집』 「澄月詩集跋」, 「壬辰春黃庭李台升題」

149) 『다산시문집』 20권, 「上仲氏辛未冬」, “養馬箱中酒百壺. 珍島監牧官李台升. 卽李瑞彪之子. 一見與之爲友. 痛飲窮日夕.”

150) 『兒庵集』 附錄.

되어 밤낮으로 싫도록 술을 마셨다.”라는 것에서 겨우 이서표의 아들임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연파가 어떻게 해서 황정을 알게 되었는지 그 정황이 궁금하다. 다산의 소개였을까 아니면 다산도 연파를 통해 알게 되었는지 알 수 없다. 또 「연파대사숙혜직소」에 “화원감목관(花源監牧官, 화원은 지금의 해남 화원면) 이황정 태승이 연파와 더불어 물외에서 시주(詩酒)의 사귀를 맺었다. 경성으로 돌아와서, 친신(薦紳) 간에 칭찬하니 마침내 이름이 중국에까지 도달했다.”는 언급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태승은 연파와 시를 주고받던 술친구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연파잉고』에는 연파가 태승에게 남긴 「장춘동잡흥정이사군태승」 12수가 있고, 『아암집』에는 「봉간황정이공태승」이 있어 그와 교류한 시를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 두 사람의 교류 양상을 언급한 문헌은 없는 것 같다. 무엇보다도 연파가 이태승에게 보낸 「장춘동 잡시」 12수 중 끝수는 그 유명한 백수시가 소개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연파와 추사관련 부분에서 자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무안현감 서준보(徐俊輔, 1770-1856)와의 교류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 그는 순조 때의 문신으로 본관은 달성(達城)이고 자는 치수(稹秀), 호는 죽파(竹坡), 시호는 문정(文貞)이며, 홍문관 대제학 등을 지냈다. 관찰사 명구(命九)의 증손으로 아버지는 이조판서 유방(有防)인데, 유방의 형인 유린(有隣)¹⁵¹이 아들이 없어 큰아버지인 유린에게 입양되었다. 아버지 서유린(徐有隣, 1738-1802)이 「표충사기적비(表忠祠紀蹟碑)」의 명문을 작성한 것이 계기가 되어 대문사와 인연을 가지게 되었으며, 그 곳 승려들과도 인연을 맺게 된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이런 과정을 거쳐 준보는 연파와 인연을 맺은 듯한데 연파가 「무안현감 서준보에게 보내는 편지(簡寄務安宰徐公俊輔)」에서 그의 문명을 다음과 같이 칭찬하고 있다.

謝家池上鳳毛良

사(謝)씨 집안¹⁵² 지상(池上)¹⁵³에서 봉모(鳳毛)¹⁵⁴가 뛰어나

151) 조선조 21대 영조 때의 문신, 자는 원덕(元德), 본은 달성이다. 정조 14년(1790) 왕명으로 『증수무원록(增修無冤錄)』을 국역하였으며, 글씨를 잘 썼음. 시호는 문헌(文獻)이다.

152) 원래는 사령운(謝靈運)이 회계(會稽)에 아름다운 별장을 지은 데서 연유하여 귀인의 별장이란 의미로 쓰인다. 사령운의 뒤를 이어 그의 손자 사초종(謝招宗)도 또한 시문으로 일가를 이룬 데서 대대로 문명이 있는 집안이란 의미로 쓰인다. 여기에서는 서준보의 부친이 문장을 잘하였는데, 그의 아들 서유린도 서산대사의 「표충사기적비」를 지었으므로 글을 잘하는 서준보의 집안을 비유한 것이다.

153) 봉황지(鳳凰池)의 준말로 천자의 조고(詔誥)와 제칙(帝勅)을 담당하는 중서성을 지칭한다. 두보가 가지(賈至, 718-772)에게 화답한 시 「봉화가지사인조조대명궁(奉和賈至舍人早朝大明宮)」에서 따왔다. 이 시는 「이른 아침에 대명궁에 입조하다(早朝大明宮)」라는 시를 가지가 두보에게 보내자 이에 두보가 화답한 시이다. 이 시에서 두보는 사령운과 사초종의 고사를 인용하여 개원 초에 가증(賈曾)이 중서사인

佩玉鳴鸞舊擅場
 中歲田廬持苦節
 他年饗席賦甘棠
 春城竹密官居靜
 小縣花深客夢香
 欲識啞羊禪坐處
 靑山筍蕨是吾鄉

관리들의 패옥과 명란(鳴鸞)을 예부터 독차지하였네.
 중년에는 초야에 묻혀 굳은 절개를 지키기도 하고
 어느 땐가 술자리에서 감당(甘棠)¹⁵⁵⁾ 시를 짓기도 하였네.
 봄 성의 뻑뻑한 대밭에 관리의 거처 고요하고
 작은 고을의 무성한 꽃 나그네 마음 가뻑하네.
 이 못난 화상이 좌선하는 곳을 알고자 하는가?
 죽순과 고사리 나는 청산이 바로 내 고향일세.¹⁵⁶⁾

또한 「상무안재서공준보(上務安宰徐公俊輔)」에서 연과 자신은 “보잘 것 없는 재질과 실속 없는 껍데기만 지녀 어려서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다가 커서 머리 깎고 가사를 입고서 불경을 배워 대승에 귀의 하였더니, 쓴살같이 흘러간 세월이 어느덧 30년이 되었다.”고 하면서 연과 자신이 출가 이유와 세월의 덧없음을 회고하고 있다. 또 어렸을 때 연담을 섬기며 『화엄경』의 비밀스런 종지를 배웠고, 중간에는 정암노사의 조실에서 향을 사르고 법맥을 이어받았다. 그는 두 승려(연담과 정암)의 지혜와 고행이 출중하여 모두 불가의 수장이 되고 불문의 스승이 될 만한 분들이라고 칭송하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서준보가 남으로 행차한다는 소식을 듣고 연과는 그를 문안을 하러 갔다는 얘기와 표충사 기적시를 부탁했다는 내용도 언급되고 있다.¹⁵⁷⁾ 그 외에 「대대둔제승상무안재서공(代大菴諸僧上務安宰徐公)」¹⁵⁸⁾에 서준보에 대한 언급이 있다.

또 본관은 풍양(豊壤), 자 관보(寬甫), 호 창암(窓巖)인 조홍진(趙弘鎭, 1743-1821)과의 교유도 시가 눈에 띈다. 조홍진은 1808년에 동지부사가 되어 중국에 다녀오기도 했는데 강진현감으로 있을 때 그에게 보낸 편지 「봉간강진지현조공홍진 득어구고중록지(奉簡康津知縣趙公弘鎭 得於舊藁中錄之)」에는 다음과 같이 그의 시재를 칭찬하고 있다.

清朝揀選仗孤癩

깨끗한 조정에 발탁되어 공경이 되어

(中書舍人)이 되었는데 그의 아들 가지도 중서사인이 되자 이를 칭찬하고 있다. 이 시 끝 구절에서 “세 세로 조서(詔書)를 담당하는 아름다운 경사를 알고자 하는가. 지금도 지상(池上)엔 봉모가 있다네(欲知世掌絲綸美 池上于今有鳳毛).”라고 하였다.

154) 자식의 문장이 부형(父兄)에 뒤지지 않음을 칭송하여 이르는 말. 『남제서(南齊書)』 「사초종진(謝招宗傳)」에 “신안왕의 어머니 은숙의가 죽자 초종이 뇌가를 지어 바치니, 황제가 크게 찬탄하여 칭찬하기를, ‘초종이 특별히 봉모(鳳毛)가 있으니, 사령운이 다시 태어난 것 같다’고 하였다”는 구절에서 처음 보인다.

155) 백성들이 소공의 선정에 감동하여 읊은 시로 『시경』, 「소남」에 보인다. “무성한 팔배나무를 자르지도 말고 베지도 말라. 소백이 초막으로 삼으셨던 곳 이니라.”

156) 『아암유집』 권1, 「簡寄務安宰徐公俊輔」.

157) 『아암유집』 권2, 「上務安宰徐公俊輔」.

158) 『아암유집』 권2, 「代大菴諸僧上務安宰徐公」.

分竹金陵翊聖明
東閣閒情吟月色
南樓逸興聽潮聲
文章正繼蘇黃跡
風化應傳召杜名
却恨山僧非惠遠
未能蓮杜結幽盟

금릉에서 분죽 하여 왕을 돕네.
동쪽 누각에서 한가한 마음으로 달빛을 노래하고
남쪽 누대에서 흥겨운 정취로 파도 소리 듣노라.
문장은 소동파와 황정건의 자취 이었으니
백성의 교화는 소공(召公), 두여매(杜如晦)의 명성 전하리라.
산승은 혜원만 못하기에
백련사에서 깊은 맹약 맺지 못함 한하노라.¹⁵⁹⁾

연파는 조홍진의 문장과 글씨가 출중하여 거장인 소동파와 황정건에 비유할 수 있고, 백성의 교화는 주대(周代) 소공(召公)과 당대(唐代)의 두여회(杜如晦)와 견줄만하다고 치켜세운다. 소공은 전한 때의 양리(良吏)였고 두여회는 후한 때의 양리였는데, 두 사람 모두 남양 태수(南陽太守)가 되어 백성을 자식같이 사랑하며, 선정을 베풀어 백성들의 이익과 부를 위해 힘쓴 인물이다.¹⁶⁰⁾

김종환(金宗煥, ?-?) 역시 생애를 소개한 자료가 없다. 1811년 2월 4일 가리포의 침사가 늦은 밤 대둔사에 들어와 횃불을 들고 창고에 들어갔다가 불씨가 떨어져 대둔사를 불태운 화재사건이 발생했던 적이 있다. 그 당시 가리포 침사를 지낸 사람이 바로 이 김종환이 아닐까 하는 추정은 아래에 소개할 시에서 그 근거를 찾고 있다. 가허루 아래에서 일어난 이 화재로 인하여 가허루는 물론 천불전, 대장전, 용화당, 팔해당, 적조당, 지장전, 약사전, 향로전 등 아홉 동의 요사채가 하룻밤 사이에 잿더미로 변하였다. 다음해 완호(玩虎)는 불탄 천불전 재건을 위해 손수 권선문을 짓고, 인봉 덕준(仁峰 德俊), 풍계 현정(楓溪 賢正), 호의 등은 11월 16일 경주에서 천불을 배에 싣고 대둔사로 향하다가 동래 오류도 인근 해상에서 풍랑을 만나 11일 동안 표류하다가 일본 장기도(長崎島) 축전주(筑前州)에 표착했다. 이 배는 이듬해 6월 17일에야 일본을 떠나 7월 14일 대둔사로 돌아왔다. 천불 중 일본에 표류되었던 석불은 모두 밑바닥에 ‘일(日)’ 자를 표시하였다.¹⁶¹⁾

연파는 가리포 절제 김종환에게 『증가리포절제김공종환(贈加里浦節制金公宗煥)』이라는 시를 지어주었다.

旅館相逢破寂寥
繫舟灘石共逍遙
秋深古島山容瘦

여관에서 서로 만나 적료함 깨뜨리고
여울 바위 배를 매고 함께 소요 했었네.
가을 깊은 옛 섬에 산 모습 수척하고

159) 『다산학단 문헌집성』 二, 「奉簡康津知縣趙公弘鎮 得於舊藁中錄之」.

160) 『다산시문집』 13권, 서(序).

161) 풍계현정, 김상현 옮김, 『일본표해록』, 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2010.

風積平湖水勢饒
已具茶湯遲半日
更將燈燭話中宵
殘經見解元無實
慚愧多年但問橋¹⁶²⁾

바람 많은 평호에는 물의 형세 넉넉하다.
다탕(茶湯)을 갖춰 놓고 만나질을 더디 놀다
다시금 등촉 밝혀 한밤까지 얘기하네.
잔경(殘經) 대한 견해는 애초에 실이 없어
여러 해를 가는 길만 묻고 있음 부끄럽다.¹⁶³⁾

연과가 김종환과 만나 포구의 가을 풍광을 바라보면서 노닐 하루 일을 적은 내용이다. 두 사람은 경련(頸聯)에서 다탕(茶湯)을 갖추고 잔경(殘經)에 대한 해석을 놓고 한 밤까지 대화를 나누고 있다.¹⁶⁴⁾ 두 사람이 끝도 없이 경전 이야기로 밤을 지새웠다는 것은 그들의 교유 정도를 짐작할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마지막으로 황태룡(黃泰龍, 1745-1821)과의 교유를 살펴본다. 그의 자는 계형(季兄), 호가 취몽재(醉夢齋), 또 다른 호는 석수(石叟)이다. 다산은 흑산도에 유배중인 그의 형을 생각하며 보은산에 오를 때 황태룡의 안내를 받기도 하였다. 이런 인연으로 다산은 그에게 「취몽재기」를 지어주기도 하였다. 황태룡은 성품과 자태가 온화하고 의젓하였으며, 재능과 기예가 출중한 인물이었다. 다산의 제자 황지초의 아버지인 황승룡과 백부 황진룡, 계부 황태룡 3형제의 시집인 『황씨체화집(黃氏棣華集)』은 3권 1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로 강진 지역의 풍광과 풍물을 노래한 것이다. 이는 황씨 집안이 다산의 강학 이전부터 이 지역에서 문장가 집안이었음을 의미한다.

연과와의 교유는 황태룡이 다산과 함께 백련사를 방문한 이후부터 이루어졌다. 은거하고 있던 황태룡의 편지를 받고 답한 시가 「봉간황일인태룡(奉簡黃逸人泰龍)」인데, 이 시에서 연과는 다음과 같이 추억하고 있다.

憶昨相逢祇樹林
一宵聯被許交深
已聞筆陣驚人眼
忽見詩篇豁我心
塵路浮名都幻夢
丘園逸興足閑吟
安排苟可如莊叟
不恨寔區久陸沈

옛적에 절간에서 만났던 생각하니
하룻밤 잠자리에 교분이 깊었도다.
필진을 듣고서는 사람 눈 등그렁고
시편을 살피고는 내 가슴 띄었도다.
먼지 길 헛된 명성 다 아련한 꿈이요
동산 숲 멧진 흥치 한가히 읊을만해.
안배하면 실로 장자와 같으리니
세상에 은거함을 한탄말지로다.¹⁶⁵⁾

162) 『다산학단 문헌집성』 二, 「贈加里浦節制金公宗煥」.

163) 정민(c), 위의 책, p. 183.

164) 『艸衣詩藁』, 권1, 「水鍾寺次石屋和尚十二首」는 수종사에서 초의가 지은 시인데 이 시에 다음과 같이 殘經이 나온다. “꿈에서 깨어났는데 누가 나서 산차를 줄까 / 깨울리 경전 권 채 눈땀을 씻는다네.(夢回誰進仰山茶 / 懶把殘經洗眼花.”

널리 알려진 것처럼 황태룡은 다산이 연파를 방문하기 위해 백련사에 갔을 때 동행했던 인물인데 연파는 그 때의 추억을 생각한다. 시의 미련(尾聯)에 세상에 은거함을 한탄하지 말라는 내용으로 보아 만남 이후 바로 은거의 삶을 살았던 것 같다. 자연히 두 사람의 교유는 뜸했을 것이다. 다행하게 황태룡이 먼저 시를 보내오자 가슴이 트이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보낸 연파의 답시이다.

이상에서 연파 이전의 차문화, 연파의 차생활, 그리고 연파의 교유시를 대략적이거나 차례로 살펴보았다. 조선시대 유불의 갈등·대립도 결국 임란 때 불교계의 승병활동으로 점차 무너지게 된 것이다. 이후 서산의 의발이 대둔사에 전해지면서 마침내 대둔사는 조선불교의 종원(宗院)으로 격상된다. 대둔사의 이러한 도약은 조선후기 불교의 도약이요, 승려들의 수행이나 삶의 영역에까지 그 영향이 미치게 된다. 그 대표적인 것이 유불의 교유요, 그런 교유의 매개가 바로 시요, 차였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조선후기 차문화의 저변을 확장시킨 대표적 인물이 바로 연파라는 점을 이 장에서 드러내고자 하였다. 특히 차시(茶詩)는 그러한 유불 교유의 산물이면서 동시에 차문화의 배경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던 점을 부각시키고자 하였던 것이다.

165) 『다산학단 문헌집성』 二, 「奉簡黃逸人泰龍」.

IV. 연파가 차문화에 끼친 영향

1. 차문화의 중흥과 확산

오랜 세월 동안 침체기를 맞이했던 조선의 차문화는 연파와 다산의 만남에 의해 다시 발전하였고, 이들의 교유는 초의와 추사의 교유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조선 후기 차문화의 중흥과 확산을 의미한다. 다산과 추사를 비롯한 당대의 수많은 사대부 지식인들이 대둔사를 거점으로 승려들과 지적 교류를 확대해 나가는데, 이는 대둔사가 직면한 당시의 지정학적 인과관계에 따른 특성으로 유·불 교류의 중심지, 차문화 중흥의 중심지로 발전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1) 차문화의 중흥과 다산

연파와 다산이 처음 만났을 때 연파는 34세, 다산은 44세였다. 다산은 1801년에 신유사옥(辛酉邪獄)과 황사영백서(黃嗣永帛書) 사건에 연루되어 강진으로 유배되어 18년 동안 살았다. 두 사람은 1805년 첫 만남 이후 시문과 서간을 주고받으며, 1811년 연파가 세상을 뜨기 전까지 애뜻한 마음을 나누는 교유를 지속해 왔다. 그들의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보다 훨씬 범위가 넓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는데, 특히 서로 주고받은 시문과 서간을 살펴보면 유·불의 학연을 더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 다른 매개체는 차였다. 연파는 대둔사 차밭에서 차나무를 직접 기르고 살면서 많은 차시를 남겼고, 다산에게 사원의 차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뿐만 아니라 그 문화까지도 이해할 수 있게 하였다.

연파를 통해 맛 본 차는 답답한 가슴을 진정시켜 주는 좋은 약이기도 했고, 다산으로 하여금 새롭게 정신을 가다듬고 학문에 몰두 할 수 있게 하는 활력소가 되기도 하였다. 그는 차가 떨어지면 주저하지 않고 연파에게 차를 구했는데, 이런 다산의 「결명소(乞茗疏)」는 초의의 「동다송」에 까지 인용될 정도였다. 연파 입적 이후에도 다산은 전등계(傳燈契)란 이름으로 연파의 제자 및 일부 대둔사 승려들과의 인연을 이어나갔다. 이들 승려들과의 사제 관계는 단순히 개별적인 학습에 머물지 않고 그들과의 공동 작업을 통해 『대둔사지(大菴寺志)』와 『만덕사지(萬德寺志)』와 같은 사찰 역사서를 편

찬하기도 하였다. 이런 사지류(寺志類)들은 불교사는 물론 불교문학, 미술사, 문화재의 보존과 조사, 사원경제사와 같이 다양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때문에 한국불교사 연구에서 사지는 사료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¹⁶⁶⁾ 특히 『만덕사지』의 찬술에는 6명의 찬자가 참여하는데, 이 가운데 다산은 각 권의 감정을 맡았다. 사지의 내용에 대한 고증작업을 맡아서 진행하였던 것이다. 『만덕사지』는 다산이 이들 전등계의 승려들과 나누었던 폭넓은 교유의 산물이었다.¹⁶⁷⁾

다산은 언제부터 불교와 인연을 맺었을까? 다산의 시문집에는 유년 시절부터 유배 이후 만년의 시기까지 총 8종 107건의 불교관계 시문이 수록되어 있다. 사찰주변의 자연경관을 예찬한 글이 대부분이나, 독서의 장소, 당시 불교계의 피폐상이나 폐단 등과 같은 불교계의 동향이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었다.¹⁶⁸⁾ 다산과 불교의 인연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문헌상으로 처음 등장하는 「동림사독서기(東林寺讀書記)」를 통해 대략적인 이해는 가능하다.

…… 밤이면 중이 계송(偈頌, 외우기 쉽게 구(句)로 나누어 부처의 공덕을 찬양하는 노래)을 읊고 불경(佛經)을 외는 소리를 듣다가 다시 책을 읽는다. 이렇게 하기를 40일 동안 하고는 내가 말하기를,

“중이 중노릇을 하는 이유를 내가 지금 알았습니다. 대저 부모 형제 처자의 즐거움이 없고, 술 마시고 고기 먹고 음탕한 소리와 아름다운 여색(女色)의 즐거움이 없는데, 저들은 어찌하여 고통스럽게도 중노릇을 합니까. 진실로 그와 바꿀 수 있는 즐거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형제가 학문을 한 지 이미 여러 해 되었는데, 일찍이 동림사(東林寺)에서 맞본 것 같은 즐거움이 또 있었습니까?”하였더니, 둘째 형님도 이렇게 말하였다.

“그렇다. 그것이 중노릇하는 까닭일 것이다.”¹⁶⁹⁾

화순 만연사(萬淵寺)에 부속된 자그마한 암자인 동림사에서 친형 정약전과 함께 머물면서 자신들의 학문을 열심히 닦는 것을 사찰의 중노릇과 견주어 본 것이다. 당시 17세였던 다산은 부친 정재원(丁載遠)이 1777년 화순현감으로 부임할 때 부친을 따라 화순에 함께 왔는데, 이때 중요한 사실의 하나는 1778년 무렵 화순 만연사에 주석하고 있던 연담 유일(蓮潭 有一)과 만남을 가졌다는 것이다. 이때 다산은 연담에게 「증유일

166) 오경후, 「朝鮮後期 『萬德寺志』의 撰述과 性格」, 『역사민속학』 제28호, 2008, p. 79.

167) 오경후, 위의 논문, p. 85.

168) 오경후, 「朝鮮後期 僧傳과 寺誌의 編纂 研究」,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p. 48.

169) 정약용, 『다산시문집』 13권, “夜則聽偈語經聲。隨復讀書。如是者凡四十日。余曰僧之爲僧。吾乃今知之矣。夫無父母兄弟妻子之樂。無飲酒食肉淫聲美色之娛。彼何苦爲僧哉。誠有以易此者也。吾兄弟游學已數年。嘗有如東林之樂乎。仲氏曰然。彼其所以爲僧也夫。”

상인(贈有一上人)」, 「지리산승가시유일(智異山僧歌示有一)」이라는 시를 지어주기도 했다.

다산의 강진생활은 어떠했을까. 자신이 직접 술회한 내용이 「다신계절목(茶信契節目)」에 잘 나타나 있다.

내가 가정 신유년(1801) 겨울에 강진으로 귀양 와서 동문 밖 술집에 붙어살았다. 을축년(1805) 겨울에는 보은산방에서 지냈다. 병인년(1806) 가을에는 이학래의 집에 이사해서 살았고, 무진년(1808) 봄에 비로소 다산에서 살게 됐다. 따져보니 귀양살이가 도합 18년인데, 읍내에서 산 것이 8년이고 다산에서 산 것이 11년이다.¹⁷⁰⁾

다산이 강진에 처음 유배를 와서 마땅히 지낼 곳을 찾지 못해 주막집에 거처를 정하고 있었다. 1808년 다산초당에 정착하기 전까지 여러 번 거처를 옮겨 다니면서 유배생활을 하고 있었다. 1805년 4월 17일 다산은 연파가 주석하고 있던 백련사로 갔다가 그를 만나게 되어 그해 겨울을 고성사 보은산방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한 사람이 연파였다. 그 이전부터 다산은 대둔사에서 새로 부임한 백련사 주지의 공부가 대단한데 자기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소문을 들었다. 다산이 연파가 주석하고 있는 백련사 방문을 술회한 내용을 담고 있는 「사월십칠일유백련사(四月十七日游白蓮寺)」라는 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首夏多芳樹
葳蕤繞縣城
濃妍晴後色
悽切客中情
緩步當高馬
孤吟和晚鶯
漸登山豁處
雲海儘堪驚
衰倦依筇杖
崎嶇到寺門
谷虛常翠潤
山合易黃昏
灑水臨泉眼
看雲坐樹根
祗應潮信近

초여름 많은 꽃다운 나무들이
치렁치렁 고을 성을 둘러 있네.
진하게 고운 빛 비 갠 뒤에 그렇고
처절한 것은 나그네 심정이로세.
천천히 걸으면 말 타나 일반이고
외롭게 읊조려 꾀꼬리 노래 화답하지.
점점 더 넓은 골짜기에 올랐더니
구름바다가 참으로 놀랍게 펼쳐 있네.
지친 몸 지팡이에 의지하고
천신만고 절 문간에 당도했네.
골이 비어 늘 푸르른 윤이 나고
산이 둘러 쉬 황혼이 된다네.
물을 뜨러 샘물 눈을 찾고
구름 보며 나무뿌리에 앉았다네.
아마도 밀물 때가 가까워오는지

170) 정민(a), 위의 책, p. 54.

空外有遙喧

창공 밖에 시끌벅적한 소리 들리네.¹⁷¹⁾

위 시는 다산이 백련사를 방문하는 과정을 기술하였다. 백련사의 풍경과 함께 자신이 처한 상황과 건강이 좋지 않음을 언급하고 있다. 동행자가 나와 있지 않아 다산 혼자 백련사를 찾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근래에 공개된 황수홍씨 소장 『황씨체화집(黃氏棣華集)』 권3의 「사월십칠일동탁옹유백련사방혜장상인(四月十七日同籜翁遊白蓮社訪惠藏上人)」에는 그렇지 않다. 여기에는 다산이 황태룡과 함께 4월 17일에 연파를 방문한 것으로 되어있다. 『황씨체화집』은 “창원 황씨 15세인 대은당, 함재, 석수 3형제의 필사본 시집으로 3권 1책이다. 권1은 대은당 황진룡(大隱堂 黃震龍, 字 伯亨)의 시(詩) 58편, 권2는 함재 황승룡(頴齋 黃升龍 1735-1805, 字 仲亨)의 시 27편, 권3은 석수 황태룡(石叟 黃泰龍, 1745-1821, 字 季亨, 號 醉夢齋)의 시 35편을 합책(合冊)한 것이다.”¹⁷²⁾ 관련 내용을 살펴보자.

.....

忽聞廬山釋
復此生東國
妙齡藹聲譽
空門多氣色
貝葉匪所珍
義繇已通熟
我欲觀基人
遂至蓮寺北
聽言若凌河
令我洗胸臆
辭氣頗踈放
任眞誰相通
玄理指諸掌
不啻分白黑
鉢花五百年
子道生羽翼
清談散珠屑
塵襟破柴棘
前程有上乘
願子且努力

홀연 듣기에 여산의 부처님이
다시 이 땅 동국에 오셨다고 하네.
그의 명성이 크게 울려 퍼져서
불가에서 다 놀라워하고 있다 하네.
그에게 경전은 진기한 것이 아니고
중국의 고전을 다 통달해버렸다 하네.
내가 그를 만나고자 하여
마침내 백련사 북쪽에 이르게 되었네.
말하는 것이 마치 강을 사뿐히 건너는 것과 같고
내 가슴의 생각들을 깨끗이 씻어주네.
말의 기운이 혹 트여 있는데
진리에 임하여 누구와 서로 통할 것인가!
현리(玄理)를 손바닥 가리키듯 하고
백과 흑을 뚜렷이 구분해줄 뿐이 아니네.
우담발화처럼 오백년에 나오는 큰 성인이 나왔으니
그의 도가 온전한 성취 이루었네.
고담준론에 염주의 먼지 흩날리고
소매 자락의 먼지가 잡풀들을 쓸어버리네.
바로 앞길에 상승(上乘)이 있으니
원하옵건대 더욱 노력하여 크게 성취하소서.¹⁷³⁾

171) 정약용, 『다산시문집』 5권, 「四月十七日游白蓮寺」.

172) <http://www.gooul.kr/>, 양광식 글 요약 발췌.

173) 『황씨체화집』 권3, 「四月十七日同籜翁遊白蓮社訪惠藏上人」.

황대룡은 연파가 중국 남방 불교의 중심지인 ‘여산의 부처님(여산의 스님 慧遠, 334-416)으로 칭송되고, 또 중국고전을 통달할 정도로 박학다식한 연파를 한번 만나보고자 다산과 동행했던 것 같다. 그는 연파와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과연 명성대로 명승(名僧)임을 확인하고 우담발화에 비유해서 오백 년 만에 나올까 말까하는 고승이라고 그를 칭송하고 있다.

다산은 겨울을 나기 훨씬 전인 봄에 고성사로 놀러 갔다. 을축년(1805) 봄 강진에 있으면서 보은산방으로 놀러갔던 내용을 「춘일유보은산방(春日遊寶恩山房)」에 담고 있다.

藥苗經雨	약초 싹은 비를 맞아 깨끗하고
榆莢受春深	느릅나무 꼬투리는 봄이 짙어 보이네.
旅食驚時物	철 물건을 보니 나그네 눈이 번쩍
禪樓散客心	절간 찾아 외로운 마음 달래보네.
一公詩句在	일공의 시가 붙어 있어
凭檻有遙吟	난간 기대고 이렇게 읊조린 다네.
余舊與釋有一游	중 유일(有一)과 옛날 놀았었는데
今見詩在壁	지금 보니 그의 시가 벽에 붙어 있었다. ¹⁷⁴⁾

위 시에서 일공(一公)은 연담을 지칭한 말이다. 다산은 연담을 이미 화순에서 만난 적이 있기 때문에 연담의 시가 무척 반가웠다는 것이다.

최근 공개된 다산의 제자 황상(1788-1870)의 『치원소고(柅園小藁)』 권1에는 이런 일도 있었다. 「여철선선사서(與鐵船禪師書)」가 그것인데 “예전 계해(1803)와 갑자(1804)의 사이에 연파가 백련사에서 제자를 가르치고 있었다. 다산께서는 나(황상)로 하여금 본원에서 경사공부를 하면서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살펴보게 하시고, 마침내 그를 인정하셨다. 이후로 중병(宗炳)과 혜원(慧遠), 육우와 교연(皎然)의 사이처럼 되어 시로써 그를 이끌고, 주역으로 서로 교통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다.¹⁷⁵⁾ 다산이 연파를 찾아가기 전에 먼저 제자 황상을 보내 그의 근량을 점검했음을 알 수 있다.

또 「갑자계동전산지만덕사유고려혜일선사시왈(甲子季冬傳山至萬德寺有高麗慧日禪師詩曰)」에는 1804년 12월에 연파가 만덕사로 옮겨갔을 때 그곳에는 고려 혜일선사의 시를 접했다고 기술되어 있다.¹⁷⁶⁾ 황상은 계해와 갑자 사이라고 했고, 연파가 만덕사로

174) 『다산시문집』 5권, 「春日遊寶恩山房」.

175) 정민, 「다산 逸文을 통해본 승려와의 교유와 강학」, 『한국한문학회연구』 제50집, 2012, p. 112.

176) 『다산학단 문헌집성』 二.

옳긴 시기가 이 시로 볼 때 갑자년 12월로 보이는데 증빙할 문건이 없어 확인할 수 없다.

한편 다산이 초당에 정착한 이후 대둔사 승려들의 왕래도 빈번했다. 다산은 초의를 비롯하여 수룡, 기어, 철경, 법훈 등 승려 제자들을 두고 있었는데, 초의를 제외한 나머지 승려들은 모두 연파의 제자였다. 이는 나중에 전등계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입춘이 지난 사흘 후 내가 보은 산방에 있었는데 혜장이 지나다가 찾아주었다. 조금 내리던 눈도 개고 산의 밤이 맑고 고요하여 장난삼아 연구(聯句)를 읊어 이 사실을 기록으로 남겼는데, 학가(學稼)도 한축 끼었다. (立春後三日 余在寶恩山房 藏上人見過 小雪初霽山夜清寂 戲爲聯句以述其事 學稼與焉)」

鑿跡在山阿 不受塵勞侵 - 籟翁 -	자취를 숨기고 산에 있노라니 세상 먼지가 침노하지 않는군.
--------------------------	-------------------------------------

雪後春意早 習習風在林 - 惠藏 -	눈 뒤에 봄이 금방 오려는지 솔솔 바람이 숲에서 부네.
--------------------------	-----------------------------------

活泉已磻奧 柔雲復城陰 - 學稼 -	솟는 샘이 시냇물 깊게 만들고 솨털 구름에 성은 그늘이 졌네.
--------------------------	---------------------------------------

每因蜀才易 緬懷思聰 ¹⁷⁷⁾ 琴	번번이 촉재역으로 인하여 옛 사충의 거문고가 생각난다네. ¹⁷⁸⁾
--	--

위 시에는 다산, 혜장, 학가 세 명이 등장한다. 하지만 연파의 문집인 『연파잉고』에는 「병인세입춘후삼일을축십이월과보은방소설초제산야청적념운연구이술기사(丙寅歲立春後三日乙丑十二月過寶恩房小雪初霽山夜清寂拈韻聯句以述其事)」의 시제로 황상까지 네 명의 이름이 등장한다. 정학연의 문집인 『삼창관집(三倉館集)』에 수록된 「입춘후삼일배가군재보은산방소설초제산야청적념운연구장상인황상해언(立春後三日陪家君在寶恩

177) 송(宋) 나라 승려. 7세 때 이미 거문고를 잘 탔고, 12세가 되어서는 거문고를 놓고 서(書)를 배우다가 15세 때는 많은 기어(奇語)를 남겼다. 『新續高僧傳』 卷4 十二.

178) 정약용, 『다산시문집』 5권, 「立春後三日 余在寶恩山房 藏上人見過 小雪初霽山夜清寂 戲爲聯句以述其事 學稼與焉」.

山房小雪初霽山夜清寂拈韻聯句藏上人黃裳偕焉」(1805)에는 황상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가는 다산의 큰아들 정학연인데 연파와 시를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다. 학가가 연파에게 보낸 「기연파법사혜장(寄煙波法師惠藏)」에는 다음과 같이 기술이 보인다.

藏公釋門英	장공(藏公)은 불가의 영웅이시니
高標似僊鶴	고상한 그 자태 선학(仙鶴)과 같네.
卓犖離淖澗	우뚝이 지든 속세 훌쩍 떠나서
窈窕守邱壑	해맑게 산골을 지키며 사네. ¹⁷⁹⁾

이 시에서 학가는 다산으로부터 이미 연파에 대해 들어서 알고 있었으며, 연파를 뵈고는 불가의 영웅으로 그를 칭송하면서 속세를 떠나 산골을 지키는 그의 모습을 선학과 같다고 찬탄하고 있다.

다음은 연파가 학가에게 보낸 「차운봉간정유산학가(次韻奉簡丁酉山學稼)」라는 시이다.

高標下遠方	귀한 글 먼 곳까지 보내오니
有如靑霄鶴	마치 창공을 나르는 학인 듯하네.
珍重投瓊瑤	안부인사 삼아 주옥같은 시를 보내주시니
昭光動雲壑	구름 깬 골짜기에 번뜩이네.
儘爲國所寶	실로 나라의 보배라고 할 만한 문장인지라
南金詎能博	남금의 광채인들 어찌 이에 비하겠는가.
兩世絢文藻	양대의 빛나는 문장가이면서
末契欣有託	보잘 것 없는 위인에게까지 시를 보내주셨네.
端居常愛玩	단정히 앉아 시구를 감상하노라니
聊以替談諠	윽조리는 것만으로도 만나 뵈고 환담하는 것을 대신하네.
幽期又相報	은근히 만날 기약 서로 알려왔으니
會須迎杖屨	언젠가는 행차를 맞이하게 되리. ¹⁸⁰⁾
……	

이 시에서 연파는 학가의 시를 받고 너무 기쁜 나머지 그를 학에 비유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학가의 시를 중국 형주(荊州)·양주(揚州) 지방에서 나는 황금, 매우 귀중한 물건 또는 좋은 재질이라는 뜻인 남금(南金)에 비유하면서 찬탄을 마지않았다. 학가 정학연을 아버지 다산에 이어 빛나는 문장가라고 칭송한 것이다.

이외에도 정학연의 문집 『삼창관집』에 실린 「병인집(丙寅集)」에는 「한식일금릉배별

179) 『다산학단 문헌집성』 二, 「삼창관집」, p. 428.

180) 『아암집』에는 제목에 학가가 빠져있다.

『寒食日金陵拜別』 등 24제 35수가 실려 있는데, 특히 다산이 보은산방으로 거처를 옮긴 이후의 상황을 보여주는 「배가군우거보은산방(陪家君寓居寶恩山房)(1805), 「증황상-을축동여여황상동주보은산방상용두고재상수운작시증여여미기북귀미과화동일우지회역전년불금창한추부이기지(贈黃裳-乙丑冬余與黃裳同住寶恩山房裳用杜高齋上水韻作詩贈余余未既北歸未果和冬日又至回憶前年不禁愴恨追賦以寄之)」(1806)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다음 내용을 살펴보면 다산과 연과는 서로 만남을 청했다고 언급되어 있다. 먼저 연과의 「고성사에 들러 아울러 소서를 쓰다(過高聲寺并序)」 전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등장한다.

탁옹이 나를 청하기에 고성사¹⁸¹)에 이르렀는데, 그때 우두령을 넘다가 탁옹을 만났다. 가랑비에 옷이 젖은 채 숲 속에서 서로 만나고 보니 기쁨을 알 만하다. 비 때문에 절에서 유숙하면서 질탕한 대화를 나누며 진실로 기뻐다. 작별하면서 시를 주므로 부족하나마 그 시운에 따라 화답하다. 때는 을축년 6월 2일이다.¹⁸²⁾

素性嗜踈懶
幽居只酣眠
泉翁一赫蹏
起我午窗前
謙恭不卑卑
禮我如禮賢
賢豪必沉抑
覽書還愴然
勉我策駑鈍
字字眷愛纏
嘻罵都成章
文采耀林泉
爲携雙白足

타고난 본성 일에 등한하고 게으름 좋아하여
조용히 지내며 단잠만 잤다네.
천옹이 일차 편지¹⁸³⁾를 보내어
나를 정오의 창 앞에 일깨워주었네.
겸손하고 공손함이 비루하지 않았고
나를 예우하기를 현자를 예우하듯 하였네.
현호한 사람은 반드시 침착하게 억누르거늘
편지를 보니 도리어 서글프다네.
노둔한 이 사람을 채찍질 하고 격려하며
글자마다 돌보며 사랑하는 마음 얹혀있네.
웃는 말 꾸짖는 말이 모두 문장을 이루고
빛나는 문장이 산 속에 비치네.
두 사람 수도승¹⁸⁴⁾을 데리고

181) 고성사(高聲寺)는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보은산 우두봉(牛頭峰)에 있는 사찰로 대한불교조계종 제 22교구 본사인 대흥사의 말사이다. 1917년 계정(戒定)이 지은 「천불산화엄사사적비」에는 1211년(고려 희종 7) 원묘국사(圓妙國師) 요세(了世: 1163-1245)가 인근에 있는 만덕산 백련사를 중창할 때 함께 지은 말사라고 기록되어 있다. 1799년(조선 정조 23)에 편찬된 『범우교(梵宇攷)』에는 고성암(高聲庵)이라 되어 있다.

182) 籜翁要余至高聲寺 翁躡牛頭嶺來還之 小雨沾濕草間相逢欣喜可知滯 雨宿寺談諧跌宕可悅也 既別有詩聊和其音 時乙丑之六月二日.

183) 편지[赫蹏] : 혁제(赫蹄)라고도 한다. 옛날에 글씨를 쓰는 데 썼던 폭이 좁은 비단을 말하는데, 종이를 칭하는 말로 전용되어 쓰인다. 여기서는 상대방의 편지를 뜻하는 말로 쓰였다.

184) 백족(白足) : 세속의 더러움에 오염되지 않은 청정한 수도승(修道僧)을 말한다. 위(魏) 나라의 승려

鳴節下山嶺
異鄉無久要
始茲有招延

.....

起坐看四壁
獨自味清玄
不圖金閨彦
復此到諸天

.....

지팡이 소리 울리며 재를 넘어가네.
타향에서 오랫동안 요청한 이 없더니
모처럼 이 날에 초대를 받았네.

일어나 앉아 사방 벽을 둘러보고
홀로 맑고 고요함을 맛보았네.
생각지도 않은 김규언이
또 이 제천에 이르렀네.¹⁸⁵⁾

이 시에서는 다산의 또 다른 호인 탁옹이 언급되고 있는데 ‘탁옹이 나를 청하기에’라고 한 것을 보면 다산이 연파와의 만남을 먼저 청한 것으로 된다. ‘천옹(泉翁)이 일차 편지를 보내어’라고 한 것에서 ‘천옹’은 다산을 의미함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천(泉)은 동천여사의 동천을 뜻하는 것 같다. ‘나를 예우하기를 현자를 예우하듯 하였네.’라고 한 것은 다산이 연파를 현자에 비유하면서 칭송한 것이며, ‘생각지도 않은 김규언이’라는 구절 역시 다산을 지칭하는 말로서 왕을 보필하며 금마문을 드나드는 학덕 높은 선비인 김규언이 여기 강진에 이르렀다고 표현한 것이 흥미롭다.

다음은 반대로 연파가 다산과의 만남을 청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글이다.

6월 2일에 장공(藏公)이 고성암에 와서 그 제자를 보내 그 뜻이 나를 만나보려는데 있지만, 다만 성시(城市)임을 꺼리는 뜻을 알려 왔다. 내가 마침내 가서 만나보았다. 마침 보슬비가 오는 바람에 하루 밤 이야기 자리를 얻었다. 일이 맑고 빼어난지라 그 시말을 적어 한 편을 만들었다.¹⁸⁶⁾

.....

幽期忽相報
望溢意爽然
振衣陟峻阪
岡巒互縈纏

.....

以我詩書易
博爾華楞圓

뜻밖에 만나자는 기별이 오니
희망 넘쳐 마음이 상쾌하였네.
옷깃 떨쳐 가파른 언덕 오르자
맷부리들 서로서로 엉켜있구나.

나는 『시경』·『서경』과 『역경』 말하고
그대는 『화엄』·『능엄』·『원각경』 얘기.

담시(曇始)는 발이 얼굴보다도 깨끗했는데 흙탕물을 걸어가도 발이 전혀 더러워지지 않았으므로 백족화상(白足和尚)이라고 불렸다는 일화가 전해 온다. 『琅琊代醉篇』 「白足」.

185) 『다산학단문헌집성』 二, 「過高聲寺并序」.

186) 六月二日, 藏公至高聲菴, 遣其足, 相報其意在余, 唯城市是厭也. 余遂往還, 會有小雨, 得一夜譚宴. 事類清絕, 紀其始末, 爲一篇.

霏屑落層玄
 咳唾皆幽玄
 四座寂不動
 出淚感其天
 平生廣額屠
 頭頭野狐禪
 緬思朱門內
 熱客紛磨肩
 利誘交害愴
 膏火遞熬煎
 營營百年間
 快樂無一年
 誰知吾與若
 遙遙含悲憐

보슬비 허공에서 떨어지는데
 주고받은 말은 모두 그옥도 해라.
 사망에선 귀족은 듯 꼼짝도 않고
 천분에 감동하여 눈물 흘렸네.
 평생에 이마가 흰 승려들
 먼먼이 깨달은 채하는 엉터리였네.
 따져보면 붉은 대문 안쪽에서도
 많은 손님 어지러이 어깨 부비며.
 이(利)로 꺾어 서로 해칠 궁리가 바빠
 기름불로 차례로 지지고 볶네.
 백년 인생 골똥히 애를 쓰느라
 즐거움은 단 한 해도 못 누린다네.
 뉘라서 알리오! 그대와 내가
 저 멀리서 슬픈 연민 품고 있을 줄.¹⁸⁷⁾

이 시는 5언의 장시이다. 다산은 『시경』·『서경』과 『역경』을, 연파는 『화엄』·『능엄』·『원각경』 얘기를 하면서 담소했는데, 연파가 깨달은 척하는 승려들과는 다른 모습에 다산은 깊은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는 내용이다.

다음은 다산이 「혜장상인의 편지에 답하다(答上人書)」라는 글인데 문집에는 누락되어 있다.

비로 산사에 머물다가 닷새 만에 겨우 돌아 왔소. 나그네로 머물며 시 8, 9편을 얻었으나 보여줄 길이 없더니, 편지를 받고 나니 마음이 폭 놓이는 구료. 그날 비에 젖고도 병이 나지 않았다니 더욱 기쁘오. 『화엄경』 제목은 시원한 날을 기다렸다가 써 가겠소. 황 노인이 석교(石橋)의 농장에 있으니 오면 마땅히 편지와 함께 내 뜻을 전하리다. 대둔사의 거취는 굳이 마음 쓸 것 없소. 조금 기다려 가을이 와서 여름 무더위가 가신 뒤에 가더라도 또한 예전 규율에 어긋나진 않을 것이오. 경서는 보름째쯤 사람을 보내 가져가 시구려. 19일에 산사로 가는 것은 마땅히 이 인편에 서로 연락하십시오. 소첩(小帖)은 여러 사람이 베껴 가게 될까 염려 되는 구료. 산인이 세상 정리를 앓을 보여주면 일후에 반드시 구설을 부를 테니 잠시 머물러 두도록 하시오. 다만 고성암에서 얻은 것만 취해 몇 수를 베껴 가니, 또한 마땅히 혼자서만 보고 마침내 비밀로 해서 퍼져 전해지지 않도록 해준다면 고맙겠소. 내가 부탁한 『능엄경』은 작은 것이오. 보내온 책은 마땅히 보름께 인편에 돌려 드릴 테니, 작은 판본으로 부쳐주면 좋겠소. 부쳐온 시는 청아해서 기뻐할만 했소. 지난날 거쳐 지나온 곳을 취해 그 정경을 떠올려 짓는다면 수십 편의 좋은 시를 얻을 수 있을 게요. 이만 줄이오. 6월 7일.¹⁸⁸⁾

187) 정민(d), 위의 논문, pp. 134-135.

188) 정민(d), 위의 논문, pp. 137-138. “滯雨山寺，凡五日始還。旅次得詩八九篇，無由相示，得書慰甚。其日沾濕，不至病，尤可欣爾。華嚴經題目，要俟涼日寫去。黃老人在石橋農莊，來當傳書與意耳。菴寺去就，不必吝

이 시는 다산이 고성사에 머물 때 지은 시로서 연파에게 보여주고자 하였으나 비 때문에 만날 방법이 없었는데 마침 연파의 편지를 받자 기뻐하는 내용을 묘사하고 있다. 연파는 다산에게 『화엄경』 제목을 써달라고 부탁하였던 모양이다. 이 시에는 다산이 연파의 대둔사 거취가 규율에 어긋나지 않으니 시기를 늦춰 가라는 조언과 『능엄경』의 판본을 부탁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두 사람은 이렇게 시를 주고받았으며, 다산은 은봉과 법훈, 수룡과 초의 등 여러 승려들과 교유를 지속하였다.

두 사람 사이를 이어준 것은 시뿐만 아니라 또 다른 매개체가 있었다. 그것은 차였다. 백련사 뒤편 만덕산에 차나무가 있어서 연파는 차를 따고 만들었다. 다산도 차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에 연파에게 차를 청하는 시와 소를 지었고, 연파도 다수의 차시를 지었다. 다산과 연파가 주고받은 차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혜장상인에게 차를 청하여 부치다(寄贈惠藏上人乞茗)」라는 시이다. 이 시는 1805년 다산이 강진에 적거한지 5년째 되던 해에 지은 시이다.

傳聞石廩底
 由來產佳茗
 時當晒麥天
 旗展亦槍挺
 窮居習長齋
 羶臊志已冷
 花豬與粥鷄
 豪侈邈難竝
 祗因痲癖苦
 時中酒未醒
 庶藉己公林
 少充陸羽鼎
 檀施苟去疾
 奚殊津筏拯
 焙晒須如法
 浸漬色方澄

전해 듣기에 석름 밑에서
 예로부터 좋은 차가 난다던데.
 때가 보리 말릴 계절이라
 기도 피고 창도 돋았겠지.
 궁하게 지내면서 장재가 습관이라
 누린내 나는 건 이미 싫어졌다네.
 돼지고기와 닭죽은
 너무 호화스러워 함께 먹기 어렵고.
 다만 근육이 땡기는 병 때문에
 간혹 술에 맞아 깨지 못한다네.
 산에 사는 기공의 힘을 빌려
 육우의 솜에다 그를 좀 얹혀보았으면.
 그를 보내주어 병만 낫게 만들면야
 물에 빠진 자 건져줌과 뭐가 다르겠는가.
 불에 쪄 말리기를 법대로 해야지만
 물에 담갔을 때 빛이 해맑다네.¹⁸⁹⁾

情. 稍待新秋解夏輒去, 亦不違舊概也. 經冊可於望間送人取去. 十九日, 山寺之行, 當於此便相報也. 小帖恐被多人寫去, 山人示知世情, 日後必致口舌, 姑留之. 只取聲菴所得, 錄數首去, 亦宜靜觀, 而遂秘之, 勿令播傳幸甚. 楞嚴經所求者即小本也. 來冊當於望日便奉覽. 幸奇小本爲佳. 來詩清雅可悅. 取舊日所經歷處, 追述情景, 可得數十篇佳詩也. 不具. 六月七日.”

189) 정약용, 『다산시문집』 5권, 「寄贈惠藏上人乞茗」.

다산이 지은 「승발송행(僧拔松行)」에도 “백련사 서쪽편에 석름봉이 있는데 백련사서 석름봉(白蓮寺西石廩峯)/ 이리저리 걸어 다니며 솔을 뽑는 중이 있어 / 유승척촉행발송(有僧彳亍行拔松)”¹⁹⁰이라는 구절이 나온다. 석름은 백련사 서쪽 산봉우리 이름으로 확인된다. 석름봉 밑에서 차가 난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다산이 간접적으로 연파에게 차를 요구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시에서 ‘육우의 솔에다 그를 좀 앉혀보았으면’이란 부분은 역(易)의 이치를 육우의 정(鼎)에 달이고자 하는 마음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다산은 이미 육우의 『다경』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차에 대한 내용은 다음 소개할 「결명소」를 보면 더 자세히 알 수 있다.

두 번째는 「아암선자에게 결명소를 지어서 드리다. 을축년 겨울 강진에 있을 때 지었다.(貽兒菴禪子乞茗疏 乙丑冬在康津作)」라는 글이다.

여인(旅人)이 요사이 차를 탐식(貪食)하고, 겹하여 건강의 약으로 충당합니다. 독서 중의 묘한 버릇은 육우의 『다경』 삼 편을 완전히 통달하였고, 병중에도 건강한 누에처럼 드디어 노동의 칠완을 다 마셨습니다. 비록 정척기(精瘠氣)가 침범하였으나 기모경의 말은 잊지 아니하고, 옹파반(壘破癥)은 녹였으나 마침내 이찬황¹⁹¹의 버릇은 남았습니다. 마음이 고요하고 욕심이 없을 때, 아침 햇살이 처음 빛날 때, 흰 구름이 맑게 갠 하늘에 등실등실 떠 있을 때, 낮잠에서 처음 깨었을 때, 밝은 달이 푸른 시냇물에 맑게 비출 때, 작은 구슬 같은 눈발이 날릴 때에 산사에서 등불 켜고 자순차의 향기를 맡았고, 활화로 신천의 물을 끓이어서 들여서, 백토을 보았다. 화자와 홍옥의 화려함은 비록 로공(潞公)이 무색했고, 들술에 푸른 연기가 담소하기가 한비자와 같구나. 해안과 어안은 옛 사람이 무척 좋아 하였고 용단과 봉단은 궁중에서 보배스레 나눠줄을 이미 다 했다. 이에 채신의 병¹⁹²이 있어 결명의 정을 편다. 내가 듣건데 고해의 좋은 양식은 시주의 보시가 가장 중하고, 명산의 차는 초단의 으뜸을 가만히 보낸다고 하였다. 마땅히 내가 목마르게 바라는 것을 생각해서 은혜 베풀기를 아끼지 마시오.¹⁹³

190) 정약용, 『다산시문집』 5권, 「僧拔松行」.

191) 이찬황(李贊皇, 787-850)은 당의 재상을 지낸 이덕유(李德裕)로서 조군사람인데 자는 문요(文饒) 길보자(吉甫子)라고 하며, 찬황(贊皇)이란 호는 당 무종 때도 재상을 하며 지방 세력을 꺾고 황권을 높이는데 극력하고 재상을 한데 관계되어 보인다. 그 또한 멀리 해산물을 길어 먹었으며 차에 감식안이 높았으며 차즙을 육식에 부어 시험해 본 일화가 전한다.

192) 예기 『곡례편』에 나오는 부신지우(負薪之憂)로 군주에게 자신이 나무하다가 몸살나서 지금 명에 응하지 못한다는 뜻의 자신을 낮추어 한말이다. 이것이 맹자에서는 채신지우(采薪之憂)라는 말로 나타나는데 우(憂)는 병(病)의 뜻으로 채신지우나 채신지병 그리고 부신지우가 다 같은 말이라 할 수 있다.

193) 정약용, 『與猶堂全書補遺』, 「洙水文簧」, “旅人 近作茶饗, 兼充藥餌. 書中妙解, 全通陸羽之三篇. 病裡雄吞 遂竭盧仝之七椀 雖浸精瘠氣 不忘碁母嬰之言. 而消壘破癥, 終有李贊皇之癖 泊乎 朝華始起, 浮雲晶晶乎晴天. 午睡初醒 明月離離乎碧澗. 細珠飛雪, 山爐飄紫筩之香. 活火新泉, 野席薦白包之味. 花瓷紅玉, 繁華 雖遜於潞公. 石鼎青煙, 澹素庶乏於韓子 蟹眼魚眼, 昔人之玩好徒深. 龍團鳳團, 內府之珍頒已罄. 茲有采薪之疾, 聊伸乞茗之情. 竊聞 苦海津梁, 最重檀那之施. 名山膏液, 潛輸瑞草之魁. 宜念渴希 毋慳波惠.”

이 글에는 다산이 육우의 『다경』을 섭렵할 정도로 차에 대해 높은 식견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차벽이 있을 정도로 차를 빼놓곤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가 된 다산의 모습도 엿볼 수 있다. 다산이 차의 효능을 믿어서 몸소 차로 병을 고치고자 하였음도 알 수 있다. 초의는 이 「결명소」를 『동다송』을 지을 때 인용했다. 여기에는 “다산선생의 「결명소」에 아침에 막 일어나 기분이 상쾌할 때, 흰 구름이 맑게 갠 하늘에 등실등실 떠 있을 때, 낮잠에서 처음 깨었을 때, 밝은 달이 시냇가에 떠 있을 때가 차마시기에 알맞은 때라고 하였다.”¹⁹⁴⁾라고 언급되어 있다.

세 번째는 「혜장이 날 위해 차를 만들었는데, 때마침 그의 문도 색성이 나에게 무얼 주었다 하여 보내주지 않고 말았으므로 그를 원망하는 말을 하여 주도록 끝까지 요구하였다. 운은 전운을 그대로 썼음(藏既爲余製茶 適其徒蹟性有贈 遂止不予 聊致怨詞 以徼卒惠 用前韻).」라는 시이다.

與可昔饒竹
 擘翁今饜茗
 沉爾棲茶山
 漫山紫筍挺
 弟子意雖厚
 先生禮頗冷
 百觴且不辭
 兩苞施宜竝
 如酒只一壺
 豈得長不醒
 已空彥沖瓷
 辜負彌明鼎
 四隣多霍癘
 有乞將何拯
 唯應碧澗月
 竟吐雲中澹

옛날 여가는 대를 몹시 대를 탐하더니
 지금 탁옹은 차를 그리 즐긴다네.
 더구나 그대 사는 곳 다산이기에
 그 산에 널린 것 자색 순 아니던가.
 제자 마음은 비록 후하지만
 선생이 왜 그리 냉대란 말인가.
 백근이라도 마다하지 않을 텐데
 두 꾸러미 다 주면 뭐가 어때서.
 술이라도 한 병 가지고서야
 오래 깨지 않고 취하겠는가.
 언충의 오지그릇이 비어 있는데
 미명의 술을 그냥 놀리란 말인가.
 이웃 사방에 병든 자가 많은데
 찾아오면 무엇으로 구제할 것인가.
 오직 다만 벽간월로 부응하셔서
 구름 헤치고 맑은 모습 토해내소서.¹⁹⁵⁾

이 시에 등장하는 여가(與可)는 송나라 때 대나무를 잘 그리기로 유명한 화가이다. 여가가 대나무를 탐한 것에 비유하여 다산이 차를 좋아한다는 의미로 그의 차에 대한

194) 고월 용운의 옮김, 위의 책, pp. 49-50. “茶山先生 乞茗疏 朝華始起 浮雲晶晶於 晴天 午睡初醒 明月離離於 碧澗.”

195) 『다산시문집』 5권, 「藏既爲余製茶 適其徒蹟性有贈 遂止不予 聊致怨詞 以徼卒惠 用前韻」.

집착을 설명하였다. ‘오직 다만 벽간월로 부응하셔서’는 다산이 연파의 차에 ‘벽간월(碧澗月)이라는 이름을 붙여준 것으로 보인다. 벽간월은 초의의 『동다송』에 등장하는 “건양과 단산은 푸른 물의 고장인데 품제는 특별히 운간월(雲澗月)을 꼽는다네(建陽丹山碧水鄉 品製特尊雲澗月)”라는 ‘운간월’과 비슷한 명칭이다.¹⁹⁶⁾ 벽간차는 다산 4경 중 ‘약천’ 부분, 즉 ‘담 없애고 버릇 고치는 공 차례에 뛰어나니, 여가의 일은 벽간차를 검하기에 마땅하다오(消痰破癖功堪錄, 餘事兼宜碧澗茶)’¹⁹⁷⁾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벽간차를 약 샘물로 끓여 마시겠다고 했는데, 이는 벽간월과 같은 차 인 듯하다. 다산은 연파의 제자인 색성에게서 차를 받고 속이 상한 김에 자신의 취향을 숨김없이 드러냈다. 차를 넉넉히 가지고 있는 연파가 제자의 말 한 마디에 흔들려 일부러 (나를 위해) 만든 차를 안 주다니 그게 말이 되느냐는 항의가 재미있게 표현되고 있다.

다음은 다산이 연파에게 보낸 「장상인의 병풍에 제함(題藏上人屏風)」이라는 글이다.

.....

달이 밝으면 못이 맑고 달이 어두우면 못도 어둡다. 밝으면 그림자가 비치고 어두우면 없어져서 저절로 사물과 다투지 않는다. 조수(潮水)가 오면 고기가 오고 조수가 가면 고기도 가는데, 오면 잡되 갈 때는 뒤쫓지 않는 것도 그런대로 즐거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피리 불고 거문고 타며, 시 읊고 그림 그리는 것이 방탕한듯하면서도 방탕하지 않고 엄숙한 듯하면서도 엄숙하지 않으니, 어찌 담박한 생활이 아니겠는가. 꽃 심고 채소를 심으며, 대나무를 솟아내고 찾이를 묶는 것이 한가한 듯하면서도 한가롭지 않고 바쁘듯하면서도 바쁘지 않으니, 참으로 이것이 청량(淸涼)한 세계이다.....¹⁹⁸⁾

이 시에는 꾸밈없고 욕심 없이 차를 볶으며 한가하게 자연의 흐름에 따라 맑은 정취를 느끼며 살아가는 다산의 담박한 삶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여기에는 불교에 회의적이었던 연파에게 이런 삶을 살아달라는 다산의 당부가 담겨 있다.

연파가 다산에게 보낸 「탁옹께서 돌아간 뒤 시를 몹시 채근하므로 또 한 편을 보낸다.(籜翁歸後索詩甚勤又寄一篇)」라는 시에는 다음과 같이 묘사되어 있다.

深嗟肉眼不知君	육안으로 그대를 못 알아봄 탄식하니
山斗高名耳但聞	대산복두 높은 명성 다만 귀로 들었었네.

196) 정민(c), 위의 책, p. 147.

197) 모로오까 다모쓰, 이에이리 가즈오 공저, 김명배 번역, 『朝鮮의 茶와 禪』, 보림사, 1991, p. 257.

198) 『여유당전서』 14권, “月明池明, 月暗池暗, 明斯照影, 暗斯歸息, 自然與物無競. 潮來魚來, 潮去魚去, 來斯漁之, 去斯勿追, 亦足供此所樂. 吹竹彈絲, 哦詩描畫, 似宕不宕, 似莊不莊, 豈非澹泊生涯, 蒔花種菜, 洗竹焙茶, 道閒非閒, 道忙非忙, 眞是淸涼世界. 晴牕棐几. 『水經新注』.”

佛地今無龍象會
宮池舊是鳳凰羣
孤蹤遠抵金陵海
一夢長歸漢水雲
方外交情還爛漫
詩中戒語正殷勤¹⁹⁹⁾

불지에는 지금 용상회 없고,
궁궐의 연못 예전엔 봉황이 무리지어 있었네.
외론 자취 멀리 이곳 금릉 바다 이르시매
꿈속에선 언제나 한수(漢水) 구름 돌아가리.
방외의 우정이 다시금 난만한데
시 속의 경계의 말 참으로 은근하다.²⁰⁰⁾

이 시는 연파가 다산에게 보낸 편지인데, 여기에는 연파와 다산 사이의 학문적 교류와 소통이 묘사되어 있다. 이런 사실은 “글을 받아오니, 시율에 마음을 두어 손님과 벗의 요구를 막으라고 하셨더군요. 일깨워주심이 참으로 지당하십니다. 다만 음풍영월은 아무 생각 없는 것만도 못한지라, 물병 하나 바릿대 하나만 가지고서 노두타의 생활을 하려고 하오니 어떨는지요. 갖추지 못하고 답장 드립니다.”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²⁰¹⁾

다산은 연파가 자신의 요청에 응해 시를 보내오자 너무 기뻐서 “여름 결제(結制) 시작되어 계율 엄할 잘 아는데, 구슬 같은 시 없느라 애를 많이 썼구려.”라는 화답의 「차운기혜장(次韻寄惠藏)」 시를 진하였다.

長日藜牀對竹君
六時鐘磬杳難聞
由旬地近堪乘輿
兜率天高奈絕羣
藥塢細沾餅裡水
林壇徐放杖頭雲
情知結夏嚴持律
聯綴瓊瑤也自勤

허구한 날 침상에서 대나무나 바라볼 뿐
육시의 종경 소린 들을 수가 없네 그려.
유순이 가까워서 흥 따라 놀만도 한데
도솔천 높고 높아 인간 떠나 사는 건가.
약밭은 살금살금 병 안의 물에 젖고
지팡이에 닿던 구름숲에서 점점 걷히겠지
결하가 시작되어 계율이 엄할 텐데
구슬 같은 시 없느라 애 많이 썼군 그려.²⁰²⁾

다산과 연파는 10살 차이에도 불구하고 승속을 뛰어 넘은 관계였다. 두 사람은 서로의 처지를 시와 차를 매개로 토로하며 교류를 이어나갔다. 연파도 다산과 있을 때는 승려의 신분을 잊은 채 외전 특히, 『주역』에 대해 밤새워 가며 토론했다. 연파의 문집에서 다산과의 교류시가 대부분일 정도로 다산이 연파의 삶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음을 알 수 있다. 다산도 마찬가지였다. 다산은 연파가 입적한 후에도 그의 제자들과 전등계를 맺어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다신계절목(茶神契節目)」에서 다

199) 『다산학단 문헌집성』 二, 「籀翁歸後索詩甚勤又寄一篇」.

200) 정민(c), 위의 책, p. 176.

201) 정민(d), 위의 논문, 承諭留心詩律, 以塞賓友之求, 所誨誠至當. 第唯吟風咏月, 不如無思慮, 欲將一瓶一鉢, 作老頭陶生活, 如何如何.[不具謝], pp. 129-156.

202) 『다산시문집』 5권, 「次韻寄惠藏」.

산이 “수룡과 철경 또한 방외(方外)의 학연이 있는 자들이다. 그 전등계 전답이 만약 우려할 일 있을 시에는 읍중에 알려 읍중에서 주선하여 보살피라”라고 당부한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다산은 대둔사 승려들과도 사승관계를 맺었는데, 이를 감안하면 전등계 제자들은 만덕사와 대둔사 제자들을 두루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²⁰³⁾

다산은 육우의 『다경』을 섭렵할 정도로 차에 대해 높은 식견을 가지고 있었으며, 울적한 마음을 달래고 학문을 몰입할 수 있었던 것은 차의 덕분임을 알았다. 다산과 연파의 교유는 연파가 40세의 나이로 입적하기까지 계속 되었다. 다산과 대둔사의 인연은 색성, 초의 등으로 이어졌고, 다산의 두 아들 학연과 학유는 훗날 초의와 깊은 인연을 맺었으니 대를 잇는 인연이었다.

2) 차문화의 확산과 추사

추사 김정희의 생애는 민규호(閔奎鎬)²⁰⁴⁾가 쓴 「완당김공소전(阮堂金公小傳)」²⁰⁵⁾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김공 정희는 자가 원춘이며, 호가 완당 또는 추사이고, 경주 김씨이다. 그는 순조 기사년(1809)에 생원시에 합격하였고, 기묘년(1819)에는 과거에 급제하였다. 아버지 김노경을 따라 연경(燕京)에 갔을 때 추사는 24세였다. 각노(閣老)인 완원(阮元, 1764-1849)이나 금석학의 대가인 담계 옹방강(翁方綱)은 모두 당시의 큰 선비였으며, 중국에서도 명성을 크게 떨쳤고, 직위도 매우 높았다. 그런데 추사는 옹방강을 한번 보고 곧바로 막역한 사이가 되었다.²⁰⁶⁾ 그리고 추사의 아우 김명희도 1822년 부친 김노경을 따라 연행을 가서 십지선(葉志詵)·오승량(吳崇梁) 등 청조(淸朝)의 대표적 학자들과 교류하였다.

추사 가족은 이처럼 청조 학자들과 교류하며 경학·금석학·서화 등 다방면의 학술 교류를 진행하였다.²⁰⁷⁾ 추사는 귀국 후 향시 연산(燕山)의 친구를 회상하였다. 특히 담

203) 尹孝珍, 「다산의 전등계 제자에 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p. 17.참조.

204) 민규호(1836-1878), 여흥인(驪興人), 자는 경원(景圓) 또는 경유(景有), 호는 황사, 태호의 실제, 벼슬은 우의정에 이르다. 시호는 충헌(忠獻), 추사의 내종질로 인물이 빼어나게 아름답고 총명 호학하여 어려서부터 추사의 사랑을 받다. 추사의 학통을 잇고 고종 5년(1868)에는 동문 남상길과 완당집 5권 5책을 편집하고 스승의 소전을 쓰다. 『완당전집』 해제.

205) 『완당전집』 권수, 「阮堂金公小傳」. 金公正喜. 字元春. 號阮堂. 又號秋史. 慶州人也. 母俞夫人懷娠二十四月而生. 憲正宗丙午也. 性孝友. 博極羣書. 純祖己卯. 中生員試. 己巳擢第.

206) 金正喜著, 崔完秀譯, 『秋史集』, 玄岩社, 1976, pp. 6-7.

207) 千金梅, 「18~19世紀 朝·淸文人 交流尺牘 研究」,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p. 271.

계·완원 두 경사(經師)에 대한 경앙(景仰)의 생각을 금할 수 없어 끝내는 담계의 ‘담’자를 따서 「보담재(寶覃齋)」라 호하였고, 완원대(阮元臺)의 ‘완(阮)’을 따서 「완당」이라 호하였다. 게다가 담계의 ‘담’과 완대 연경실(擘經室)의 ‘연(擘)’을 합해서 「담연재(覃擘齋)」라고 호하였으며, 양 경사와 가까이 하며 깊은 감화를 받았다.²⁰⁸⁾

조선의 지식인이 명·청조의 차문화와 접한 경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간접적인 경로로서 서적을 통한 접촉이다. 서적 수입 및 유통이 활발했던 시대적 상황을 배경으로 차와 관련된 서적 및 전문 다서들이 조선으로 유입되었다. 둘째는 직접적인 경로로서 중국 연행에서의 경험이다.²⁰⁹⁾

추사는 스승인 박제가로부터 청나라 학계에 관해 이미 자세히 알고 있었다. 또한 그는 자주 연경을 내왕한 사우들을 통해서 연경 학자들과 간접적으로 소통하였으며, 그의 제주도 연경 학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었다. 그는 새로운 청조 고증학 쪽으로 관심을 기울였으며, 껍질만 남은 전통적인 조선 성리학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청나라에 가서 본격적으로 고증학을 접하고자 하였는데, 아버지를 수행해 연경에 다녀온 것은 그에게 좋은 기회가 되었다.²¹⁰⁾ 그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고증학의 대가는 옹방강과 완원이었다.²¹¹⁾

옹담계는 청년 완당에게 ‘경술문장 해동제일(經術文章 海東第一)’이라는 반절 크기의 글을 써주었다. 완당도 옹담계를 대우하였으며, 그의 탁월한 학문적 도량과 품격을 존경하였다. 이들과의 만남은 청조 문화 교섭에서 중요한 가치를 부여한 일대 사건이었다.²¹²⁾

옹방강과 추사는 소동파를 좋아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유사한 지향점을 지니고 있었다. 옹방강은 그의 서재 이름을 ‘소동파를 보배롭게 받드는 서재’라는 뜻으로 보소재(寶蘇齋)라 정했다. 이유원의 『임하필기』에는 “세상에서 담계 옹방강을 동파 소식(蘇軾)의 후신이라고 칭한다.”²¹³⁾라는 글이 있다. 추사도 김영한이 쓴 「완당선생전집서」에

208) 藤塚鄰저, 朴熙永역, 『추사 김정희 또 다른 얼굴』, 아카데미하우스, 1994, p. 166.

209) 韓基貞, 「18 . 19世紀 朝鮮 知識人の 茶文化 研究」,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3, p. 84.

210) 金正喜著, 崔完秀 譯, 위의 책, pp. 24-25.

211) 정재훈, 「청조학술과 조선성리학」, 『추사와 그의 시대』, 들베개, 2002, p. 151.

212) 藤塚鄰저, 윤철규·이충구·김규선역, 『秋史 金正喜 研究-淸朝文化 東傳의 研究』, 과천문화원, 2009, p. 154.

213) 이유원, 『임하필기』 제33권, 「화동옥삼편(華東玉縑編)」, 옹방강(翁方綱)의 소재(蘇齋)라는 호칭 : 세상에서 담계(覃溪) 옹방강을 동파(東坡) 소식(蘇軾)의 후신이라고 칭한다. 옹방강은 일찍이 『천제오운첩(天際烏雲帖)』의 진적(眞迹)을 얻은 다음 그 서실의 편액을 ‘소재(蘇齋)’로 써서 달았고, ‘소재묵연(蘇齋墨緣)’이란 인장(印章)도 새겨서 가졌다. 옹성원(翁星原) 옹방강의 아들인 옹수곤(翁樹崑)에게는 ‘반생치

서 “내가 어렸을 적에 덕 있는 선배들이 국조(國朝)의 인물을 논하면서 완당 김 선생을 송나라 때의 소문충(蘇文忠, 문충은 소식의 시호)에 비유하는 말을 들었다. 조금 자라서는 더욱 전에 듣지 못했던 것을 들었고 검하여 그의 유집을 얻어 읽어보니, 그제야 비로소 그의 세상에 뛰어난 재주와 나라를 빛낼 만한 솜씨가 소문충과 똑같고, 해박한 견문과 많은 학식으로 명성이 천하에 가득한 것도 소문충과 똑같으며, 신묘한 경지에 들어간 서법(書法)과 화법(畫法)도 소문충과 똑같고, 임금의 권우[蚤蒙天眷]를 일찍 입어 화려한 관직을 역임하다가 중간에 화고(禍故)를 만나 머나먼 변방에 유찬되었으나 영고득실(榮枯得失)을 마음에 개의치 않고 물상(物象) 밖에 초연히 우뚝 선 것도 한결같이 소문충과 다름이 없음을 알게 되었다.”²¹⁴⁾라고 하였다.

추사는 국내외의 다양한 사람들과의 교유를 통해 학문과 예술의 깊이와 폭을 넓힐 수 있었다. 차를 통한 교유는 생활의 여유와 너그러움을 가져다주어 정신세계를 풍요롭게 만들었고, 이것이 학문과 예술을 더욱 발전시키는 밑거름이 되었다. 그는 연경에서 완원과 승설차를 마시며 차와 깊은 인연을 맺었으며, 결국 여기에서 차생활에 몰입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추사는 이재 권돈인(彝齋 權敦仁, 1783-1859)에게 보낸 편지에서 승설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었다.

이 차의 품격은 과연 승설차의 남은 향기라고 할 만한 것입니다. 내가 일찍이 쌍비관(청나라 고증학자인 완원의 서재)에서 이와 같은 것을 보았거니와, 우리나라에 돌아온 이후로는 40년 동안에 이런 것을 다시 보지 못하였습니다.²¹⁵⁾

위 글에는 47세 완원이 추사를 만나 기뻐하며 용단승설이라는 진귀한 차를 대접하였다는 내용이 나온다. 추사는 귀국 후 자신의 호를 ‘승설도인(勝雪道人)’으로 칭할 정도로 차 맛에 매료되었다.

훗날 추사는 “참선과 차 끓이는 일로 또 한 해를 보냈다”고 토로할 정도로 차를 즐

쳐시다정(半生痴處是多情)이란 소인(小印)이 있고, 또 ‘나는 원래 한이 많은 사람[僕本恨人]’이란 말을 한 바도 있다. 오성원은 그 거처에 ‘성추하벽지재(星秋霞碧之齋)’라는 이름을 써 붙여 항상 잊지 않겠다는 뜻을 표시하였으니, 유익한 세 벗의 도움을 자기 한 몸에 겸하고자 한 것이다. 또 이것으로 인장까지 새겼다. 성(星)은 성원(星原)이고, 추(秋)는 추사(秋史)이고, 하(霞)는 자하(紫霞)이고, 벽(碧)은 정벽(貞碧)으로 유취관(柳最寬)인데 역시 글씨를 잘 쓴 사람이다.

214) 김정희, 『완당전집』 권수, 『완당선생전집서』.

215) 김정희, 『阮堂全集』 권3, 『彝齋權敦仁』 제17신, “茶品果是勝雪之餘馥騰香. 曾於雙碑館中, 見如此者, 東來四十年, 再未見之.”

졌다. 그는 좋은 차를 즐기기 위해서는 그의 글씨를 아낌없이 줄 정도로 차를 좋아했다. 특히 그는 초의와 깊은 우정을 나누었는데, 초의는 해마다 추사에게 차를 보냈고, 추사는 글씨로써 고마움을 전했다. 추사가 초의에게 보낸 수많은 편지에는 보내준 차에 대한 고마움을 남겼다. 이는 차가 그의 예술이나 학문에 끼친 영향이 컸음을 의미한다.

추사는 귀국 후에도 완원과 편지와 선물을 주고받으며 교류를 이어나갔다. 이로 인해 추사와 대둔사의 인연이 시작된다. 그 이유는 『연파잉고』에 수록된 「장춘사잡흥정 이사군 태승」 12수 중 끝수인 이른바 ‘백수시’ 때문이다. 추사가 웅방강 앞에서 이 시를 읊자 웅방강은 연파의 백수시를 칭찬하며, 망형지계(忘形之契)를 표하였다. 웅방강이 연파의 백수시를 칭찬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백수시는 연파가 만년에 쓴 시였으며, 자신이 오랫동안 백수자 화두에 몰입했던 일을 후회하고 있는 시였다. 또한 이 시에는 간화선에 대한 비판의 뜻이 있었고, 바로 그러한 모습에 웅방강이 크게 동감한 것이었다. 또한 화엄의 대강사요 선사로서 존경받고 있던 연파가 자신의 과오와 아직 증득하지 못하였음을 솔직히 표현하고 있는 점도 웅방강과 추사한테 좋은 평가를 받은 부분이었다. 이로 인해 웅방강은 추사가 귀국할 때 부처님의 진신사리와 자신의 『복초제시집』, 『금강경』 등을 보내면서 대둔사에 오랫동안 보관하길 원했다. 추사는 귀국 후 웅방강의 신표들을 연파의 제자들이 주석하고 있는 대둔사로 모두 보냈다. 이런 일이 있은 후 추사와 초의의 만남은 더욱 돈독해졌으며, 나아가 대둔사와 초의 주변의 인물들까지도 관심을 갖게 되었다. 거기에다 다산까지 연파와 지극한 인연이 있었으니 대둔사는 조선 후기 차문화의 중심지로 자연스럽게 부각될 수밖에 없었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는 『대둔사지』에 수록된 자하산인 사암 정약용 찬인 「동방제십오조연파대사비명(東方第十五祖蓮坡大師碑銘)」(이하 연파대사비명으로 약칭함)과 『만덕사지』에 수록된 「연파대사숙혜직소어인공화문원포어중국(蓮坡大師夙慧直紹於因公華聞遠布於中國)」, 그리고 『아암집』의 부록으로 실린 연파의 손제자 원응계정의 「연파노사유집발」을 들 수 있다.

「연파대사비명」은 한국학문헌연구소가 한국사지총서 제6집으로 1983년 아세아문화사에서 상·하 2권1책으로 발행한 『대둔사지』의 부록 1에 실린 자료이다. 부록 1은 「대둔보감」인데 여기에는 1912년 「대홍사사적비명」과 「표충사기적비명」, 「청허대사비명」, 그리고 「풍담대사비명」을 비롯하여 「초의대사비명」까지 모두 19편의 대둔사 승려의 비문이 실려 있다.

연파의 비명을 작성한 연대는 1812년 겨울이었다. 비문 가운데 “그 다음 해 연파의

문도가 행장을 가지고 와서 ‘우리 스승님의 답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선생께서 명을 지어주셔야 합니다.’ 하므로 나는 그렇게 하겠다고 하였다. 명은 다음과 같다(厥明年冬 其徒以其狀至曰 吾師不可以佛塔 先生不可以不銘 余曰然銘曰).”라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 여기에서 찬자는 다산이다.

<1-1>

그해 봄 아암은 「장춘동 잡시」 20편을 나에게 보였는데 그 두 聯은 다음과 같다.

柏樹工夫誰得力	정전 백수자 화두 공부로 누가 득력했단 말인가?
蓮花世界但聞名	극락세계는 단지 이름만 알려졌을 뿐이지
狂歌每向愁中發	마구 소리 지르며 부르는 노래 수심 중에 튀어나오고
淸淚多因醉後零	맑은 눈물은 취한 후에 하염없이 쏟아지네.

<1-1>은 연파가 시를 좋아하고 술을 마시며 자유자재한 생활을 4-5년 보내다가 신미(1811)년 가을 병을 얻어 9월 북암에서 열반했다고 적었다. 연파는 열반하던 그해 봄에 「장춘동 잡시」 20편 중 제2연을 소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대둔사지』는 그냥 ‘기련(其聯)’이라 하였으나, 『아암집』은 두 연[其二聯]이라 하였다.

<1-2>

백수(柏樹)의 시구로 이름이 중국에까지 알려졌다. 각로 응답계 선생께서 사람을 얻음을 깊이 기뻐하여, 그 시집 6책과 손수 쓴 석판 『금강경』 1권, 그리고 자기의 초상화 한 축을 우리나라 사신 편에 부쳐 보냈으니, 이 또한 일찍이 있지 않았던 일이다.²¹⁶⁾

<1-2>에서는 연파의 백수시가 중국에 알려져 웅방강이 기뻐하면서 자신의 시집 6책과 손수 쓴 『금강경』 1권, 그리고 자기의 초상화를 우리나라 사신 편에 부쳐 보낸 사실을 곁들여 놓았다. 이런 일은 일찍이 없었던 일이라고 연파를 상찬하였다.

이능화의 『조선불교통사』에는 백수시에 관한 내용이 등장한다. 여기에는 “근대 해남 대둔사의 연파 또한 호가 아암이다. 혜장화상은 일찍이 자신의 소회를 이야기하면서 말하였다. 삼베옷 입고 일찍이 산문을 내려오지 않았는데 / 부끄러운 것은 지금도 도를 이루지 못한 것이라네. / (뜰앞의)잣나무 공부로 어느 누가 힘을 얻었는가? / 연화 세계는 단지 이름만 들었다네. / 미친듯 부르는 노래는 매양 근심 속에서 일어나고 / 맑은 눈물은 흔히 취한 뒤에나 떨어지니 / 좌선을 그만두고 도리어 웃음을 터뜨리네. /

216) 『다산시문집』, 17권 「厥明年冬 其徒以其狀至曰 吾師不可以佛塔 先生不可以不銘 余曰然銘曰」.

우리 무리를 하늘 백성이라 헤아리지 말라고. / 백수시 끝에 협주에서 세상에는 이 시에서 쓴 ‘жат나무’, ‘연꽃’등의 말을 자못 비평하는 이도 있으며 심지어 배척하는 자도 있다고 상현은 말한다. 그러나 연파를 외도라고 하는 것은 과격한 논의가 아니겠는가. 이것은 공부에 힘쓰는 데 있어서 스스로를 비웃기도 하고 스스로를 격려하기도 하는 말에 불과하다. 연파화상이 어찌 부처를 비방하고 법을 훼손하려 하였겠는가?”라고 언급되어 있었다. 추사가 그전에 청나라 옹방강 앞에서 이 시를 외우자, 담계는 이 시가 자신의 지기(志氣)와 서로 합치된다고 말하면서, 추사에게 다시 『초재집』 10권인 『담계문집』과 진영(眞影) 한 건을 기증하였고, 정식적인 교제를 맺으려 하였다.²¹⁷⁾ 이는 옹방강이 다른 문건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연파의 백수시에 대해 찬사를 보냈던 이유였다.

「연파대사숙혜직소어인공화문원포어중국」은 『만덕사지』 권4 「연사승계(蓮社僧系)」 중 한 부분이다. 「연파대사비명」에는 연파가 어려서부터 지혜가 있었으며, 이로 인해 문망(聞望)이 중국에까지 알려졌음을 부각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있다. 「연파대사비명」에서 연파를 동방 제15조라고 한 것은 백련사의 승계를 초조 태고보우→ 2조 환암 혼수→ 3조 귀곡각운→ 4조 벽계정심→ 5조 벽송지엄→ 6조 부용영관→ 7조 청허휴정→ 8조 소요태능→ 9조 해운경열→ 10조 취여삼우→ 11조 화악문신→ 12조 설봉회정→ 13조 송파각훤→ 14조 정암즉원→ 15조 연파혜장으로 본다는 것이다. 「연파대사숙혜직소어인공화문원포어중국」에는 다음과 같이 언급되어 있다.

<2-1>

가경 신미년(1811) 가을, 연파혜장이 입적했다. 이해 겨울, 우리나라 사신이 연경에 들어가니 각학(閣學) 완원(阮瑗)과 옹공(翁公)의 아들 수곤(樹崑)이 담계옹의 『복초재시집』 2부를 그 아들 상상(上庠)에게 주며 말했다. (원문에 착오가 있는 듯하다. 추사는 1809년(己巳) 24세의 나이로 생원시에 일등 합격하고 그해 10월 28일 부친 김노경을 따라 연행하여 다음 해인 1810년 3월 17일 한국 입조하였기 때문이다.)

“귀국에 고승이 있는가?”

“아암 혜장이란 이가 있는데, 내외 경전에 두루 통해 동방에 이름이 높습니다.”

“귀국에 큰 절이 있는가?”

“대둔사가 있으니, 동방의 종원(宗院)이 됩니다.”

217) 이능화 『조선불교통사』 五 하권, p. 536. “近代 海南 大菴寺蓮坡. 又號兒菴 惠藏和尚. 嘗作述懷詩曰 麻衣曾不下山肩. 慚愧如今道未成, 柏樹工夫誰得力, 蓮花世界但聞名. 狂歌每向愁中發, 清淚多因醉後零, 坐罷蒲團還失笑, 莫將吾輩算天氓. 尙玄曰世以蓮花等語. 頗有議評甚至有斥之以外道者. 無乃過激之論也. 此不過是用功上自嘲自勉之辭也蓮坡和尚豈誘佛毀法云乎哉. 金完堂正喜. 誦此詩于前清翁覃溪方綱. 覃溪以爲與己志氣相合. 因介阮堂寄贈復初齋集十卷. 覃溪文集 伴以眞影一件. 以訂神交云.”

“장공은 어느 절에 있는가?”

“대둔사에 있습니다.”

“그 사람을 얻었고 또 그 땅을 얻었으니, 이것을 줄 수가 있겠소. 『담계시집』 1부를 향주의 영은사에 보관하였는데, 이제 또 한 부를 다행히 대둔사에 보관하여 오래 전하게 했으면 좋겠소.”

<2-2>

돌아와서 들으니 장공은 이미 세상을 뜨고 없었다. 다른 산에 보내려고 하다가, 수룡색성과 기어 자평이 그대로 대둔사에 있다 하므로 마침내 『담계시집』 6책이 대둔사로 돌아왔다. 이때가 계유년(1813) 겨울이었다. 이에 앞서 화원감목관(花源監牧官) 이황정(李黃庭) 태승(台升)이 아암과 더불어 물외에서 시주(詩酒)의 사귀를 맺었었다. 경성으로 돌아옴에 미쳐, 천신(薦紳) 간에 칭찬하여 마침내 이름이 중국에까지 도달했던 것이다. 그 후에 또 담계가 쓴 석판 『금강경』이 출판되어 나오자, 담계의 복을 빌기 위해 상원에 보관해 두었다.

<2-1>과 <2-2>는 「연파대사비명」과는 다른 글이다. 1814-1818년경에 편찬된 『만덕사지』에는 「연파대사비명」 끝에 「연사제명록(蓮社題名錄)」과 『대둔지』가 부기되어 있다. 위 글은 『대둔지』를 인용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어떤 책인지 자세하게 알 수 없다. 다만 허흥식(許興植)은 「대둔사지의 편찬과 그 가치」에서 이는 『대둔사지』일 것으로 추측하고 있으나²¹⁸⁾ 현전하는 『대둔사지』에서는 그런 기록을 찾을 수 없다. 여기에 언급된 내용을 살펴보면, 1811년 연파가 입적했던 그해 겨울 조선의 사신이 연경에 들어갔고, 옹방강은 조선에 혜장이라는 고승과 혜장의 주석처인 대둔사라는 큰 절(宗院)이 있음을 알게 되었으며, 자신의 시집인 『복초재시집』을 대둔사에 보관하여 오래 전하게 하라고 하였다는 것이다.

<2-1>에서 주목되는 것은 옹방강의 『복초재시집』을 달리 『담계시집』이라 하였다는 점이다. 담계·시경(詩境)·소재·복초재 등은 옹방강의 호이다. <2-2>에는 1813년에 『담계시집』이 대둔사로 보내졌다는 점, 황정 이태승이 연파와 시주(詩酒)로 사귀었다는 점, 황정이 경성으로 돌아와 지체 높은 이들[薦紳]에게 연파를 칭찬하여 그의 명성이 중국에까지 알려졌다는 점, 그리고 담계가 쓴 석판 『금강경』이 출판되자 담계의 복을 빌기 위해 그 경을 대둔사 상원(上院)에 보관해 두었다는 점 등이 기술되어 있다.

「연파노사유집발」은 1920년 8월 신경허가 엮고 신문관에서 발행한 3권 1책의 활자본인 『아암집』의 발문이다.

218) 『대둔사지』, 한국학문학연구소 아세아문화사, 1980, 부록.

<3-1>

우리나라 명사들이 시로 이름이 알려진 자가 많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이름은 우리나라의 경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다만 우리 노승의 시초(詩抄)는 중원까지 흘러들어 가 건륭 가정 연간의 대가와 명류들이 모두 부러움의 탄식을 발하였다. 각학 옹방강이 연기가 어려운 바라고 몹시 기뻐하며 망형의 교분을 표하기에 이르렀다.

<3-2>

이에 직접 그린 담계의 초상화와 동파소상, 『복초재시집』 6책, 그리고 직접 쓴 『금강경』 1책을 완당 김정희가 연경 사신을 갔다가 돌아오는 편에 부쳐왔는데, 지금까지 두륜산 중에 보관되어 있다. 이는 참으로 일찍이 없었던 인연이다. 그 시품이 빼어나지 않았다면 어찌 능히 이와 같았겠는가?²¹⁹⁾

<3-2>에는 지금까지 언급되지 않았던 동파소상이 처음 등장한다. 비록 앞뒤 연대가 잘 맞지 않지만 세 문헌의 내용은 이렇게 간추릴 수 있다. 추사는 1809년(기사년) 10월 24세의 나이로 부친 김노경을 따라 연행하여 옹방강을 만난 자리에서 연파의 백수시를 소개하였으며, 이 시를 들은 옹방강은 ‘득인득지(得人得地)’했다면서 자신의 『복초재시집』 1부를 대둔사에 보관케 하였다. 1810년 환국한 추사는 『담계시집』 6책을 비롯하여 담계의 초상화·동파소상, 그리고 담계가 직접 쓴 『금강경』을 대둔사로 보냈다.

이를 토대로 판단해 볼 때, 두 가지 문제점이 대두될 수 있다. 첫째는 연파의 백수시가 어떻게 해서 중국에까지 알려지게 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둘째는 현존하는 백수시가 문건마다 글자의 출입이 있어 서로 다르게 전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연파잉고』가 알려지기 전까지 연파의 백수시는 『아암집』에서나 확인할 수 있었다. 「장춘동잡시」 12수 가운데 맨 끝 수가 백수시이다. 장춘동은 해남 두륜산의 대둔사 입구의 골짜기를 말한다. 이곳은 유다(油茶)가 가득하고 겨우내 푸른 잎을 볼 수 있어 장춘동이라 불렸다. 「장춘동잡시」 12수 협주에는 “해남지두륜산만곡개유다호왈장춘동(海南之頭輪山滿谷皆油茶號曰長春洞).”이라 언급되어 있다. 「장춘동 잡시」 끝수인 12수는 대둔사 입구의 골짜기와 경내, 그리고 주변의 소소한 일들을 읊은 시로서 7언 율시로 구성되어 있다.

麻衣曾不下山肩
慙愧如今道未成
柏樹工夫誰得力
蓮花世界但聞名
狂歌每向愁中發

승복입고부터는 산문 밖 나간 적 없건만
여태껏 도를 이루지 못해 부끄럽기 그지없네.
정진 백수자 화두 공부로 누가 득력했단 말인가?
극락세계는 단지 이름만 알려졌을 뿐이지
마구 소리 지르며 부르는 노래 수심 중에 튀어나오고

219) 申鏡虛 編, 『아암집』 附錄, 新文館, 1920, pp. 5-7.

淸淚多因醉後零
坐罷蒲團還失笑
莫將吾輩算天賦²²⁰⁾

맑은 눈물은 취한 후에 하염없이 쏟아지네.
좌선하다 말고 방석 던지며 실소하니
나 같은 사람 훌륭한 수도자라 하지 말게.

이 시는 함련에 백수공부를 담고 있다. 백수공부는 조주종심(778-897)의 “뜰 앞의 잣나무(정전백수자)”가 화두로 전개되었다. 정전백수자에 관한 내용은 『선문염송집(禪門拈頌集)』 제11권에 있는 문답에서 연유된 것이다.

趙州因僧問 如何是祖師西來意

조주대사께 어느 승려가 묻기를, “조사께서 서쪽에서 오신 까닭은 무엇입니까?”

師云：庭前栢樹子

조주대사가 말하기를, “뜰 앞의 잣나무이니라.”

僧云：和尚莫將境界示人

그가 말하기를, “화상께서는 사람들에게 경계를 보이지 마십시오.”

師云：我不將境界示人

조주대사가 말하기를 “나는 사람들에게 경계를 보이지 않는다.”

僧云如何是祖師西來意師云庭前栢樹子

승려가 조사께서 서쪽에서 오신 뜻을 물으니, 조주는 뜰 앞의 잣나무라고 답했다.

연파는 위 화두를 참구하면서 시로 읊었는데, 그것이 백수시다. 물론 제목이 백수시인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정전백수자가 핵심용어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게 불렀을 뿐이다. 다산은 『다산시문집』 제20권 「상중씨(上仲氏)」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는 또 불법을 독실하게 믿으면서도 『주역』의 원리를 들을 때부터는 몸을 그르쳤음을 스스로 후회하여 실의(失意)한 듯 즐거워하지 않다가 6,7년 만에 술병으로 배가 불러 죽었습니다. 지난해 내게 보내준 시에²²¹⁾,

栢樹工夫誰得力
蓮花世界但聞名
又曰
孤吟每自愁中發
淸淚多因醉後零
.....

백수 공부로 누가 득력했나
극락세계는 단지 이름만 알려졌을 뿐이지.
하였고 또
외로운 읊조림 매양 근심 속에 나오고
맑은 눈물은 취한 후에 하염없이 쏟아지네.²²²⁾

220) 『다산학단문헌집성』 二.

221) 彼又深信佛法。自聞易理。自悔誤身。忽忽不樂六七年。以酒病腹脹而死。前年以詩示我曰。

222) 『다산시문집』 제20권.

위 글에서는 화두 참구가 뜻대로 되지 못했고 오로지 『주역』 생각뿐이었으며 수행자로서 고뇌를 느낄 수밖에 없었던 연파의 심정을 파악해 볼 수 있다. 더구나 다산은 이 편지에서 “그가 죽을 무렵에는 여러 차례 혼잣말로 ‘무단히, 무단히’ 라고 했습니다.”라고 하여 백수시가 연파의 고뇌 끝에 나온 것임을 말해 주었다. 다산은 자신이 지은 「만시(輓詩)」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靑山紅樹颯秋枯
 殘照傍邊有數鳥
 柞炭可憐銷傲骨
 楮錢那得買冥塗
 觀魚閣上書千卷
 養馬廂中酒百壺
 知己一生惟二老
 無人重作藕花圖

푸른 산 붉은 나무 싸늘한 가을
 희미한 낙조 곁에 까마귀 몇 마리.
 가련타 떡갈나무 숯 오골(傲骨)을 녹였는데
 종이돈 몇 냥으로 저승길 편히 가겠는가.
 관어각 위에 책이 천 권이요
 말 기르는 상방(廂房)에는 술이 백병이네.
 지기(知己)는 일생에 오직 두 늙은이
 다시는 우화도(藕花圖) 그릴 사람 없겠네.²²³⁾

위 만시에 언급된 경련의 협주에서 중요한 단서를 발견할 수 있다. 여기에는 “진도의 감목관 이태승은 곧 이서표의 아들인데 한번 만나서는 곧 벗이 되어 밤낮으로 싫도록 술을 마셨다”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 다산은 진도에서 말을 기르는 관리 곧 감목관이었던 황정 이태승과 술친구였다. 그러면서 미련에서는 연파의 지기로 두 사람을 들고 있는데 그 둘은 다름 아닌 다산 자신과 이태승이라는 것이다. 이태승은 생물연대가 미상이지만, 연파가 이태승에게 보낸 시가 남아있다. 『연파잉고』에는 제46수인 「장춘사잡흥정이사군태승」 12수가 남아 있고, 『아암집』에는 「봉간황정이공태승」이 남아 있다.

그런데 다산이 중씨에게 보낸 편지에서 말한 백수시의 구절은 『아암집』에 실린 그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 또한 그 내용은 『연파잉고』와도 다르다. 현재 하동 칠불암 설선당 주련(說禪堂 柱聯)에는 『아암집』과 같은 내용이 걸려있다. 앞에서 백수시의 원형을 제기한 이유는 이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백수시를 소개한 여러 문헌을 비교하여 차이점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223) 한글대장경 『연담대사임하록 외』, 동국역경원, 서울, p. 585.

<표13> 『연파잉고』, 『다산시문집』, 『아암집』, 『설선당 주련』의 백수시 구절 비교

『연파잉고』	『다산시문집』		『아암집』	『설선당 주련』
	『상중씨』	『아암장공담명』		
雲蹤曾涉塗程 慙愧如今道未成 栢樹工夫誰得力 蓮花世界但聞名 荒詩每自愁中發 清淚多因醉後零 坐罷蒲團還失笑 莫將吾輩算天氓	?	?	麻衣曾不下山局 慙愧如今道未成 栢樹工夫誰得力 蓮花世界但聞名 狂歌每向愁中發 清淚多因醉後零 坐罷蒲團還失笑 莫將吾輩算天氓	麻衣曾不下山局 慙愧如今道未成 栢樹工夫誰得力 蓮花世界但聞名 狂歌每向愁中發 清淚多因醉後零 坐罷蒲團還失笑 莫將吾輩算天氓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다산은 두 곳에서 백수시를 소개하고 있지만, 시구의 문자에 출입이 있다. 그렇다면 이 시의 원형은 가장 이른 시기에 언급된 것에서 찾아야 한다. 이는 1808년 담정 김려가 추사로부터 받은 『연파잉고』를 원형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연파의 백수시가 중국에까지 알려지게 된 이유는 『담정총서』 뒤에 수록된 「제연파잉고권후(題蓮坡剩稿卷後)」에서 그 답을 찾아볼 수 있는데 전문은 이렇다.

내가 무진년 여름에 여릉촌에서 서울로 들어와 여사에 머물렀는데 현란(玄蘭) 김원춘(金元春)(김정희)이 때때로 나를 방문했다. 두륜산 혜장의 재주와 생각이 출중하다는 말이 나오자 그로 인하여 혜장의 시고 한 권을 내게 주었다. 그 뒤 몇 년 후 산인 윤겸(允謙)이 편지로서 서로 문안하면서 다음해 가을에 금강산 산행 길에 서울의 사찰에서 상봉하자고 기약했는데 약속에 미치지 못하여 혜장 선사가 임적해버렸다. 예천(醴泉)이 적지 못하고 지원(芝畹)이 무성하지 못함은 진실로 만물 이치의 떳떳함이다. 사람이 서로 만나는 것 또한 운수가 있으니 슬프다. 이에 원춘(김정희)이 주었던 이 시고를 잘 베껴서 슬픈 생각을 부치노라.²²⁴⁾

무진년은 1808년이다. 현란은 추사 김정희의 호이고, 원춘은 그의 자(字)이다. 이때 추사는 23세였다. 담정은 1801년 강이천의 유언비어 사건을 재조사 받는 과정에서 천주교도와 교분을 맺은 혐의로 진해(鎭海)로 유배되었다가 1806년 6년간의 유배생활에

224) 김려 편지, 『담정총서』 3책, 6권, 학지원, 2014, p. 435. 余於戊辰夏 自廬陵村莊入京 留旅邸 金玄蘭元春 時時訪余 語及頭輪山人惠藏之才思出倫 因贈其詩稿一卷 其後數歲 因山人允謙以書相問 期翌秋金剛之行 相逢於京山庵刹 未及如約而師已圓寂 醴泉不潤 芝畹不茂 固物理之常 而可人相逢 亦有數存焉 吁可悲夫 茲叢寫其元春所贈之稿 以寓悵然之思耳.

서 풀려났다. 얼마 후 그는 향리 여릉(廬陵)에서 나와 서울 생활을 할 때 추사 김정희가 찾아와 연파의 시고 한 권을 주었다. 연파의 입적 소식을 듣고 그 시고를 베껴 쓴 것이 『연파잉고』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연파의 생전에 이미 그의 시초(詩抄)가 유행되었고 추사도 연경에 가기 전에 연파의 시를 잘 알고 있었다는 얘기가 가능하다. 따라서 연파의 시가 중국에 알려져 옹방강이 “이러한 시는 얻기 어렵다고 기뻐하면서 망형의 교분을 표한 것”(『연파노사유집발』, “我東名宿以詩有聞者 不爲不多而 其名不踰方域矣 惟我老師詩抄 流入中原 乾嘉間 鋸手名曹 咸發羨企之歎 至若翁閣學方綱 深喜難得 爲表忘形之契.”)은 추사 때문이었음을 알 수 있으며, 이것은 앞에서 언급한 『조선불교통사』의 사실과도 일치한다.

『동사열전』에도 “연파의 문집 한 권이 세상에 유통되고 있으며 제자들에 의해 상원암(上院庵)에 영각(影閣)이 건립돼 연파의 영정이 봉안되었다. 다산이 비석 명문에서 이미 언급한 것처럼 연파는 대둔사 12대강사 중 가장 후대의 인물이다. 뒷날 『동사열전』의 저자인 범해가 포함돼 13대강사라고 일컬어졌으나 아무튼 연파는 조선중기 이후까지 당대를 풍미하였던 11명 대강백의 학문적 전통을 바탕으로 교학의 꽃을 피웠던 학장(學匠)이다.”²²⁵⁾라고 언급되어 있다. 여기에서 ‘연파의 문집 한 권이 세상에 유통되고 있으며’라는 내용은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연파잉고』를 말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동사열전』은 1894년에 『아암집』은 1920년에 간행되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초의와 추사의 첫 만남은 1815년 수락산 학림암에서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추사가 연경에서 옹방강에게 받아온 부처님 진신사리를 대둔사에 전달한 것은 추사와 초의가 상면하는 계기가 되었는데 그 때가 1810년의 일이다.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는 추사가 옹방강에게서 받아온 부처님 진신사리를 봉안할 때 쓴 대둔사의 「두륜산 석가여래 진신 사리탑 건립 봉안기(頭崙山釋迦如來眞身舍利塔建立奉安 記)」²²⁶⁾에 담겨있다.

삼가 살피건대 불타입멸 후

.....

공은 고향의 각 사찰을 두루 찾아보아도 전기한 승려가 없는지라 문득 심육성중의 가호인줄 깨닫고 年 四會씩 凡二百餘회를 나한님께 헌공하였습니다. 이 승연을 이어받은 동파거사는 당나라 말기의 화성인 축의 금수장씨가 그린 십팔나한성상을 해남의 담이라

225) 범해 撰, 김윤세 역, 『東師列傳』, 1991, p. 268-269.

226) 본고에서는 「두륜산 사리탑기」로 약칭함.

는 지방에서 우연히 얻어 아우인 소철에게 주어 공양 올리게 하였으며 이 나한상에 각기 송을 붙여 찬탄하였습니다. 또 동파거사의 가에는 그의 외조부 정공으로부터 전수되어 온 십육 나한상을 봉안하였는데 매양 차 공양을 실시하면 이 차는 꼭 백유로 화하였으며 혹은 응결하여 설화, 도리, 작약 등이 되었으나 이는 나한님의 자비가 심중하사 감흥하시어 신변을 나투신 것이라 하겠습니까. 그리고 전기한 진신사리는 사제 간에 전전 상전하여 청나라 말기의 대석학인 옹방강 선생에게 전하여졌는데 선생은 이 사리를 추사 김정희선생을 통하여 두륜산 연파해장선사에게 증명하였습니다. 연파선사는 불교와 유학에 조예가 깊은 고승으로 일찍이 주역을 주석한 바가 있는데 옹선생이 이 주석서의 내용을 전해 듣고 동방성인이라 칭송해 마지않았으며 이에 부처님 진신사리와 자신의 문집일집과 손수 사경한 금강경 일권 등을 추사를 통해 보내온 것입니다.

이때가 추사의 나이 이십오세 때인 서기 1810년의 일로서 추사가 초의 선사를 처음 상면하게 된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연파선사는 당시 사찰 형편이 어려워 사리탑을 조성하지 못하고 입적하시면서 수제자인 수릉화상에게 전하였고 화상은 다시 제자 철선화상에게 전하였으며 이어 풍암취운 등 수제자의 대로 내려와서 연파선사의 제오대손인 응송노화상에게까지 전수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제 대흥사에서는 이 희귀하게 비장되어 구백 년을 내려온 부처님 진신 사리를 대흥사경내에 적멸보궁과 보탑을 건립 조성하여 봉안하기로 발원하였습니다. 이 발원은 응송노화상이 진신 사리를 전수받은 뒤 근 오십 년 동안 사리탑 봉안을 꾸준히 발원해 왔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여 천추의 한을 간직하게 됨을 매양 애석하게 여기던 것을 이제 수승한 시절인연을 얻어 환희한 마음으로 선대로부터의 염원을 달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 회대의 대 불사를 위하여 대흥사에서는 경신년 서기 1980년 양 오월 4일(음 3월20일)을 기하여 분공 보탑 건립조성을 기원하는 천일기도를 남방유일의 천불전에서 입재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김해포교당 신도님들이 혼연히 뜻을 모아 사리탑조성불사에 앞장서서 작금에 사리탑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강호사부대중불자님들에게 바라옵노니 이 숭고한 불사에 모두 동참하시어 원만히 성취되도록 힘이 되어주시고 겸하여 이 불사에 동참한 불자님들에게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항상 함께 하사 바라는 바 소원이 속이 이루어지 유품을 기원하는 바입니다. 서기1980년(불기 2523년) 증명 서용 대종사 회주 응송대선사

총 도감 백운화상 대작 불사발원

천일기도 입재 서기 1980년 5월4일(음 3월20일) 두륜산 대흥사 주지 석지우 분향 근지²²⁷⁾

위 「두륜산사리탑기」에서 진신사리를 사리탑에 모시고자 발원했던 응송 노스님은 『동다정통고(東茶正通考)』의 저자인 박영희 스님이다. 또 그 뜻을 받들어 ‘총 도감 백운화상 대작 불사발원’이라고 한 백운화상은 지금 담양 용흥사에 주석하고 있다. 응송(1893-1990) 스님은 근현대로 이어진 대둔사 선다(禪茶)의 원형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

227) <http://www.daeheungsa.co.kr>, 「두륜산 석가여래 진신 사리탑 건립 봉안 기(頭崙山 釋迦如來 眞身舍利塔 建立 奉安 記)」.

서 실제 경험했던 인물이다. 그는 출가당시 다각(茶角)소임을 맡았던 경험을 소중하게 여겼다. 이로 인해 그는 초의와 차에 대한 자료를 소중히 보관하였을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차를 연구하여 초의차를 복원하기도 하였다. 응송은 인담 능오(印潭 能悟)를 은사로 사미계를 받았고, 원응 계정을 법사로 사교과를 수료하였다. 응송에게 법을 전한 원응의 법맥을 거슬러 올라가보면 대둔사 초의 다맥과의 관련성을 발견할 수 있다.²²⁸⁾

무엇보다도 위 「두륜산사리탑기」 중간쯤에 “추사의 나이 이십오세 때인 서기 1810년의 일로서 추사가 초의 선사를 처음 상면하게 된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라고 한 부분은 이 논문의 핵심 키워드가 된다. 왜냐하면 추사와 초의가 처음으로 상면한 시기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1815년 아니라 1810년이라는 것이 여기에서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는 추사가 1809년에 청에 가서 1810년에 돌아왔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무리가 없다. 「두륜산사리탑기」 이전의 어떤 문건에서도 초의와 추사의 만남에 대한 정확한 연대를 언급한 것이 없다. 그 동안 두 사람의 만남 시기에 대한 추측만 있었는데, 이 문건에서 비로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선 후기 차문화사에서 중요한 사실을 제공해 준 셈이다.

또 다른 두 증거 자료가 있다. 하나는 김해 연화사의 「연화사 칠층사리탑 연혁비(蓮華寺七層舍利塔沿革碑)」²²⁹⁾에서 언급하고 있는 불사리에 관한 내용이다. 다른 하나는 김해 만장대 해은사의 「파사석탑 적멸보궁의 연혁」²³⁰⁾이다. 이 두 증거 자료도 그 내

228) 이종수, 「응송 박영희 소장 불교문헌의 종류와 가치」, 『佛教學報』 제68집, 2014, pp. 305-306.

229) <상략> 응방강은 조선의 사신으로 온 추사에게 간직하고 있던 경전과 진신사리를 전해준다. 추사는 귀국하여 해남 대흥사 연파 해장선사에게 증정하고, 그는 다시 다성 초의선사에게 전수하고, 이것은 그의 법손인 응송화상에게 전수된다. 응송화상으로부터 증정 받아 옛 중궁터 연화사 칠층사리탑에 3과를 모시고, 분산 해은사의 만장대 타고봉에 재현된 '파사석탑'에 3과를 모셨다는 것이다.

230) <상략> 이때 조선의 사신으로 온 젊은 추사 김정희를 보더니 반겨 맞으며 “당신은 전생에 서역에서 나와 같이 수행하던 돌 없는 도반이구려. 하고는 이것은 천년이 넘게 전수되어 오는 진귀한 석존의 진신 사리인데 전생의 도반인 당신에게 전수하여 조선의 불교가 다시금 꽃피웠으면 좋겠소.”하며 고이 간직하고 있던 경전과 진신 사리를 전해주시 소중히 받들어 모시고 돌아왔다. 추사는 곧 바로 해남 대흥사 연파해장선사에게 증정하니 추사 나이 25세 때며 지금으로부터 약 200여 년 전 일이다. 그 후 다시 다성으로 잘 알려진 초의선사에게 전수되고 다시 그의 법손들에게 전해지면서도 불사의 인연이 닿지 못해 인연의 도래만을 기다리던 중 김해 신도 회장 배석현 거사가 한일주식의 후원으로 김해 연화사에 칠층 사리탑과 해은사에 옛 파사석탑을 재현하고 진신 불사리를 구하던 중이었다. 그때 범어사 백운 대강백으로부터 이 소식을 전해 듣고 해남 백화사에 주석하는 초의선사 법손인 응송 노화상을 함께 찾아 보니 쾌히 승낙하십시오써 3과는 연화사의 칠층석탑에 모시고 3과는 분성 만장대 해은사 타고봉에 모시게 된 것이다.<후략>.

용이 흡사하다. 이상 세 가지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은 추사가 연경에 갔을 때 옹방강에게 진신사리를 받아와 대둔사에 주석하고 있는 연파에게 전했다는 내용이다. 이로써 추사와 대둔사의 연결 고리가 확인되는 셈이다. 추사가 대둔사와 인연을 맺지 않았다면, 그가 대둔사 승려들이나 초의와 관계를 맺을 수 있었을까? 승설차를 맛 본 추사, 그에 못지않은 차를 만들 수 있는 연파, 이 두 사람의 만남이 좀 더 지속되었다면 조선의 차문화는 비약의 발전을 했을지도 모른다. 나중의 일이지만 연파 사후에 연파를 대신한 초의의 있었기에 추사는 대둔사 차문화를, 초의의 차를 경화사 족에게 더욱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사실이다. 추사가 초의와 대둔사의 차문화를 알렸다는 사실이 조선의 차문화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은 연파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다시 말해 연파가 없었다면, 추사가 초의를 만나고 대둔사 차문화를 확산시키기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을 것이다. 따라서 대둔사 승려였던 연파는 대둔사의 차문화, 더 나아가 조선 후기 차문화의 증흥에 큰 디딤돌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연파와 추사의 짧은 인연은 추사가 쓴 「소영은」 현판 옆에 적힌 제기(題記)에서 다시금 확인된다.



<그림1> 소영은 현판

응담계 선생께서 『복초재집』을 당나라 백거이(白居易)의 동림고사(東林故事)를 모방해서 항주(杭州)의 영은사(靈隱寺)에 소장케 하였다. 나 또한 「복초재집」을 해남 대둔사에 보내 소장케 하고 소영은 3자를 써서 慈弘, 曠性 두 승려께 보낸다. 소봉래학인(小蓬萊學人)²³¹

현판에 적혀 있는 소봉래학인은 추사의 별호이다. 추사는 연경에 다녀온 후 봉래를 배우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자신을 소봉래 학인이라 자칭하였다. 현판에 찍힌 인장에도 ‘소봉래각(小蓬萊閣)’이라는 인문(印文)을 사용하였다. 추사가 소영은 현판을 연파의 두 제자인 색성과 자홍에게 보냈다는 글이 있다. 이는 동림고사²³²⁾가 백낙천이 자신의 『백씨문집(白氏文集)』 50권 본 이후의 것을 모아 『백씨후집(白氏後集)』 20권을 편하여 예산 동림사(東林寺)에 영구 보존케 한 사실을 뜻하는 내용이다. 현판의 글씨는 추사의 30대 글씨로 추정되며, 전형적인 옹방강 풍의 해행 글씨이다.²³³⁾

다음은 다산이 이강회의 이름으로 추사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이다.

운곡의 야인 이강회는 소봉래 선생의 경계 아래 글을 드립니다. 강회가 족하를 만나본 것은 마치 운남과 광동사람이 북쪽으로 연경에 놀러갔다 그 문인학사를 보게 된 것과 한가지입니다. 돌아와서도 족하의 말하는 모습과 미간의 기색이 또렷이 마음에 남아있습니다. 돌아보건대 날마다 머리를 맞대고 논의한 것은 시골 어린아이나 들 늙은이가 조세(租稅)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하면서 향관은 칭송하고 이정은 역사는 것 일 뿐이었습니다. 이 마음이 어찌 편안할 수 있겠습니까? 인하여 족하께서도 작별한 뒤로 건강하신지 문안을 드립니다.

.....

『담계시집』 및 「소영은」 제액을 나란히 기어 자홍에게 부쳐주시니, 이들이 감격하여 기뻐 뛰며 서둘러 보배로 간직하기를 피하고 있습니다. 담계의 소상(小像) 또한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이만 줄이웁고 삼가 씁니다. 계유년(1813)년 11월 20일 이강회 드림.²³⁴⁾

231) “翁覃溪先生復初齋集，用白香山東林故事，藏于杭州之靈隱寺。余又以復初齋集，寄莊於海南之大菴寺，仍書小靈隱三字，并寄弘曠二師，小蓬萊學人。”

232) 동림사는 동진의 고승 혜원에 의해 건축되었으며 동림사 앞쪽에는 호계교라는 이름을 가진 돌다리가 있는데, 혜원이 주지로 있을 때 청정한 수행을 실천하기 위해 손님을 배웅할 때 이 다리를 건너 절 밖으로 나가지 않기로 원을 세웠다. 그러나 어느 날, 도연명과 육수정 두 사람이 내방했을 때, 세 사람의 의기가 투합하여 이야기를 나누다가 무심코 이 다리를 건너버렸고, 이때 호랑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정신을 차린 세 사람이 서로의 얼굴을 보며 크게 웃었다고 한다. 이로부터 ‘호계삼소虎溪三笑’라는 말이 생겼고, 혜원과 육수정陸修靜과 도연명陶淵明은 각각 불교와 유교와 도교의 상징적인 인물이기도 해서 ‘호계삼소’라는 말은 이 셋의 화합을 의미하는 것으로도 전해지고 있다.

233)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 (4) 추사의 스승 옹방강 詩集 ‘복초재시집’, 김영복 KBS 진품명품 감정위원.

234) 정민(a), 위의 책, pp. 550-552. 李綱會 <余小蓬萊先生> : 雲谷野人李綱會致書于小蓬萊先生經几之下。綱之得見足下，如雲南廣東之人，北遊燕京，得見其文人學士，及歸而足下漬之言貌眉色，歷然在心，顧日所對頭者，及是村樾野老。評租議稅，誦鄉官譏里正而已。此必安得不勞。因問足下別來無恙，所示潮汛之理一貫之說，歸而獻之，大蒙心賞，此心誠悅。.....，覃溪詩集及小靈隱題額，並付騎魚弘，伊等感激踴躍，亟謨珍藏，覃溪小像，亦方懇望耳，不宣，謹狀，癸酉十一月二十日，李綱會拜。

발신자 이강회는 다산의 강진시절 제자였으며, 수신자는 소봉래 선생, 즉 추사였다. 다산은 드러낼 수 없는 신분이었기에 아마 제자의 이름을 빌어 추사에게 편지를 보낸 듯하다. ‘돌아와서도 족하의 말하는 모습과 미간의 기색이 또렷이 마음에 남아있습니다.’, ‘작별한 뒤로 건강하신지 문안을 드립니다.’를 살펴보면, 다산과 추사의 만남이 이미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편지가 쓰인 시기는 1813년인데, 이는 아마도 두 사람이 이전에 이미 만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연파와 추사의 직접적인 인연은 아직까지 밝혀진 바 없으나 여러 문헌에 나타나있는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추사는 연파의 시고를 지니고 있었다. 「제연파잉고권후」에는 추사가 담정 김려에게 연파의 시집을 보여주었다고 언급되어 있는데, 이는 김려가 자신의 문집 『담정총서』 속에 『연파잉고』를 수록해 놓는 계기가 되었다. 추사가 연파의 시고를 어떻게 소장하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추사집』에 동쪽에서는 사귄만한 선비가 없다고 말했던 추사의 높은 안목에 비추어 볼 때, 추사는 『연파잉고』를 가지고 다니며 김려에게 보여주었고 연파의 학문을 높이 평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추사가 아버지 김노경을 따라 연경에 갔을 때 『연파잉고』에 수록된 「장춘사잡흥정이사군 태승」동 잡시 12수중 끝수인 백수시를 청대 석학이었던 옹방강 앞에서 읊자 옹방강은 자신의 지기와 맞는다고 찬탄하면서 자신의 시집(『복초재시집』)과 부처님 진신사리, 『금강경』을 대둔사에 선물로 보냈다. 이는 조선의 승려인 연파의 학문을 청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추사는 1809년에 청에 가서 그 다음해 3월에 돌아왔다. 여러 문건에는 추사가 옹방강의 선물을 대둔사에 보냈을 때 연파는 이미 입적했으며 그의 제자들에게 전해 보관하도록 했다고 적혀 있다. 하지만 「두륜산 사리탑봉안기」에는 1810년 추사가 선물을 가지고 대둔사를 방문해 연파에게 증정한 것이 추사가 초의를 처음 상면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음을 명시하고 있다. 추사가 연경에서 돌아온 것은 1810년 3월이기 때문에 대둔사를 방문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셋째, 추사는 연파로 인해 대둔사와 인연을 맺게 되었다. 추사의 1809년 이전 기록에는 대둔사와의 인연에 대한 어떤 내용도 언급되어 있지 않았다. 추사는 옹방강의 선물을 연파에게 증정하려 대둔사를 방문했을 때 처음 대둔사와 인연을 맺었다고 말할 수 있다.

넷째, 일반적으로 추사와 초의가 처음 만난 것은 초의의 나이 30세, 즉 수락산 학림암에서 초의가 해봉대사를 모시고 있을 때인 1815년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첫 만남은 어떤 문헌에도 나타나 있지 않으며 추측만 하고 있을 뿐이다. 본고는 여러 문헌과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추사와 초의의 첫 만남이 1815년이 아니라 1810년으로 비정(比定)하고자 한다.

다섯째, 연경에 가서 용단승설차를 맛보고 차의 새로운 세계를 접한 추사는 초의를 통해 차생활의 영역을 넓혀 나갔다. 초의도 추사를 통해 차문화에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었고, 초의차를 경화사족에게 더욱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추사는 초의차를 완성하였고, 초의가 차의 성인으로 불릴 수 있는 실질적인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이로 인해 대둔사 차의 위상은 높아졌고, 더 나아가 조선 후기 차문화도 발전하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추사와 대둔사의 인연을 맺어 준 근거(根底)에는 연파가 있었으며, 조선 후기 차문화 주역들의 관계를 엮어준 교량의 역할도 연파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더 나아가 조선 후기 차문화 발전의 맥을 전승하는데 큰 역할을 한 사람도 연파였다. 연파가 입적 한 후 조선 후기 차문화를 이끈 대표적인 두 사람은 대둔사의 13대종사와 강사인 초의와 범해였다. 다성 초의는 차문화의 중흥과 정립을 이끈 승려였으며, 범해는 차문화를 계승한 승려였던 것이다.

2. 차문화의 정립과 계승

1) 차문화의 정립과 초의

초의는 운흥사에서 1809년 대둔사로 거처를 옮겼다. 그는 강진에 유배되었던 다산을 만나 유학에 관한 서책을 받고 시와 주역 등을 배웠다. 신헌(申憲, 1810-1884)이 찬한 「초의대종사탑비명」에는 초의가 다음과 같이 묘사되어 있다. “종다산승지 수유서관시도 이후정통교리회척선경 시유운유지오(從茶山承旨 受儒書觀詩道 而後精通教理恢拓禪境 始有雲遊之興)”²³⁵⁾에는 초의가 다산의 뜻을 받들어 유가에 관한 서책을 받아들이고, 시도(詩道)를 살피고 후에 교리에 정통하였으며, 선경을 널리 펼쳤고 마침내 사망을 돌아다니는 오묘함을 지니게 되었다는 내용이다. 다산과 초의가 어떻게 만났는지는 밝혀져 있지 않지만 다산과 연파의 교류가 활발하던 때 연파의 소개로 초의가 다산을 만났을 가능성이 높다. 초의는 승려로서 드물게 다양한 분야에 대해 해박한 지식과 소양이

235) 申憲, 『艸衣大宗師塔碑銘』, 『초의시고』 卷之下.

있었고 차를 직접 재배하고 차에 관한 문헌을 정리한 인물이었다. 초의는 연파와 같은 편양파에 속하였고, 조선 후기 선교의 종장인 환성에서 대둔사 화엄교학의 태두인 연담의 계보를 이었다. 이런 면에서 초의는 조선 후기 불교사상과 문화예술, 그리고 학술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이다. 초의의 행적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로는 신현의 「사호보제존자초의대종사의순담비명(賜號普濟尊者艸衣大宗師意詢塔碑銘)」, 이희풍(李喜豊, 1813-1886)의 「초의대사탑명(草衣大師塔銘)」, 홍석주(洪奭周, 1793-1865)의 「초의시집서(草衣詩集序)」, 신위(申緯, 1769-1845)의 「초의시집제(草衣詩集題)」, 석오 윤치영(石悟 尹致英, 1803-1857)의 「초의시고발(草衣詩稿跋)」, 백파 신헌구(白坡 申獻求, 1823-1902)의 「초의시집서(草衣詩集序)」, 범해의 「동사열전(東師列傳)」, 「다비계안(茶毘契案)」, 허련(許鍊, 1808-1893)의 「몽연록(夢緣錄)」, 석전 박한영(石顛 朴漢永, 1870-1948)의 「초의비명(草衣碑銘)」, 이능화의 「조선불교통사(朝鮮佛教通史)」 등이 있다.²³⁶⁾

초의는 추사 형제, 다산의 아들 정학연과 정학유, 신위, 홍현주 등 당대의 명사들과 시문을 주고받았으며, 이후 평생 동안 이들과 교류하였다. 초의의 시문집에서 확인되는 시 400여 수 가운데 추사, 다산을 비롯한 이름난 유학자와 주고받은 시는 100여 수를 넘는다. 초의와 유학자의 교류관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이는 추사였다.²³⁷⁾ 동년배인 이들은 시, 예, 차의 지음(知音)이었고, 유·불사상의 교류를 함께 나눈 평생의 지우였다. 그런 지우인 추사를 만난 것도 사대부들과 깊은 정을 나누었던 일도 연파와의 인연으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추사와의 만남을 통해 초의는 경화사족들과의 교류를 넓힐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초의차는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되어 경화사족들의 애호품이 되었다. 또 순조의 부마인 홍현주가 진도부사 변지화(호·북산도인)를 시켜 초의에게 다도를 청문케 한 인연으로 초의는 『몽다송』 일편을 지어 보냈다.²³⁸⁾ 박동춘은 『초의선사의 차문화관 연구』에서 “청대의 고증학자인 옹방강은 대흥(大興)에서 『원각경(圓覺經)』을 사경하여 초의에게 보내기도 하였다. 옹방강이 사경한 『원각경』은 근자까지 응송 박영희가 소장하였다.”라고 밝혔다. 청대 학자 옹방강과의 교류를 주선한 사람은 추사였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236) 최성렬, 「草衣 意詢에 對한一考察, — 詩書畫三絶과 關聯하여-, 『철학논총』 제56집, 제2권, 2009, p. 282.
 237) 김용태, 「초의선사의 학예와 사상: 19세기 호남불교의 초상」, 『불교기록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 용흥사 소장 자료의 조사·연구 사례를 중심으로』, 2012, p. 42.
 238) 최범술, 『한국의 다도』, 1975, p. 32.

초의의 저술을 주제별로 나누면 선사상, 시문, 차로 대별할 수 있다. 먼저 사상서로는 『선문사변만어』가 대표적인데, 이는 백파 공선이 『선문수경(禪文手鏡)』에서 선을 차등적으로 분류한 것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한 내용이다. 또한 승려 교육과정의 대교과에 속한 『선문염송』을 요약, 주석한 『초의선과(草衣禪果)』도 있다. 시문집으로는 『초의시고(草衣詩藁)』 2권(필사본 4권)과 『일지암문집』 2권이 있는데, 여기에는 시 400여수와 52편의 기문 및 탐 비명 등이 수록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차에 관한 저술로는 『다신전』, 『동다송』이 있다. 그는 『동다송』에서 우리의 토산차를 찬양했고, 다도의 본령을 해설했다. 칠불암의 선승들이 천하에 좋은 차를 속된 솜씨로 못쓰게 한다고 안타까워했던 그의 차 법제 솜씨는 참으로 뛰어난 것이었다. 그는 해마다 직접 만든 차를 교유하던 많은 문인들에게 선물함으로써 음다의 풍을 확대하기도 했다. 또한 두륜산에 일지암(一枝庵)이라는 작은 암자를 짓고 40여년을 수행에 몰두하였으며, 선과 시와 그림 등에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한 고승이었다. 불가에 조주풍의 ‘긱다거(喫茶去)’ 전통은 오랫동안 선림에 습윤된 수행풍토였으나 초의는 다도의 원리를 아는 이가 적어서 다시 이 음다의 수행풍토를 이어나가려는 뜻을 천명하였다. 초의는 사미 수홍이 다도를 알려고 하는 뜻을 가상히 여겨 그에게 우리의 풍토에 알맞은 내용으로 다시 정서해 주려 했지만 여의치 않았다. 초의는 수행 틈틈이 수정 보완을 거쳐 『다신전』을 완성했다.

초의는 『다신전』 발문에 “무자년(1828) 장마 때에 스승을 따라 방장산 칠불암 아자방[七佛啞院]에 갔을 때에 글을 베껴 적어 내려왔던 것인데, 다시 정서(正書)하려고 마음은 먹었으나 병으로 인하여 마무리를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²³⁹⁾고 적었다. 그렇다면 초의가 위에서 말한 스승은 과연 누구인가? 이에 대한 해답은 서상수계와 『다신전』의 관계에서 찾아볼 수 있다. 조선 후기에 접어들어서 영암 도갑사의 대은 낭오(大隱 朗悟) 화상은 그의 스승 금담(金潭) 장로와 더불어 계학(戒學)이 실전(失傳)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개탄하였고, 1826년(순조26) 7월 15일 해제 후 하동 칠불암 아자방에서 서상수계(瑞祥受戒)를 서원한 후 7일간 기도를 봉행하던 중 7일 만에 일도서광(一道 瑞光)이 대은의 정수리에 관주(灌注)하였다. 이에 대해 스승인 금담이 이르기 를 “나는 오직 법을 위함이요 사자(師資)의 서열에는 구애받지 않는다.”면서 “곧 상좌인 대은을 전계사로 하여 보살계와 비구계를 받았다”라고 하였다.²⁴⁰⁾ 이와 같이 대은과 금담은 상좌와 스승 관계였고 나이 차이도 금담이 16세나 많았으나 서상수계로 인하여 스승과 제자가 바뀌게 되었다.

239) 고월 용운의 옮김(2010), 위의 책, p. 129.

240) 박동춘, 『초의선사의 차문화연구』, 일지사, 2010, p. 53. 참조.

따라서 초의가 칠불암에 갔던 시기인 무자년(戊子) 장마 때[雨際]는 1828년은 칠불암 아자방을 찾아 금담에게 서상수계를 받기 위해 갔던 때를 이르는 것이다. 계를 받고자 칠불사를 방문하였는데, 『만보전서』에서 『다신전』을 등초하게 되었다. 금담은 칠불사 체류 중 『만보전서』에서 차에 관한 내용을 발견하였고, 평소에 차에 관심이 많았던 제자 초의에게 『만보전서』를 보여줬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스승의 권유로 책을 읽어 본 초의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제다법에 주목하였고, 등초하여 내려왔다. 초의의 『다신전』을 등초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칠불사에 머물러 있었던 스승 금담의 뜻이었다고 판단된다.²⁴¹⁾ 이런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초의의 『다신전』은 서상수계와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었다. 초의가 금담에게 수계를 받았던 사실은 범해의 『동사열전』에 “금담조사에게 수선(受禪)하였다”라고 언급된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초의의 율백은 범해에게 수계되었다.²⁴²⁾

초의의 시문집에서 확인되는 시 400여수 가운데 당대 유학자와 주고받은 시가 100여수나 된다. 초의는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다도를 정립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유교 지식인들의 필수 조건인 시·서·화에 깊은 식견을 가지고 있었다. 다산은 초의가 비록 승복을 입고 있었지만 유교적 지식과 교양을 갖춘 인물로 높이 평가하였다. 다산이 쓴 「증초의선(贈草衣禪)」이라는 제목의 시에는 다음과 같이 언급되어 있다.

毳毼草衣	축 늘어진 초의와
髣髴禿髮	풀어헤친 민둥 머리에.
剝爾禪皮	너의 중 꺾대기 벗겨 버리고
露爾儒骨	너의 유가의 뼈 드러났는데.
古鏡既磨	묵은 거울 이미 갈고 닦았고
新斧非鉏	새 도끼는 무디지 않아서.
見明星悟	이미 밝게 깨치었으니
是第二月	이것이 곧 무(無)의 세계일세. ²⁴³⁾

이 시는 초의의 불교적 입장에도 불구하고 그의 유교적 사상과 지식이 높았음을 표현하고 있다. 산천도인 김명희는 초의가 보낸 차를 마신 후 “이렇게 좋은 차를 어찌 사랑하지 않겠는가?”라고 「사차(謝茶)」의 시를 보내면서 고백했다.

241) 송해경, 「초의 『다신전』 등초의 차문화사적 의의」, 『韓國禪學』 제36호, 2013, pp. 51-52.

242) 박동춘, 「초의선사의 차 문화관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p. 31.

243) 정약용, 『다산시문집』, 6권, 「贈草衣禪」.

老夫平日不愛茶
天憎其頑中瘡邪
不憂熱殺憂渴殺
急向風爐瀹茶芽
自燕來者多贗品
香片珠蘭匣以錦
曾聞佳茗似佳人
此婢才耳醜更甚
艸艸忽寄雨前來
籜包鷹爪手自開
消壅滌煩功莫尚
如霆如割何雄哉
老僧選茶如選佛
一槍一旗嚴持律
尤工炒焙得圓通
從香味入波羅蜜
此秘始挾五百年
無乃福過古人天
明知味勝純乳遠
不恨不生佛滅前
茶如此好寧不愛
玉川七碗猶嫌隘
且莫輕向外人道
復恐山中茶出稅

늙은이 평소에 차 즐겨 않았기에
하늘이 노여워해 학질에 걸렸네.
열은 걱정 없으나 갈증이 심하여
급히 풍로(風爐)를 지펴 차이를 달이네.
연경에서 온 것은 가짜가 많아
향편(香片)이니 주란(珠蘭)이니 비단 갑에 들었네.
듣자니 좋은 차는 아름다운 사람 같았는데
그것은 계집종 같아 추하기가 그지없다.
초의선사 홀연히 우전차를 부쳐오니
죽순깍질로 찐 응조차를 손수 꺼내보네.
막힘 뚫고 번뇌 씻어주는 공이 대단하여
우레인 듯 쪼개는 듯 어찌 이리 웅장한가.
노승이 차 고르길 부처님을 고르듯
일창 일기만을 엄히 지켜 고르네.
초배숨씨 원만하고 두루 통함을 얻으니
향 내음 좇아서 바라밀에 드는구나.
이 비법 5백년 만에 비로소 들추어내었으니
그 복이 옛 사람의 천복보다 훨씬 낫구나.
맛이 순수한 짓보다 훨씬 좋다는 것 분명히 알겠으니
불멸에 앞서 나지 못함 한탄하지 말게나.
차가 이리 좋으니 어떻게 사랑치 않겠는가!
육천의 칠완도 오히려 적다하겠네.
경솔히 범속한 인간에게는 말하지 말게나.
다시 산중에 차 세금 매길까봐 염려되네.²⁴⁴⁾

이 시는 초의의 차에 대한 지식과 식견을 높이 칭송하고 있다. 산천은 초의가 바라밀의 경지를 드러낸 차를 만든 공로와 초의에 의해 오백 년 만에 처음으로 재현된 차 문화를 칭송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좋은 차를 어찌 사랑하지 않겠는가.'라는 그의 고백은 차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차린 산천의 마음이 드러나 있다. 중국에서 들여 온 차들은 형편없어 갈증 해소에 아무 소용없다는 내용도 있다. 이 시에서는 차의 효능, 초의 차 보관법, 초의차가 고급 단차였다는 사실을 말해주기도 한다.

신헌구(申獻求, 1823-1902)의 『추당잡고(秋堂雜稿)』 권1에 수록된 「차설(茶說)」에는 해남에서 만든 초의차에 대해 소중한 기록을 남겨놓고 있다. 그는 초의차가 운유(雲腴)보다 낫다고 이렇게 격찬하고 있다.

244) 『草衣詩稿』 卷之下, 「謝茶」.

“내가 사물이 나는 것을 살펴보니, 먼데 것은 버려지고, 때와 만나지 못하면 감춰진다. 도리(桃李)의 문에 있지 않으면 사람이 알지 못하고, 종남산 가는 길목에 들지 않으면 재목이 팔리지 않는다. 슬프다. 해양(海陽)의 옥천차(玉川茶)는 기운과 맛이 꽃답고 짙어서, 설화(雪花)와 운유(雲腴)도 이보다 더 낫지는 않다.”²⁴⁵⁾

.....

이 시에 언급된 해양(海陽)은 해남을 말하고 옥천차(玉川茶)는 초의가 만든 초의차를 일컫는다. 이는 당나라의 시인 노동(盧仝)의 호인 옥천자(玉川子)에 기인한 것으로, 노동은 은거생활을 하면서 차를 좋아하여 유명한 차 노래를 지었다. 이 「차설」의 원래 제목은 「해차설」인데 나중에 ‘해(海)’자를 지워 「차설」로 고쳤다.

신헌구는 세상 사람들이 명성만을 좇아 건양(建陽)의 단산벽수(丹山碧水)만 찾을 뿐, 해남 옥천차의 훌륭함에 대해서는 무지한 것을 통탄했다.²⁴⁶⁾ 『동다송』 9절 “설화와 운유는 강렬한 향기를 다투고(雪花雲腴爭芳烈)”라는 문장에도 운유(雲腴)라는 단어가 나온다.²⁴⁷⁾

또 초의에게 영향을 받은 차인으로는 자하 신위가 있다. 신위는 초의의 부탁으로 초의의 스승인 완호의 탐명과 서문을 써준 인연으로 초의와 가까워졌다. 신위는 박영보를 통해 초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초의가 자신을 만나 제액(題額)까지 받는 꿈을 꾸었다는 말을 듣고 「원몽사편병서(圓夢四篇并序)」를 지었다.

師豈有求於世者	승려 어이 세상 이름 구하려는 자이라
意行飛錫到王城	뜻으로 석장(錫杖) 날려 왕성에 이르렀네.
詩拈閨集閨媛例	시 지어도 운집(閨集)으로 규원(閨媛)의 예 따르고
跡晦煎茶博士名	자취 숨겨 차를 끓여 박사 이름 얻었다네.

초의는 차를 잘 만들었다. 금령이 일찍이 「초의차가(草衣茶歌)」를 지은 것이 있다. 인하여 더불어 사귀을 맺었다(草衣工製茶. 錦齡嘗有草衣茶歌. 因與證交).(其一)²⁴⁸⁾

이 시는 초의가 차에 조예가 깊었으며, 그에 걸맞은 전다박사라는 호칭을 얻고 다양한 인간관계를 맺었음을 밝혀주고 있다.

245) “余觀物之生, 遐則遺, 不遇則晦. 不在桃李之門, 人不知, 不入終南之徑, 材不市. 悲夫! 海陽之玉川茶, 氣味芳烈, 雪花雲腴”. 『추당잡고』. 해석은 정민, 『다산의 재발견』 참조.

246) 정민(a), 위의 책, p. 550.

247) 정영선 편역, 『동다송』, 너럭바위, 2007, p. 45.

248) 申緯, 『警修堂全藁』 十六冊, 「圓夢四篇 并序」

天光如水水如烟
此地來遊已半季
良夜幾同明月臥
清江今對白鷗眠
嫌猜元不留心內
毀譽何曾到耳邊
袖裏尚餘驚雷笑
倚雲更試杜陵泉

하늘빛은 물 같고 물빛은 아지랑이 같아
이 땅에서 지낸지도 이미 반년일세.
좋은 밤에는 거의 밝은 달과 함께 눕고
맑은 강에서 지금은 갈매기와 즐고 있네.
시기 질투를 원래 마음속에 담지 않았으니 .
험뜯고 칭찬함이 어찌 컷가에 이르리.
소매 속에는 아직도 경뢰소차가 남아 있으니
구름에 기댄 채 두릉천을 시험해 보련다.249)

이 시에서 초의는 차의 물을 중시하여 차의 맛을 내는 일을 유가의 윤리적인 삶에 비유하였다고 하였다. 잘 만든 차와 좋은 물을 가지고 알맞은 분량으로 중(中)을 얻고, 찻물이 잘 우러나 화(和)하면 중정(中正)이 갖추어진다고 하였으니, 그러한 차를 마시면 대도를 얻게 된다고까지 하였다. 이 시는 이러한 다도 정신이 잘 표현된 작품으로 석천을 두릉천이라고 하면서 차를 다리는 한가함을 시화하였다. 수련(首聯)은 푸른 하늘과 맑은 강물, 그리고 차 연기 푸르게 어우르는 한 폭의 조화된 그림이다. 함련(頷聯)에서는 달빛 아래 잠들던 자신의 모습을, 강가에서 조는 흰 갈매기와 벗을 삼아 자연스럽게 담고 있다. 여기서 ‘명월’은 차 마시기 좋은 벗만이 아니라, 선사가 의지하는 부처님의 화현(化現)이자 진리를 의미하고 있다. 부처님의 진리에 의지하여 맑고 고아한 구도의 모습을 선하게 그려낸 것이다. 경련(頸聯)에서 그는 세상의 온갖 잡된 소리에 전혀 개의치 않는 경지를 읊고 있다.250)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초의는 직접 차나무를 돌보고 기르며 차를 법제하여 많은 사대부에게 선물함으로써 다도의 보급에 크게 기여했다. 추사는 초의가 법제한 차가 훌륭하여 능히 다삼매(茶三昧)를 통달한 것 같다고 했고, 산천(山泉)은 초의의 차 법제 비방이 오백년의 비법을 계승한 것이라고 하면서 그가 차 고르기를 마치 부처님 고르듯 한다고 했다. 신위는 초의를 전다박사(煎茶博士)로 불렀다. 이처럼 초의는 이미 당대에 다승으로 유명했으며, 다도를 생활 속에 구현함으로써 대문사의 음다풍을 유지하고 확산·정립하였다. 초의에 의해 다시 꽃핀 차문화 전통은 다시 범해에게 계승되었다. 범해는 「초의차」라는 제목의 시를 지었고, 29편의 차시와 「다약설」이라는 차 산문을 발표하며 대문사 차문화를 계승하고 확산시킨 인물이었다.

249) 「초의시교」 권1(한국불교전서 10책), 「石泉煎茶」.

250) 김미선, 「儒佛의 茶詩 世界」, 『韓國思想과 文化』 제55집, 2010, pp. 82-83. 참조.

2) 차문화의 계승과 범해

범해의 속성은 최씨이고, 속명은 어언(魚堰) 또는 초언(超堰), 이름은 각안, 자는 환여(幻如), 호는 범해(梵海)이다. 그의 저서인 『동사열전』의 「자서전」²⁵¹⁾에 의하면, 그는 14세에 대둔사 한산전에서 출가하였고, 16세에 호의에게 삭발하고 승복을 입었으며, 초의로부터 구족계를 받았다. 그는 하의 정지(荷衣 正持)를 설계사(說戒師), 묵화 준훤(默和 俊暄)을 수계사(授戒師), 화담 영원(華潭 永源)을 증계사(證戒師), 초의를 비구 및 보살계사(菩薩戒師), 호의를 전법사로 삼았다.

범해가 차생활에 집중하게 된 계기는 당시의 경험을 적은 「다약설(茶藥說)」을 통해 알 수 있다. 33세 때 이질에 걸려 죽음의 문턱에서 다약(茶藥)으로 새 생명을 얻고 난 후 그는 본격적인 차생활에 접어들었다. 몸을 회복한 후부터 그에게 차는 삶의 일부였으며 수행이었다. 「다약설」은 『범해문집』과 『백열록』에 수록되어 있다. 하지만 두 문건은 글자 출입이 상당히 엇보인다. 그의 차문화관은 「초의차」·「다구명」·「다가(茶歌)」등 그가 남긴 차시를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다. 그의 차시 「차태연(次泰演)」의 수련에는 “공문(空門)에 한번 들어 시비를 끊었거니, 다방(茶坊)과 강사(講肆)에는 나무람 아예 없네.”²⁵²⁾라고 쓰고 있다. 또 「차칠성암운(次七星庵韻)」의 함련에는 “차 마시는 이야기 속에 자기(紫氣)는 떠 있고, 땅에는 보리 익어 누런 구름 가득하네.”²⁵³⁾라고 적고 있다. 범해 차시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다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도 나온다.

攤書久坐精神小
 茶情暴發勢難禁
 花發井面溫且甘
 剎鐘擁爐取湯音
 一二三沸清香浮
 四五六椀微汗泚

책을 편지 오래이니 정신이 혼미하여
 차 생각 간절하여 참기 어렵구나.
 꽃 핀 우물은 물맛은 달고
 두레박으로 떠 화로에 차 끓이는 소리 기다리네.
 한 번, 두 번, 세 번 끓이니 맑은 향기 떠오르고
 네, 다섯, 여섯 주발 마시니 땀이 솟아나는 듯.

251) 범해 撰, 김윤세 역, 『동사열전』, pp. 13-14, 「자서전」에 의하면, “『동사열전』은 3권으로 모두 198인의 행적을 써서 곁에 두고 책 속의 스승으로 삼았다. (所集東師列傳三卷 凡一百九十八人行蹟書 置左右 爲作書中先師)고 하였다. 현재 『韓國佛教全書』에는 6권으로 수록 되어 있다.

252) 각안, 『범해선사시집』, 一, “一入空門斷是非 茶坊講肆了無譏 見解分明銀海靜 襟懷爽朗葆光暉 暴好眞常茶匠席 翻厭世諳掩柴扉 月出山前豎拂坐 同風千里盡歸依.”

253) 각안, 『범해선사시집』, 一, “登臨峽岫有名區 鳥自喃喃水自流 紫氣浮軒茶話午 黃雲滿地麥光秋 三盃就枕濃眠睡 十載遇君愧白頭 坐得滄波萬里外 秦童採藥一孤舟.”

桑苧茶經覺今是
 玉泉茶歌知大體

상저의 『다경』도 이제야 옳은 줄 알겠고
 옥천의 「다가」 대체를 알겠도다.

이 시는 범해가 차생활을 통해 직접 육우의 『다경』이나 옥천의 「다가」를 몸소 체험하였음을 기술한 것이다. 다승(茶僧)으로서의 자부과 긍지가 엿보이는 대목인데, 육우가 말한 차를 끓이는 과정에서의 물 끓이는 단계를 첫 번째 끓임은 ‘일비(一沸)’ 어목(魚目), 두 번째 끓임을 ‘이비(二沸)’ 용천연주(湧泉連珠), 세 번째 끓임을 ‘삼비(三沸)’ 등파고랑(騰波鼓浪)으로 표현한 것을 떠올리게 한다. 육우가 삼비를 나눈 이유는 물 끓이는 각 단계에 맞게 차를 끓이는 과정을 만들었기 때문이다.²⁵⁴⁾

寶林禽舌輸營府
 花開珍品貢殿陞
 威務土產南方奇
 康海製作北京啓

보림사 작설은 감영에 실어가고
 화개동 좋은 차 대궐에 바치네.
 함양·무안의 토산차를 남방의 진품이요,
 강진·해남의 법제 방법은 북경에서 배웠다네.

이 시에는 당시 보림사, 백양사, 화개동, 함양, 무안, 강진, 해남, 서석 등지에서 토산차가 생산되었고, 차를 즐기는 풍속이 유행하고 있었던 것이 언급되어 있다.

心累消磨一時盡
 神光淨明半日增
 睡魔戰退起眼花
 食氣放下開心膺
 苦利停除曾經驗
 寒感解毒又通明

잡된 생각은 일시에 없어지고
 맑고 밝은 정신 한나절도 더 가네.
 졸음은 물러가고 밝은 빛이 생기면서
 식곤증 내려가니 가슴 속 시원하네.
 피로움과 욕심 없애는 것 경험했고
 감기도 나아 통명해 졌다네.

이 시는 차를 마시면 샷된 생각이 사라지고 마음에 답답한 것이 말끔히 가셔지며, 정신이 번쩍 들어 졸음이 가시고, 소화에 도움이 된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는 차가 감기를 낮게 하며, 독성을 해독해주는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다고 적었다.

瑞石檜旗因仁試
 白羊舌觜從神傾
 德龍龍團絕交澗
 月出出來阻信輕

서석의 좋은 차, 그 맛 시험하고
 백양사의 작설차, 마음을 홀리누나.
 덕룡의 용단 사절하고
 월출에서 오는 차 막아 버렸네.

254) 정유화, 『다경강설』, 삼녕당, 2013, p. 193.

이 시는 서석산의 차와 백양산의 작설차가 차 맛이 뛰어나다고 언급하였다. 이 시에 나오는 나주 덕룡산 불회사의 차는 용단차였는데, 이 차와 영암 월출산 백운동에서 나는 차는 서석산과 백양사의 차로 인해 음용에 제한을 받았다. 하지만 그 이유가 확실히 밝혀진 문헌은 아직 없다.

中孚舊居已成丘
 離峯棲山方安餅
 調和如法無爲室
 穩藏依古禮庵靜
 無論好否南坡癖
 不讓多寡靈湖情
 細看流俗嗜者多
 不下唐宋諸聖賢
 禪家遺風趙老話
 見得眞味靈山先
 挽日工了玩月夜
 茗供吹簫煎相牽
 正筍彥銕臘日取
 聖學汲泉呼太蓮

중부의 옛집, 이미 언덕으로 변하고
 이봉이 살던 산에 물 길기 편안하다네.
 조화하기 무위실의 법과 같이하고
 잘 간수하기 옛 예암의 법을 따랐네.
 좋고 나쁨 따지지 않음은 남파의 벽이고
 많고 적음 사양치 않음은 영호의 뜻일세.
 풍속을 살펴보고 자 즐기는 이 많은데
 당·송의 성현에서 뒤지지 않는다.
 선가의 유풍은 조주의 화두
 진미는 제신이 먼저 얻었구나.
 만일암 일마치고 달구경하는 밤에
 차 공양하고 피리 불며 서로 이끌어 차를 끓이네.
 정사와 언질은 선달에 차를 얻고
 성학은 물을 길고 태련을 부르네.

이 시에는 초의의 암자도 허물어져 언덕으로 변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는 세월이 많이 흘렀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여기에 나오는 범명 중부, 이봉, 예암, 남파, 영호 등은 아마도 대둔사 주변에 살았던 다승들의 호로 보인다. 이들은 중부(초의의 호)를 제외하고 초의 이후 그 법맥을 이은 제자들이었다. 이 시는 승려들의 영향으로 세속의 인사들 중 차를 즐기는 사람들이 당송 제현들만큼이나 늘어났다고 언급하고 있다.

萬病千愁都消遣
 任性逍遙如金仙
 經湯譜記及論頌
 一星燒送無邊天
 如何
 奇正力書與我傳

만병과 온갖 걱정 모두 훌어지고
 임의로 노니나니 신선과 같도다.
 차 끓는 동안 차 문헌 살펴보니
 별 하나가 무변천에 떨어지네.
 어찌하여
 귀하고 좋은 책 나에게 전해졌는가.²⁵⁵⁾

이 시는 차에 대한 기록을 남기지 않으면 떨어지는 별에 불과하다고 말하면서 차문화를 자세히 적어 세상에 전한다고 마무리하고 있다. 한 구 한 구가 차 시어가 들어갈

255) 각안, 『범해선사시집』 二, 「茶歌」.

정도로 제목과 맞게 차를 노래한 대표적인 시이다. 또한 범해의 차생활과 당시의 차문화
 화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범해는 정학연의 아들 정대립에게 보낸 편지에서 스승 호의의 입적으로 받은 충격에
 서 벗어나지 못한 채 그에 대한 그리움을 절절히 표현하였다. 아래의 다가(茶歌)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

…… 보잘 것 없는 차입니다만 네 찻을 봉하여 올려 옛 의(義)를 표할 뿐입니다. 차
 의 이름은 초의제(草衣制)입니다. 청양성에서 좋은 일이 있기를 빕니다. 이만 즐입니
 다.²⁵⁶⁾

여기에는 초의제(草衣制)라는 차 이름도 등장한다. 초의가 만든 제품이라고 해석되지
 만 이는 그가 다산가와 그 손자 대까지 교류하고 있었음을 의미한 것이다.

다음 「다구명」에서도 범해의 차생활을 엿볼 수 있다.

生涯清閒	생활이 맑고 한가하기에
數斗茶芽	몇 말 찻잎 만들었네.
設苦竈爐	투박한 질화로
載文武火	문무를 함께 담았네.
瓦罐列右	질그릇 다관은 오른쪽에
瓷甕在左	오지완은 왼쪽에 있다네.
惟茶是務	오직 차 마시는 일을 즐기니
何物誘我	무엇이 나를 유혹하리오. ²⁵⁷⁾

이 시는 몇 말 차 싹을 따다 차를 만드는 청한한 삶을 노래하고 있다. 여기서 몇 말
 의 찻잎을 채다(採茶)했다는 것으로 보아 그 당시 대둔사나 그 주변에서 차가 많이 자
 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투박한 납은 화로를 어렵게 꺼내, 숯불을 피워 문화
 (文火)와 무화(武火)를 조절하기도 하였고, 질그릇 다관과 오지로 구운 찻잔을 양편에
 벌여 놓고 차 마시는 일만 즐겼다. 그런가 하면 차 마시는 일 이외의 어느 무엇도 마
 음을 유혹할 수 없다며 차에 대한 그의 애정을 담고 있다.

256) 번역은 尹順燾, 「十九世紀 大興寺 茶風에 대한 研究 -梵海覺岸을 中心으로」,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
 문, 2011, p. 41. 원전은 覺岸, 『梵海禪師詩集』, 第二, 韓國佛教全書十冊, p.1095, “茶品雖劣 四帖封呈 但表
 舊義名則草衣制 青陽城裡 以迎卿雲 不備”

257) 각안, 『범해선사시집』 一, 「茶具銘」.

이쯤에서 「초의차무인년(草衣茶戊寅年)」에 초의가 만든 차에 대해 범해가 구체적으로 증언한 중요한 기록이 있음을 언급하고자 한다.

穀雨初晴日	곡우 날 맑은 날
黃芽葉未開	노란 싹은 아직 잎이 피지 않았는데
空鑪精炒世	솥에서 잘 볶아내어
密室好乾來	밀실에서 잘 말리네.
栝斗方圓印	방원모양의 잣나무그릇으로 차 짙어 내고
竹皮苞裹裁	죽순 껍질로 안을 말아서 포장하네.
嚴藏防外氣	단단히 봉하여 바깥바람 막으니
一椀滿香回	한 사발에 향기 가득하다네. ²⁵⁸⁾

이 시는 1878년에 지은 작품인데, 초의가 세상을 뜬지 12년이 지난 시점이다. 곡우날 맑은 날에 미처 잎이 피지 않은 찻잎만을 가려 따서 돌솥에서 세심하게 잘 볶아낸다고 하여 차 따는 시기를 말하였고, 찻잎을 밀실에서 잘 건조하여 네모나 둥근 잣나무 틀에 넣어 짙어낸다[餅茶]고 하여 제조법을 말하기도 하였다. 또 틀에서 짙어낸 차는 죽순 껍질로 포장하여 보관한다고 하여 저장법까지 소개하고 있다. 그래야만 나중에 꺼내 끓여 마실 때 맑은 향기가 가득 감도는 것을 느낄 수 있다고 하여 그저 아취만 노래한 여타의 다시와 차별성을 느끼게 한다.

그 외 범해의 차시에는 「만일암병술년(挽日庵丙戌年)」, 「방북암(訪北庵)」, 「송진도금룡은갑인년(送珍島金龍殷甲寅年)」, 「차강매오운(次姜梅塢韻)」 등이 있다.

爲靜自心地	스스로 마음을 고요히 하려고
遲留挽日菴	오래도록 만일암에 머물렀지.
布杉遮老骨	베옷은 늙은 몸 가려주고
茶藥洗殘痰	좋은 차로 담 씻어주네.
海鏡古今一	거울 같은 바다는 고금에 한 가지요.
居隣南北三	이웃은 남북에 서너 집뿐이네.
高朋來結夏	좋은 친구 와서 여름 안겨 보내니.
活計最初甘	살아가는 일 처음으로 달콤하다네. ²⁵⁹⁾

1886년(丙戌)에 지은 위 시에서 범해는 만일암에 머무는 목적을 말하고 있다. 마음을

258) 『범해유집보유』, 「草衣茶戊寅年」.

259) 『범해유집보유』, 「挽日庵丙戌年」.

고요히 하려 한 때문이라고 한다. 즉 자심을 고요하게 하고 선정에 들고자 하는 수행의 의지를 좋은 차를 마시고 거울 같은 바다를 바라보며 좋은 벗과 안거하는 삶으로 풀어내고 있다. 그만큼 투철한 수행정진의 모습과 심오한 정신의 경지를 드러내고자 하였음을 의미한다.

박동춘은 범해의 필사본 미정고(未定稿)를 조사하던 중 차시 「적다(摘茶)」와 「제다(題茶)」를 발견했다고 밝히고 있다. 「제다」에는 범해가 차의 용처에 따라 차 이름을 명명했다는 것을 기술하고 있는데 이는 범해가 차의 용례를 처음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妙法難思甘露茶
 時時到處接賓茶
 □□□□話茶
 震默祖師傳謂毅
 草衣宗師□□□
 □□□□□□□

묘법이라 헤아릴 수 없는 차는 감로차이요
 때에 따라 처처에 따라 마시는 차는 접빈차이라
 □□□□화차이요
 진묵조사 드신 차는 곡차라고 전해지는
 초의선사 차는 □□□□
 □□□□□□□²⁶⁰⁾

이 시는 칠언이 1구를 이룬 6구의 시이다. 시의 형식에서 약간 벗어나고 있지만 결락된 것이 많은 것으로 보아 꼭 그렇게만 볼 수는 없다. 범해는 차는 묘한 이치가 있어서 헤아릴 수 없는 경지에 있기 때문에 감로차라 하였으며, 때와 용처에 따라 즐기는 차를 접빈차라 하였다. 진묵조사가 마신 차는 곡차라는 것인데, 이는 술을 좋아했던 진묵조사의 고사에서 연유된 것이다. 진묵조사는 술을 마실 때 곡차라고 해야 마셨다²⁶¹⁾고 했으니 말이다.

대둔사는 초의와 범해 이외에도 차시를 남긴 승려들이 여럿 있다. 초의보다 5세 아래로 연파의 손제자인 칠선혜즙이 3편, 대둔사에서 출가하여 초의에게 보살계를 받은 보제심여(善濟 心如, 1828-1875)가 2편, 한말에서 일제 강점기에 걸쳐 송광사와 대둔사에서 활동한 금명보정(錦溟 寶鼎, 1861-1930)이 60여 편을 남기고 있다. 이들 외에도 일제 강점기 대둔사에서 출가하여 주지를 역임하며 차 보급에 앞장선 응송 박영희(應松 朴英熙, 1892-1990)를 빼 놓을 수 없다. 차에 관한 그의 저술에는 위에서 언급한 『동다정통고(東茶正統考)』가 있다. 이 책에는 “내가 대홍사에서 차를 만들 당시 약 60여년 전 대홍사에는 각각 그 문중(門中)이 다른 소요파와 편양파가 있었다. 독특한 것은

260) 범해각안, 「題茶」, 미정고 문집 필사본, 박동춘, 「범해각안의 차시연구」, 『대각사상』 第13輯, 2010, pp. 212-213. 참조.

261) 박동춘, 「범해각안의 차시연구」, 위의 논문, pp. 212-213.

대용전을 중심으로 백설당, 대광명전, 천불전 등 그 문중의 살림이 각각 독립되어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어느 문중인가 하는 말을 ‘어느 찻독이냐.’라고 했으며 각 문중마다 제각기 차가 나는 철이면 제다하곤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기(其) 제다법에 있어서 정제(精製)된 차를 제조하지 못한 것 같다”²⁶²⁾라고 회고하고 있는데 이는 대둔사의 가풍이 승려들이 차를 만들고 마시는 다풍에 의해 계승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선 중기 이래로 일부의 다승과 문인들에 의해 겨우 유지되고 있던 음다풍은 19세기에 이르러 다시 한 번 흥성하던 옛 모습을 찾코자 하였는데 그 중심에 대둔사와 백련사가 있고 그 주역을 연파와 다산·추사, 그리고 초의와 범해가 맡았던 것이다.

262) 박영희, 『동다정통고』, 호영출판사, 1985, pp. 29-30.

V. 결론

조선 후기는 차문화의 중흥기로 평가된다. 이 시기에는 차생활이 어느 정도 일상화 되기 시작하였으며, 전통의 시 문화가 불가의 선사와 어울려지면서 복합적 문화공간을 형성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조선시대는 송유억불의 시기였기 때문에 승려들은 여전히 천대를 받았으며, 관료 및 사대부들과 쉽게 어울리지 못했던 시기였다. 이런 상황은 조선 중기까지 지속되었지만, 후기로 접어들면서 대둔사를 중심으로 상당한 변화가 일어났다. 16-17세기 임란 당시 의병활동을 수행하였던 서산대사 등을 중심으로 불교에 대한 인식이 점차 바뀌기 시작한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는 18-19세기로 접어들면서 더욱 활성화된다. 이 시기 대둔사에서는 대규모 화엄경 강회가 연이어 개최되고 청허의 선맥을 잇는 종사들이 연이어 배출되면서 서산유(西山遺意)가 구체화된다. 그에 과정에서 표충사까지 건립되어 대둔사는 조선의 불교중심지로 그 위상이 강화된다. 조선 후기의 차문화는 이런 대둔사의 위상과 그 궤를 같이 하는데 그 주역들은 연파, 다산, 추사, 초의, 범해 등이었다.

본 논문은 이들의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들의 교류를 통해 차문화는 어떻게 발전, 중흥, 계승되어 조선 후기 차문화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등을 고찰하였다. 본 논문이 조선 후기 차문화 연구와 차별되는 점이 있다면 위와 같은 연구의 중심을 종래의 다산이나 초의를 중심으로 본 것이 아니라 연파 혜장이라는 묵명유행(墨名儒行)에 두었다는 점이다. 이를 밝히기 위해 본 논문은 연파의 불교적 삶과 유불사상, 특히 연파의 백수시에 중점을 두고 천착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청나라의 옹방강과 추사 김정희, 연파와 추사, 연파와 다산, 추사와 초의와의 관계, 초의 이후의 범해까지 망라하였다. 이를 통해 대둔사가 조선 후기 차문화의 중심지가 되기까지의 전 과정 자세하게 고찰하고자 하였다.

특히 본 논문의 핵심이 되는 II장에서는 연파의 삶과 사상에 대해 언급하였는데, 그는 선교에 뛰어난 종사요, 그의 시문집인 『아암집』, 『연파잉고』, 백수시 등에는 그의 유불을 융회한 삶과 사상을 밝혔다. 이를테면 『화엄경』 대강회의 맹주로서 7회에 걸쳐 걸친 강론으로 화엄의 대종사로 존송을 받았거나, 『능엄경』에 대한 그의 식견, 외전인 『논어』, 『주역』에 대한 해설에서 깊은 이해가 있었음을 밝혔다. 본 논문의 특징은 연파의 백수시를 자세하게 규명하여 분석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지금까지 시도되지 않았던 새로운 접근 방식일 뿐만 아니라 승려였던 연파의 삶에서 중요한 전기가

된 것 기행에 가까운 그의 삶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현실 불교의 한계를 직시하고 거기에서 빠져나오려는 처절한 몸부림이 시와 술을 통해서 드러나기도 하였던 것이다. 또 선사상과 유교사상의 화합은 유학자들과의 교류를 확대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더구나 간화선에 매진하던 그가 백수사에서 알 수 있듯이 간화선에 대해 부정적이고 비판적 입장을 거침없이 토로하자 추사와 청의 옹방강, 그리고 경성의 사대부 지식인들에게 공감과 호의를 얻는 계기가 되었다. 옹방강은 그의 시구에 공감하여 망형지우(忘形之友)를 선언하기도 하였다. 추사를 통해 부처님의 진신사리, 자신의 시집, 직접 필사한 『금강경』, 자신의 초상화 등을 보내는 후의를 베풀기도 하였다. 이런 일의 파장이 추사로 하여금 대둔사를 알게 하였고, 그런 과정에서 초의도 만나게 되었다.

III장에서는 연파 이전의 차문화와 그의 차생활 및 교유시를 고찰하였다. 그가 활동했던 대둔사의 차문화를 살펴보기 위해 연파 이전 승려들의 차시와 관련된 자료들과 12대종사와 강사를 일별하기도 하였다. 승려였던 연파는 시를 통해 사대부 유학자들과 교유하면서 차문화 관련 시문과 교유시를 남겼다. 교유시에는 그와 대둔사와의 관련성이나 그가 교유했던 유학자들로 인해 자연스럽게 조선후기 차문화가 대둔사를 중심으로 중흥하게 되었음을 밝혔다.

연파의 차생활은 그의 시문집에 잘 나타나 있다. 그 가운데 차에 관련된 시는 『연파잉고』에 많은 양이 수록되어 있는데 다산과 주고받은 시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다산은 연파에게 절명소까지 지어 보내며 차를 칭했다. 또한 다산은 연파의 차를 ‘벽간월’이라는 이름까지 지어주면서 칭찬했다. 이는 연파와 다산이 차를 통해 다양한 교류를 하였으며, 승려와 유학자 교류가 조선후기 차문화 중흥과 발전에서 중요한 계기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IV장에서는 조선 후기 차문화 발전에서 연파가 끼친 영향을 다각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는 차문화의 중흥, 발전, 확산, 계승에 영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제다, 다기, 품종 개발 등에도 영향을 끼쳤다. 이 과정에서 대둔사의 차문화는 차와 시가 어우러지는 복합적 차문화를 확산시켰다. 연파 이후 차문화는 초의의 여러 저작과 활동을 통해 꽃을 피우게 되는데 제자 범해를 통해 그 전통이 계승된다.

최근까지 진행된 조선후기 차문화 연구는 주로 다산, 초의, 추사에 집중되어 연파에 대한 연구는 『아암집』, 『대둔사지』, 『만덕사지』에 나와 있는 연파의 시를 살펴하는데 그쳤다. 본 논문에서 밝힌 『연파잉고』의 여러 차시는 그 점을 보완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논문이 『연파잉고』와 백수시에 집중한 것도 그 때문이다.

결론은 이렇다. 연파의 백수시는 조선 후기의 차문화 발전에 기폭제가 되고 대문사를 불교의 종원 및 차문화의 중심지로 발전시켰다는 것이다. 본 논문의 중요성과 차별성은 바로 이런 점을 학술적으로 밝힌 것에서 찾을 수 있다. 결국 연파는 조선후기 차문화 중흥의 출발이었으며, 불교와 유교의 매개역할을 수행하였고, 다산과 추사, 초의, 범해로 이어지는 조선 차문화의 계보를 형성하는 교두보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다시 강조하면 조선후기 차문화 중흥과 발전을 폭진시키고 사대부들과의 인적 관계를 활성화 시킨 중요 매개체는 문학적 측면에서는 연파의 백수시요, 문화적 측면에서는 차이며, 지리적 측면에서 대문사였음을 밝힌 것이다.

참고문헌

1. 원전

覺岸, 『梵海禪師詩集』, 韓國佛教全書十冊, 동국대학교 출판부
 —, 『東師列傳』, 韓國佛教全書十冊, 동국대학교 출판부
 意恂, 『東茶頌』, 韓國佛教全書十冊, 동국대학교 출판부
 —, 『茶神傳』, 韓國佛教全書十冊, 동국대학교 출판부
 —, 『艸衣詩藁』, 韓國佛教全書十冊, 동국대학교 출판부
 『論語』
 璽筭, 『霜月大師詩集』, 韓國佛教全書九冊, 동국대학교 출판부
 申緯, 『警修堂全藁』 十六冊
 正訓, 『澄月大師詩集』, 韓國佛教全書十冊, 동국대학교 출판부
 志安, 『喚惺詩集』, 韓國佛教全書九冊, 동국대학교 출판부
 秋鵬, 『雪巖雜著』, 韓國佛教全書九冊, 동국대학교 출판부
 海源, 『天鏡集』, 韓國佛教全書九冊, 동국대학교 출판부
 惠藏, 『兒菴遺集』, 韓國佛教全書十冊, 동국대학교 출판부
 休靜, 『淸虛堂集』, 韓國佛教全書七冊, 동국대학교 출판부
 『黃氏棣華集』 卷3

2. 단행본

고월용운의 율김, 『동다송.다신전』, 동국역경원, 2010
 김려編著, 『담정총서』 학지원, 2014
 김상영, 『해남 대흥사 표충사』,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 2014
 김정희著, 최완수譯, 『추사집』, 玄岩社, 1976
 김희자, 『백과사전류로 보는 조선시대 차문화』, 국학자료원, 2010
 藤塚鄰著, 朴熙永譯, 『추사 김정희 또 다른 얼굴』, 아카데미하우스, 1994
 藤塚鄰著, 윤철규.이충구.김규선 역, 『秋史 金正喜 研究-淸朝文化 東傳의 研究』, 2009
 류건집, 『한국차문화사』, 이른아침, 2007
 모로오까다모쓰, 이에이리가즈오 공저, 김명배 번역, 『조선의 차와 선』, 보림사, 1991
 무산, 『한국역대 고승들의 茶詩』, 명상, 2002

- 박경훈, 『청허당집』, 동국대학교 부설 역경원, 1987
 박동춘, 『초의선사의 차문화연구』, 일지사, 2010
 박영희, 『동다정통고』, 호영출판사, 1985
 박완식, 『국역아암집』, 이회문화사, 1997
 백과공선 저, 김두재 옮김, 『한글불교전서, 작법귀감』, 동국대학교 출판부, 2010
 범해 撰, 김윤세 역, 『동사열전』, 1991.
 성백효 역주, 『논어집주』, 전통문화연구회, 2013
 송재소·조창록·이규필 옮김, 『한국 차문화 천년 7』, 돌베개, 2014
 수인, 『청규와 차』, 동국대학교 출판부, 2010
 신경허 편, 『아암집』 부록, 신문관, 1920
 운허 주해, 『능엄경주해』, 동국대학교 부설 동국역경원, 1993
 유흥준, 『완당평전』 1, 학교재, 2002
 이능화 역주, 『조선불교통사』, 동국대학교출판부, 2010
 이종찬, 『韓國佛家詩文學史論』, 불광출판부, 1993
 이진오, 『한국 불교문학의 연구』, 민족사, 1997
 임종욱 역주, 『초의선집』, 동문선, 1993
 임혜봉, 『다성 초의선사와 대둔사의 다택』, 예문서원, 2001
 정 민, 『다산의 지식경영법』, 김영사, 2009
 _____, 『다산의 재발견』, 휴머니스트, 2011
 _____, 『새로 쓰는 조선의 차 문화』, 김영사, 2011
 정병삼, 『19세기의 불교사상과 문화』, 『추사와 그의 시대』, 돌베개, 2002
 정영선 편역, 『동다송』, 너럭바위, 2007
 정재훈, 『정조학술과 조선성리학』, 『추사와 그의 시대』, 돌베개, 2002
 짱유화, 『다경강설』, 삼녕당, 2013
 최범술, 『한국의 다도』, 1975
 풍계현정 著, 김상현 옮김, 『일본표해록』, 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2010
 한글대장경 『연담대사임하록 외』, 동국역경원, 1997
 忽滑谷快天 著 ; 정호경 譯. 『조선선교사』, 명저간행회, 1969
 『2014년 상반기 실학박물관 특별전 유배지의 제자들』, 실학박물관, 2014
 『다산학단문헌집성』 二, 동아시아학술원, 대동문화연구원, 2008
 『대둔사지』, 대둔사지 간행위원회, 강진문헌연구회, 1997

『불교춘추』, 불교춘추사, 1996-1997

3. 학위논문

- 권동순(圓法), 「兒菴 惠藏에 대한 研究」,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 권섭순, 「李奎報의 文學과 茶文化觀 研究」, 원광대학교 동양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 김영자, 「조선 후기 차와 시를 통한 유불교류연구」,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 남정숙, 「朝鮮時代 佛敎 茶文化 研究-禪僧 茶詩를 中心으로」,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 박동춘, 「초의선사의 차문화관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 박성자, 「喚惺志安의 詩 研究」,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박준원, 「담정총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4
- 오경후, 「朝鮮後期 僧傳과 寺誌의 編纂 研究」,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2
- 윤순희, 「十九世紀 大興寺 茶風에 대한 研究 -梵海覺岸을 中心으로」,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 윤효진, 「다산의 전등계 제자에 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 천금매, 「18-19 世紀 朝·淸文人 交流尺牘 研究」,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 한기정, 「18·19世紀 朝鮮 知識人의 茶文化 研究」,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 한주희, 「조선중기 선승들의 차문화관 연구-서산과 그 문도를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동양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4. 일반논문

- 강명관, 「담정 김려 연구」, 『一師大論文集』 제9輯, 1984
- 권동순, 「涵月海源의 思想과 二種禪에 대한 考究」, 『韓國禪學』 제26호, 2010
- _____, 「月渚道安의 禪詩연구」, 『韓國禪學』 제29호, 2011
- 김미선, 「儒佛의 茶詩 世界」, 『韓國思想과 文化』 제 55집, 2010
- 김상홍, 「茶山學이 草衣禪師에 게 끼친 影響」, 『漢文教育研究』 第19號

- 김선원, 「묵명유행의 선승 아암혜장」, 『불교춘추』 4호, 불교춘추사, 1997
 _____, 「아암혜장 집중연구 1, 2」, 『불교춘추』 6, 7호, 불교춘추사, 1996-1997
 김방룡, 「선승(禪僧)들의 차문화에 대한 일고(一考)」, 『韓國禪學』 第21號, 2008
 _____, 「조선시대 불교계의 유불교섭과 철학적 담론」, 『儒學研究』 第25輯, 2011
 김상일, 「조선중기 士大夫의 승려와의 交遊詩 연구」, 『한국어문학연구』 제39집, 2002
 김석태, 「兪菴 惠藏의 사상적 지향과 시문학의 양상」, 『古詩歌研究』 제18집 동아대 출판부, 2006
 _____, 「범해각안의 두륵산 한시」, 『한국언어문학』 제73집, 2010
 김용태, 「大菴寺의 '宗院' 표명과 그 불교사적 의미」, 『구산논집』 제11집, 2006
 _____, 「초의선사의 학예와 사상: 19세기 호남불교의 초상」, 『불교기록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 용흥사 소장 자료의 조사·연구 사례를 중심으로』, 2012
 박건주, 「추사의 간화선·대혜종교·삼처진심에 대한 비판과 사상사적 의의」, 『선문화연구』 17, 2014
 박동춘, 「범해각안의 차시연구」, 『대각사상』 제13집, 2010
 박서연, 「연파 혜장의 백수시가 대둔사 차문화에 끼친 영향」, 『한국차학회지』 21호, 2015
 박완식, 「아암시문학연구」, 『어문연구』 25집, 1997
 유호선, 「추사 김정희의 불교시 연구」, 『韓國佛敎學』 제46집
 유호선, 「조선후기 유학자들의 불교관」, 『불교평론』 18호, (재)만해사상실천선양회, 2004
 송해경, 「초의 『다신진』 등초의 차문화사적 의의」, 『韓國禪學』 제36호, 2013
 오경후, 「朝鮮後期 『萬德寺志』의 撰述과 性格」, 『역사민속학』 제28호, 2008
 이희재, 조윤희, 「19세기 대둔사 학승들의 유교경전 이해」, 『범한철학』 28집, 2003
 이희재, 「주역을 통해 본 아암의 선사상 1.2」, 『선문화』 33호, 2003
 _____, 「19세기 대둔사의 유불교류와 초의선사의 유교이해」, 『불교문화연구』 제2집, 2004
 이종수, 「조선 후기 불교 역사과목 선정과 그 의미」, 『한국사연구』 150호, 2010
 _____, 「응송 박영희 소장 불교문헌의 종류와 가치」, 『불교학보』 제68집, 2014
 임종욱, 「아암혜장의 선시에 나타난 자연미」, 『한국불교문화연구』 제3집, 2004
 정민, 「다산과 혜장의 교유와 두 개의 『견월첩(見月帖)』」, 『한국학논집』 제43집, 한양대 한국학연구소, 2008
 _____, 「다산 逸文을 통해본 승려와의 교유와 강학」, 『한국한문학연구』 제50집, 2012

- _____, 「다산이 승려에게 준 증업첩과 교학방식」, 『한국실학연구』 27, 2013
정병삼, 「18세기 승려 문집의 성격」, 『한국어문학연구』 제48집, 2007
최성렬, 「草衣 意詢에 對한 一考察, 一詩書畫三絶과 關聯하여-」, 『철학논총』 제56집,
제2권, 2009

5. 한국고전 DB

- 김정희, 『완당전집』
이규보, 『동국이상국집』 권17
이유원, 『임하필기』 제33권
정약용, 『다산시문집』 1권- 20권
_____, 『여유당전서』
『일성록』

6. 인터넷

- <https://encykorea.aks.ac.kr>
<http://newslibrary.naver.com> 「다도강좌」, 1981, 동아일보 11면
<http://www.daeheungsa.co.kr> 「두륜산 석가여래 진신 사리탑 건립 봉안기」
<http://www.goeul.kr> 양광식 글
<http://www.haenamyun.com>
<http://www.moazine.com> 김선원, 「명인들의 文과 藝」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